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

2017. 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 보고서는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귀하

본 보고서를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3월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김 효 정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01 과업 배경 및 목적 3
1. 과업 배경 ····· 3
2. 과업 목적 ····· 4

02 과업 범위 5

03 과업 수행 체계 6
1. 과업 추진체계 ····· 6
2. 연구방법 및 추진과정 ····· 6

제2장 작은미술관 현황검토 9

01 작은미술관 사업현황 11
1. 작은미술관 개념 ····· 11
2.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 12
3.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 13

02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14
1. 작은미술관 현장조사 개요 ····· 14
2. 작은미술관 세부 운영결과 ····· 15
3. 의견조사결과 ····· 25

03 운영실태 종합정리 및 주요이슈도출 31
1. 운영실태 종합정리 ····· 31
2. 주요이슈도출 ····· 32

제3장 국내 미술환경 및 유사사례 검토 37

01 국내 미술환경 검토 39
1. 미술 생태계 ····· 39
2. 미술정책 변화 ····· 43
3. 미술전시공간 현황 ····· 44
4. 미술향유실태 ····· 48

목 차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

02 유사시설 및 유사정책사업 검토 50

1. 사례조사 개요 ····· 50
2. 유사시업 검토 ····· 51
3. 유사시설 검토 ····· 61
4. 기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 사례 ····· 63
5. 해외사례 ····· 70
6. 종합정리 및 시사점 ····· 74

제4장 작은미술관 모형적용(안) 75

01 작은미술관 개념 및 유형 77

1. 작은미술관 개념 및 역할 ····· 77
2. 작은미술관 유형 ····· 80
3. 작은미술관 특징과 차별점 ····· 83

02 작은미술관 운영모형(안) 87

1. 추진체계 및 절차 ····· 87
2. 예산 및 지원규모 ····· 89
3. 위치 및 공간 ····· 93
4. 운영계획 및 인력운영 확보 ····· 95
5. 사후관리 ····· 96
6. 작은미술관 가이드라인(안) ····· 97

03 작은미술관 중장기 방향 102

04 작은미술관 운영방안 104

1. 공간운영 ····· 104
2. 프로그램운영 ····· 106
3. 인력운영 ····· 115
4. 홍보 및 마케팅 118

부록 부 록 121

01 관계자 인터뷰 결과 123

1. 인터뷰 개요 ····· 123
2. 키워드별 인터뷰 결과 ····· 125

02 미술관 미설치 지역 129

목 차

▌표 목차▐

〈표 2-1〉 작은미술관과 등록미술관 차이 ····· 11
〈표 2-2〉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사업개요 ····· 12
〈표 2-3〉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 13
〈표 2-4〉 작은미술관 현장조사 일정 ····· 14
〈표 2-5〉 두드림 작은미술관 현황 ····· 15
〈표 2-6〉 인천 우리미술관 현황 ····· 16
〈표 2-7〉 남해바래길 미술관 현황 ····· 17
〈표 2-8〉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현황 ····· 18
〈표 2-9〉 장옥미술관 현황 ····· 19
〈표 2-10〉 소록도 미술관 현황 ····· 20
〈표 2-11〉 정선 아트터미널 미술관 현황 ····· 21
〈표 2-12〉 중동 작은미술관 현황 ····· 22
〈표 2-13〉 솜리골 작은미술관 현황 ····· 23
〈표 2-14〉 키워드별 종합정리 ····· 24
〈표 2-15〉 작은미술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 개요 ····· 25
〈표 2-16〉 기본정보 부문 결과 ····· 25
〈표 2-17〉 방문목적 및 정보획득 부문 결과 ····· 25
〈표 2-18〉 미술관 방문빈도 부문 결과 ····· 26
〈표 2-19〉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 의향 부문 결과 ····· 27
〈표 2-20〉 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속운영 필요성 부문 결과 ····· 27
〈표 2-21〉 작은미술관 만족도 및 추천여부 부문 결과 ····· 28
〈표 2-22〉 관계자 인터뷰 결과 ····· 29
〈표 2-23〉 운영주체별 장단점 ····· 32
〈표 2-24〉 예산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절차 ····· 33
〈표 2-25〉 예산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절차 ····· 33
〈표 2-26〉 예산 집행 규정과 문제점 ····· 34
〈표 2-27〉 작은미술관 방향성 ····· 35
〈표 3-1〉 문화시설 현황 ····· 44
〈표 3-2〉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분포 ····· 44
〈표 3-3〉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분포 ····· 45
〈표 3-4〉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 ····· 45
〈표 3-5〉 지역별 전시문화공간 현황 ····· 46
〈표 3-6〉 OECD 주요 국가의 미술관 수 ····· 47

목 차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

〈표 3-7〉 문화시설별 현황 ····· 47
〈표 3-8〉 미술관 미조성 지역 현황 ····· 47
〈표 3-9〉 블록버스터급 전시 관람객 ····· 48
〈표 3-10〉 지역문화지표 지역별 격차 ····· 49
〈표 3-11〉 사례조사 대상 ····· 50
〈표 3-12〉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개요 ····· 51
〈표 3-13〉 전국 작은도서관 지출 현황 ····· 52
〈표 3-14〉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개요 ····· 54
〈표 3-15〉 전국 작은영화관 현황 ····· 55
〈표 3-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개요 ····· 57
〈표 3-17〉 생활문화센터 유형별 특징 및 조성현황 ····· 58
〈표 3-18〉 생활문화센터 문화관련 프로그램 현황 ····· 58
〈표 3-19〉 작은미술관 유사사업 종합 비교 검토 ····· 60
〈표 3-20〉 예산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절차 ····· 61
〈표 3-21〉 예산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절차 ····· 62
〈표 3-22〉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 개요 ····· 63
〈표 3-23〉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대상현황 ····· 63
〈표 3-2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지원사업 개요 ····· 64
〈표 3-25〉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현황 ····· 65
〈표 3-26〉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개요 ····· 66
〈표 3-27〉 문화디자인 공간 현황 ····· 66
〈표 3-28〉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개요 ····· 67
〈표 3-29〉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간 및 프로그램 현황 ····· 68
〈표 3-30〉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사업 ····· 69
〈표 3-31〉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사업 중 문화시설 관련 사업 현황 ····· 69
〈표 3-32〉 유사사업 및 유사시설 종합 비교 ····· 74
〈표 4-1〉 등록미술관, 화랑, 작은미술관 특성 비교 ····· 77
〈표 4-2〉 작은미술관 개념 ····· 78
〈표 4-3〉 작은미술관 유형 ····· 81
〈표 4-4〉 작은미술관 유형별 고려사항 ····· 82
〈표 4-5〉 작은미술관과 유사공간 비교 ····· 83
〈표 4-6〉 작은미술관과 유사 시설 및 사업과 차이 ····· 84
〈표 4-7〉 유사 시설의 프로그램 비율 ····· 85
〈표 4-8〉 유사 사업에서 미술/전시 프로그램 비율 ····· 85
〈표 4-9〉 운영주체별 역할 ····· 87

목 차

〈표 4-10〉 작은미술관 운영시 필요한 예산내역 ····· 89
〈표 4-11〉 예산별 비교 ····· 90
〈표 4-12〉 예산출처별 비교 ····· 91
〈표 4-13〉 대안 1: 국고보조금 예산확보 방안 제안 ····· 91
〈표 4-14〉 대안 2: 지특회계 경제계정 예산 확보 방안 제안 ····· 92
〈표 4-15〉 대안 3: 지특회계 생활계정 예산 확보 방안 제안 ····· 92
〈표 4-16〉 대구 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내 전시공간의 조건 ····· 93
〈표 4-17〉 대구 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내 미술과 특수 요구사항 ····· 94
〈표 4-18〉 작은미술관 권장 규모(안) ····· 94
〈표 4-19〉 공간별 지원 방안(안) ····· 104
〈표 4-20〉 작은 영화관 기획전 주요 교육프로그램 ····· 107
〈표 4-21〉 2016년 주요 지역 전시행사 ····· 108
〈표 4-22〉 주요 미술관 미술주관 기간 할인 정보 ····· 108
〈표 4-23〉 경남도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 109
〈표 4-24〉 전북도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 110
〈표 4-25〉 하동군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 110
〈표 4-26〉 양평군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 111
〈표 4-27〉 서울시 구로구 2015년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 113
〈표 4-28〉 2016년 주요 지역 전시행사 ····· 115
〈표 4-29〉 공간별 지원 방안(안) ····· 123
〈표 4-30〉 작은미술관 운영현황 ····· 123
〈표 4-31〉 작은미술관 인터뷰 결과 ····· 124
〈표 4-32〉 작은미술관 인터뷰 결과 ····· 125
〈표 4-33〉 미술관 미설치 지역 ····· 129

▌그림 목차▐

[그림 1-1] 문화예술 관람률 변화 추이 ····· 3
[그림 1-2] 문화예술 관람률 변화 추이 ····· 4
[그림 1-3] 작은미술관 현황 ····· 5
[그림 1-4] 과업의 추진체계 ····· 6
[그림 1-5] 연구방법 ····· 6
[그림 1-6] 연구 추진 과정 ····· 7
[그림 2-1] 작은미술관 추진체계 ····· 12
[그림 2-2] 작은미술관 운영 절차 ····· 12

목 차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

[그림 2-3]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 13
[그림 2-4] 작은미술관 추진현황 ····· 14
[그림 2-5] 두드림 작은미술관 현황 ····· 15
[그림 2-6] 우리 작은미술관 현황 ····· 16
[그림 2-7] 남해바래길 미술관 현황 ····· 17
[그림 2-8]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현황 ····· 18
[그림 2-9] 장옥미술관 현황 ····· 19
[그림 2-10] 장옥미술관 현황 ····· 20
[그림 2-11] 정선 아트터미널 미술관 현황 ····· 21
[그림 2-12] 중동 작은미술관 현황 ····· 22
[그림 2-13] 솜리골 작은미술관 현황 ····· 23
[그림 2-14] 방문목적 부문 결과 ····· 26
[그림 2-15] 정보획득 부문 결과 ····· 26
[그림 2-16] 미술관 방문빈도 부문 결과 ····· 26
[그림 2-17]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부문 결과 ····· 27
[그림 2-18]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 의향 부문 결과 ····· 27
[그림 2-19] 작은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부문 결과 ····· 28
[그림 2-20] 작은미술관 지속운영 부문 결과 ····· 28
[그림 2-21] 이용 만족도 부문 결과 ····· 28
[그림 2-22] 작은미술관 추천여부 부문 결과 ····· 28
[그림 2-23] 운영실태 종합정리 및 시사점 ····· 31
[그림 2-24] 작은미술관 사업 운영구조 ····· 32
[그림 2-25] 작은미술관 추진절차에 따른 예산마련 문제 ····· 34
[그림 2-26] 작은미술관 방향성 ····· 35
[그림 3-1] 국내 시각예술분야 생태계 모델 ····· 39
[그림 3-2] 한국미술시장의 구조도 ····· 40
[그림 3-3] 미술시장의 사회적 구조도 ····· 40
[그림 3-4] 미술시장실태조사 조사 설계에 따른 미술시장구조 ····· 40
[그림 3-5] 미술생태계 문제점 ····· 41
[그림 3-6] 미술생태계 개념 및 구조도 재정리 ····· 42
[그림 3-7] 시대별 미술관 정책 변화 ····· 43
[그림 3-8] 국내 미술관 현황 ····· 46
[그림 3-9] 문화예술 세부분야별 관람률(2016년 기준) ····· 48
[그림 3-10] 미술전시 관람률과 참여율 변화 ····· 48
[그림 3-11] 문화예술 인식조사 빅데이터 분석결과(문화접근성 차이부문)(2013년) ····· 49

목 차

[그림 3-12] 문화예술 인식조사 빅데이터 분석결과(2013년) ····· 49
[그림 3-13] 유사시설 및 정책사례 ····· 50
[그림 3-14]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체계 ····· 51
[그림 3-15]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 ····· 53
[그림 3-16] 여우네 도서관 ····· 53
[그림 3-17]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지원체계 ····· 54
[그림 3-18] 장수 한누리 시네마 ····· 56
[그림 3-19] 전북 김제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 ····· 56
[그림 3-20]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 57
[그림 3-21] 광산생활문화센터 ····· 59
[그림 3-22]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 59
[그림 3-23]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체계 ····· 64
[그림 3-24]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체계 ····· 67
[그림 3-25] 오하라 미술관 ····· 71
[그림 3-26] 나오시마 아트하우스 프로젝트 ····· 71
[그림 3-27] 노르망디 깡의 Le musee des Beaux-Arts ····· 73
[그림 3-28] 프리쉬 라 벨 드메 ····· 73
[그림 4-1] 전시관람 활성화를 통한 미술생태계 선순환체계 기반 마련 ····· 79
[그림 4-2] 작은미술관 역할 ····· 79
[그림 4-3] 운영결과에 따른 작은미술관 분류 ····· 80
[그림 4-4] 인천 우리미술관 운영모델(확장형 모델) ····· 82
[그림 4-5] 등록미술관과 작은미술관의 전시기획 방법 ····· 83
[그림 4-6] 작은미술관 차별적 특징 ····· 83
[그림 4-7] 작은미술관과 유사시설 관계 ····· 85
[그림 4-8] 작은미술관과 등록미술관, 대안공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안) ····· 86
[그림 4-9] 작은미술관과 타부처 문화공간 및 그 외 공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안) ····· 86
[그림 4-10] 작은미술관 추진 체계도 ····· 88
[그림 4-11] 미술관 외형 사례 ····· 94
[그림 4-12] 미술관 조성 방향 ····· 102
[그림 4-13] 작은미술관 공간 활용 방안 ····· 104
[그림 4-14] 문화공간 조성사업(예) ····· 105
[그림 4-15] 작은미술관과 지역 내 공간 상호 연계 활성화 방안 ····· 105
[그림 4-16] 지역 시/구/군/공립 미술관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 109
[그림 4-17] 작은미술관 순환 전시 구조 ····· 112
[그림 4-18] 작은도서관 직무 전문성 강화교육 ····· 113

[그림 4-19] 생활문화센터 역량강화 교육 ····· 114
[그림 4-20] 미술관 전문직 연수프로그램 ····· 114
[그림 4-21] 지역 주민을 활용한 인력 운영 사례 ····· 115
[그림 4-22] 작은미술관 전담 조직 조성 ····· 116
[그림 4-23]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118
[그림 4-24]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 118
[그림 4-25] 작은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 118
[그림 4-26]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작은영화관 링크 연결 사례 ····· 118
[그림 4-27] 생활문화센터 BI ····· 119
[그림 4-28] 작은도서관 CI ····· 119
[그림 4-29]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네이밍 공모전 ····· 119
[그림 4-30] 생활문화진흥원 키워드토크 ····· 119

Ⅰ 과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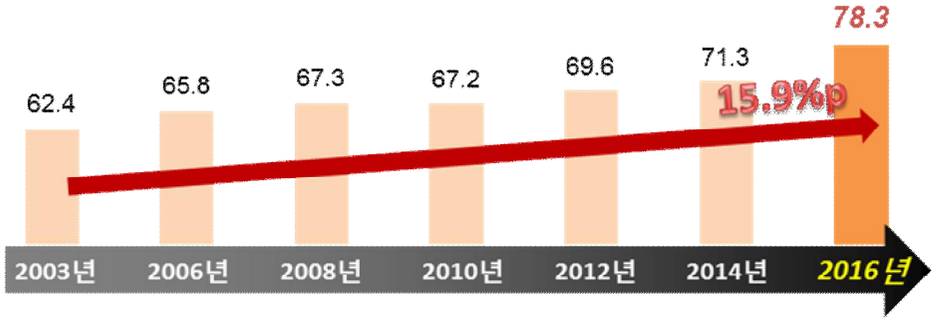
1. 과업 배경 및 목적
2. 과업 범위
3. 과업 수행 체계

01 과업 배경과 목적

1 과업 배경

대도시와 읍면지역 주민들과의 문화격차

- 최근 문화예술 관람 비율은 78.3%로 2014년 대비 15.9% 증가해 문화향유 실태조사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



[그림 1-1] 문화예술 관람률 변화 추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향유실태조사 보도자료

-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관람률이 각각 81.2%, 65.7%로 약 15%의 차이를 보이고 인천, 세종, 광주, 경기 순으로 관람률이 높게 나타났고 전남, 전북, 대구가 비교적 낮아 수도권과 지방의 관람률에도 차이를 보임
  - 인천(90.3%), 세종(85.3%), 광주(84.4%), 경기(84.4%), 부산(84%), 울산(83.7%), 서울(81.6%), 제주(76.2%), 충남(75.4%), 경남(74.7%)
- 그 중 시각예술 분야인 미술전시회는 관람률은 12.8%로 전체 9개 분야 중 4번째로 많이 관람하고 있으나 가장 많은 관람률인 영화분야(73.3%)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지역별 미술전시회 참여율(2012년 기준)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83%, 농어촌지역 17%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전체 문화예술 관람률의 지역별 차이보다 더 큰 수준의 차이를 보임
- 이에 적절한 전시공간이 없어 작품관람 기회가 없는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이 필요함

미술진흥 정책 수립에 따른 지역 미술관 조성 추진 필요성

- 미술의 창작, 유통, 향유의 선순환 환경 조성을 목표로 종합적 관점의 미술 정책인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 2014-2018」이 수립되면서 미술 향유 시설로서 미술관 양적 증대 필요성을 시사함

– 현재 「미술진흥법」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여기에는 작은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내용 포함

- 이는 미술분야의 첫 중장기 계획으로 기존 미술정책은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 및 추진되었고 특히 미술 사회적 가치실현과 문화향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이 미흡함
- 공간, 설비, 수장자료 및 수장시설 중심에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등록미술관은 소도시에는 적절하지 않음
- 이에 기존 생활문화공간, 유휴시설 공간을 활용해 공간 조성과 시설 확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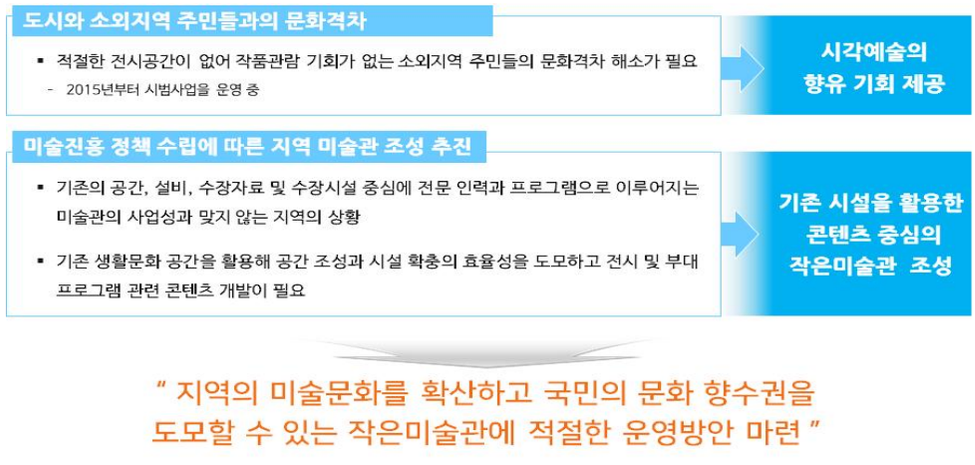
2 과업 목적

기존 시설을 활용한 콘텐츠 중심의 작은미술관의 적절한 운영방안 마련

- 도시와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지역에 적절한 미술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미술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별 각각의 실정에 맞게 지역의 적절한 운영방안도 마련함

작은미술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중장기 방향 설정

-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작은미술관 사업이 향후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고 기 조성된 작은미술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작은미술관 전반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함



[그림 1-2] 문화예술 관람률 변화 추이

02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 전국에 소재한 9개 작은미술관
  - 9개소 중 현재 6개소만 운영 중



[그림 1-3] 작은미술관 현황

시간적 범위

- 계획년도: 2016년
- 계획기간: 2018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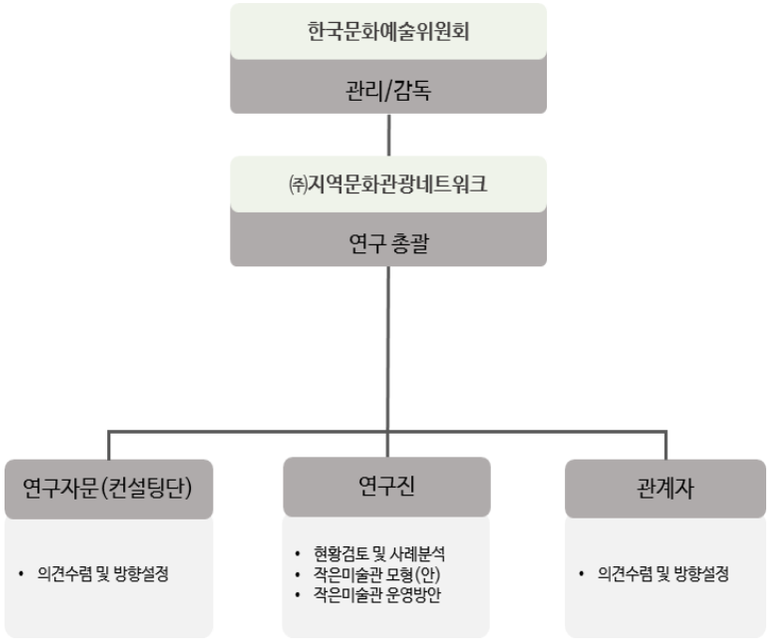
내용적 범위

- 국내 미술환경과 작은미술관 현황
  - 미술정책/미술관현황/작은미술관 운영결과
- 유사사례 조사 및 현장조사
  - 대안공간 및 타시설사례/유사사업검토/작은미술관 현장조사
- 작은미술관 모형적용방안
  - 작은미술관 개념 및 역할/작은미술관 유형 도출/운영체계 마련
- 작은미술관 운영방안
  - 공가운영방안/프로그램운영방안/인력운영방안/홍보방안 등

03 과업 수행 체계

1 과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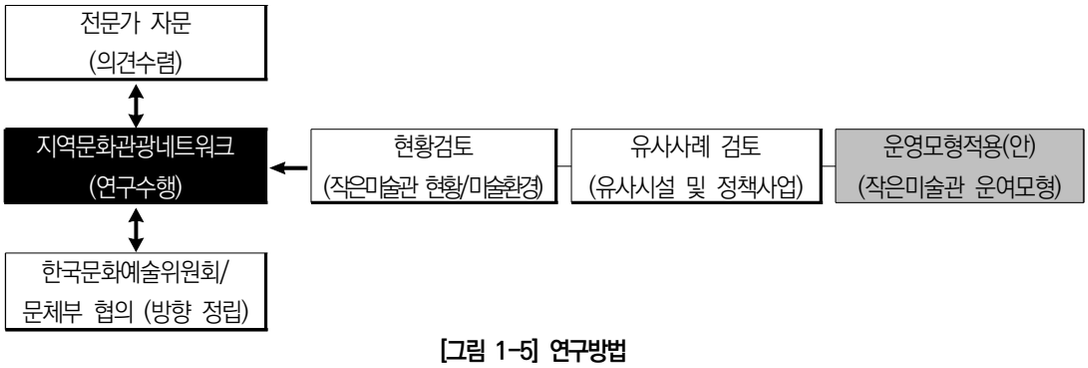
- 본 과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4] 과업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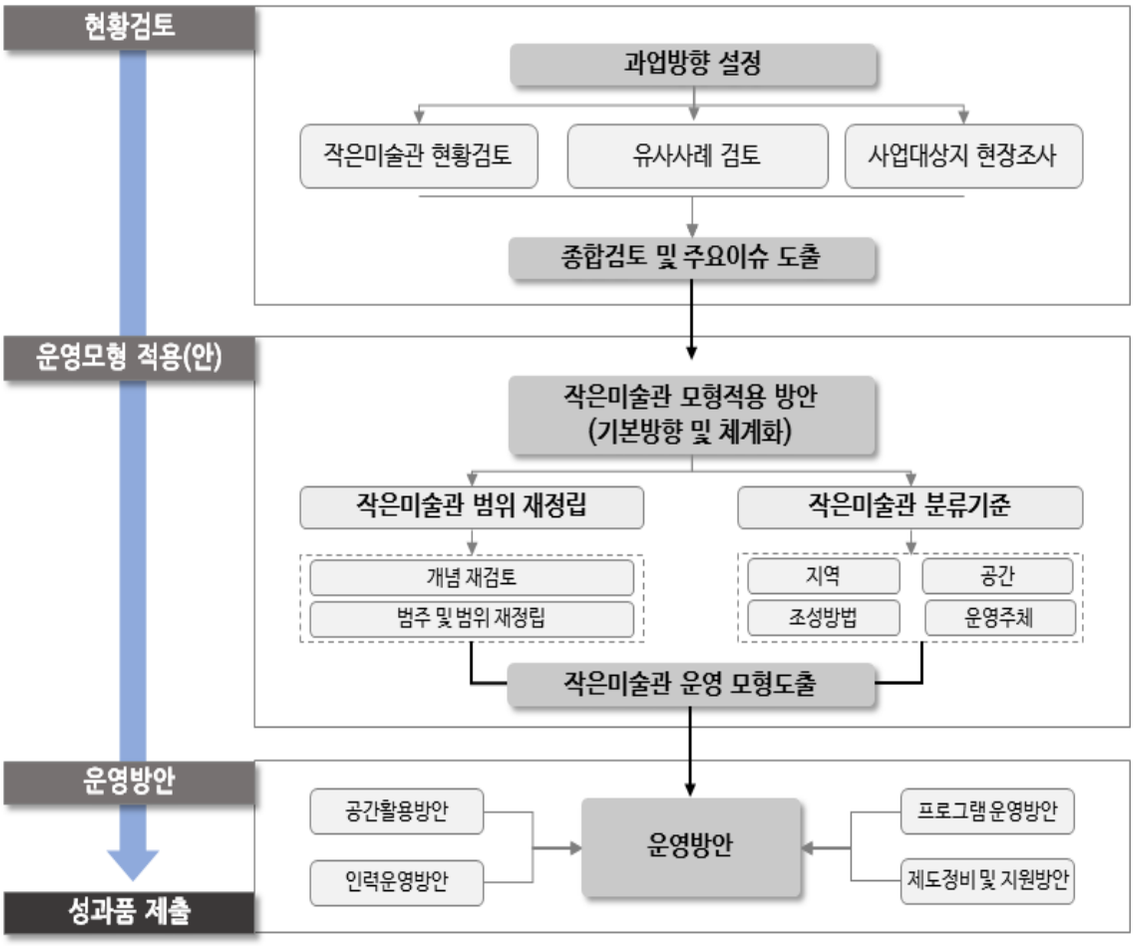
2 연구방법 및 추진과정

- 본 과업 추진을 위해 작은미술관 및 국내 미술환경 현황분석, 현장조사, 유사시설과 유사 정책사업 관련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작은미술관 운영모형을 도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함



[그림 1-5] 연구방법

- 본 과업 내용 및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1-6] 연구 추진 과정

Ⅱ 작은미술관 현황검토

1. 작은미술관 사업현황
2.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3. 운영실태 종합정리 및 주요이슈도출

01 작은미술관 사업현황

1 작은미술관 개념

기존 공간 활용하여 지역과 공간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규모 미술관

- 작은미술관은 기존의 등록미술관의 개념을 탈피하고 시각미술 문화공간이 절실한 지역에 지역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소외지역의 주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한 미술관임
- 미술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과 공간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중심의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작은미술관 개념(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친밀한 생활권 내 미술공간(수장고, 법적 시설 등을 갖춘 등록미술관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미술 공간(권장 적정규모: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82㎡ 미만))
  (참고) 면적이 82㎡이상 시설은 등록미술관 요건(1종 100㎡이상, 2종 82㎡~100㎡미만)
-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를 통해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고 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여줄 수 있는 생활 문화 공간
-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심 공간으로 2015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2차년도 지속사업 완료

〈표 2-1〉 작은미술관과 등록미술관 차이

구분	작은미술관	등록미술관
전문인력	• 반드시 전문기획자를 포함	• 학예사1명 이상 배치
공간 및 시설	•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공간이나 생활문화공간 등 운영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공간에 전시실 조성 • 혹은 특수공간 및 공공장소, 공공시설이나 이동미술관, 이동공간, 생활공간 등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활용	• 건립요건 -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 수장고 -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콘텐츠 및 프로그램	• 주변 거주민 등 관람객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독창적 전시 기획/실현 • 전시 및 부대프로그램 상시 추진	• 자료 60점 이상 구비 • 미술관 성격에 따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지역	• 전국 소단위 지역 내 작은 공간 •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 미술공간이 절실한 특수지역으로 제한	• 제한없음 - 전국의 주요 도시 및 수도권에 집중 분포

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 10조 내 등록미술관 요건(등록미술관 기준은 최소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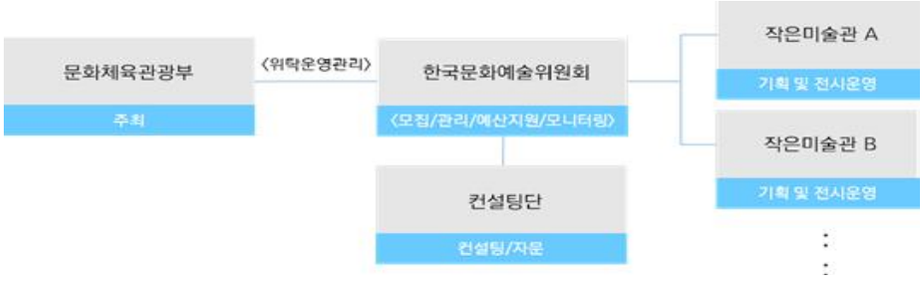
2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 작은미술관 사업은 2014년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 이후 작은미술관 공간 필요성이 시사되면서 2015년~2017년 3개년 사업으로 시범운영됨
- 등록된 미술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미술문화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 6곳을 선정하여 작은미술관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6년에도 추가 선정하며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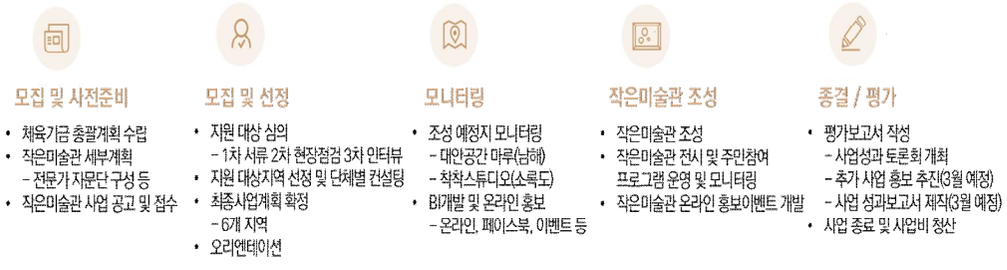
〈표 2-2〉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국민문화격차해소,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확대를 위해 유휴공간에 작은 규모의 미술관 조성				
사업기간	2015년~2017년 3년 지속사업(현재 시범사업단계로 2차년도 사업완료)				
추진과정	• 2014년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4~2018)에서 문화융성 실현위한 작은미술관 공간 필요성 시사 • 2014년 문화융성을 위한 작은미술관 조성 프로젝트 추진방향 연구 진행(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규원, 2014) • 2015년 작은미술관 시범사업 운영(총 6개소 선정) • 2016년 작은미술관 선정(총 3개소 선정)				
사업예산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개소당 지원	지원조건
추진체계	토토기금	8억원	7억원	7천만원(신규) 4천만원(재지원)	신규는 100% 지원, 재지원 50% 매칭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작은미술관 운영예산 관련 내부자료



[그림 2-1] 작은미술관 추진체계



[그림 2-2] 작은미술관 운영 절차

3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 전국에 조성된 작은미술관은 총 9곳으로 2015년에 6곳, 2016년에 3곳이 더 추가되어 건립되었으며, 현재 3곳은 운영을 중단하여 총 6곳의 작은미술관이 운영 중임

〈표 2-3〉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두드림 작은미술관	• '예술+패션'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당대 예술을 소개 및 패션지원센터 상인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패션지원센터 내 방치되었던 빈 공간에 미술관 조성	운영 중
우리미술관	•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 잔치를 개최하고, 마을 역사에 공유하여 미술을 통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 동구 내 방치되었던 주민공간을 예술공간으로 조성	운영 중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 보물섬 남해를 여행하고 남해의 풍경을 기록하기 위해 유휴공간이었던 구 보건소 건물을 이용하여 미술관 조성	운영 중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 마을의 다양한 요소들이 작품의 주제가 되고 작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아카이브 미술관을 마련하기 위해 공업단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분소를 활용하여 미술공간 조성	운영중단
장옥 미술관	• 두계시장의 옛 추억 및 사람과 계룡시의 현대미술을 담기 위해 전통시장 내 옛 장옥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미술관 조성	운영중단
소록도 Art Laundry 미술관	• 지역주민들의 시각예술 체험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접근하기 편안한 '자연'을 주제로 선정하여 소록도병원 내 창고로 쓰이던 세탁실을 활용한 예술공간 조성	운영중단
정선 아트터미널	• 구 중앙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조성 • 대전역 앞 공동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 청년단체, 작가간 협업	운영 중
중동 작은미술관	• 익산 익옥수리조합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조성하였고 일제강점기 역사적 공간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	운영 중
솜리골 미술관	• 고한사북공용터미널 지하를 미술관으로 조성하였고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변화하는 강원도역사를 표현하는 전시 개최	운영 중

〈2015~2016 작은미술관 현황〉



[그림 2-3] 작은미술관 조성현황

02 작은미술관 운영결과

1 작은미술관 현장조사 개요

- 작은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질적인 운영 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실시함

〈표 2-4〉 작은미술관 현장조사 일정

지역	미술관명	방문일자	담당자	소속
경기 동두천	두드림 작은미술관	17.01.09	이생강	경기문화재단
강원 정선	아트미술관	17.01.10	이명환/ 이희란	외부기획자/정선아리랑문화재단
대전 중동	작은미술관	17.01.12	박혜성/ 황찬연	대전문화재단/외부기획자
충남 계룡	두계 장옥미술관	17.01.12	나의석/ 주연신	계룡시청 문화예술과/도시재생과
전북 익산	솜리골 작은미술관	17.01.12	고경환 /김은미	익산문화재단/외부기획자
인천 동구	우리미술관	17.01.13	구영은	인천문화재단
경기 안산	작은미술관 밖 더 큰미술관	17.01.13	김미자/ 신숙자 외 2인	사2동 사무장/주민자치위원회
경남 남해	경남바래길 작은미술관	17.01.18	황무현	대안공간 마루 대표
전남 고흥	소록도 작은미술관	17.01.19	강의원	소록도 병원 미술관 담당 공무원

- 인터뷰 주요내용
  - 작은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진단/ 작은미술관 기획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2-5〉 작은미술관 인터뷰 내용

구분	내용
운영현황 및 운영실태	• 시설(규모, 조성시설, 인력 등) • 프로그램 운영결과(소요예산, 관람객 수, 반응 및 만족도 등) • 향후 계획
기획 및 운영상 문제점	• 프로그램 운영방향, 지역에서 미술관 역할, 지역주민 참여 여부, 지자체 및 지역예술단체와의 갈등 여부 등
지속성을 위한 개선사항	• 공간지원 및 예산매칭 지원 등 지자체 협약 여부, 전문기획자 고용형태, 운영인력, 운영체계 및 예산지원 등

2 작은미술관 세부 운영결과

2.1 두드림 작은미술관

- 2015년 선정되어 2차년도 사업 진행중, 패션과 패션산업을 주제로 패션지원센터와 동두천시의 특색을 반영한 전시를 기획함
- 동두천 패션지원센터 1층 로비에 위치하는 부속공간으로서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저조한 편임

〈표 2-6〉 두드림 작은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	
공간위치	부속공간(패션지원센터 1층 로비)	
운영구조	재단주체(기획+운영+예산)	
운영인력	전문기획자 1명, 도슨트 1명	
시설현황	소유형태	지자체 소유
	규모	46평
	세부시설	전시장 1개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전시횟수	5회/ 각 15~20일
	내역	전시 5회, 공연 2회, 교육 10회
관람객 수	2.371명(15년), 626명(16년)	
갈등유형	예산매칭	
개선사항	적정예산	1억 5천
	지원기간	3년 보장







[그림 2-5] 두드림 작은미술관 현황

2.2 우리미술관

- 2015년 선정되어 2차년도 사업 진행 중, 미술관과 교육관, 작업실, 작가레지던시 등 4개 공간을 시설별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 중임
- 지자체에서 운영비와 기획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후에도 운영가능하고 작은미술관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함

〈표 2-7〉 인천 우리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	
공간위치	부속공간(희망키움터), 단독공간	
운영구조	재단주체(기획/운영)+지자체 협력(예산)	
운영인력	전문기획자 1명, 큐레이터 1명, 도슨트 1명, 행정사무인력 1명	
시설현황	소유형태	지자체 소유
	규모	교육관 39평, 전시관 20평
	세부시설	전시장 1개, 교육장 1개, 작업실 1개, 레지던시 1개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예술가/단체
	전시횟수	7회
	내역	전시 7회, 공연 2회, 교육 10회, 주민잔치 2회
관람객 수	934명(15년), 1,999명(16년)	
갈등유형	없음	
개선사항	적정예산	-
	지원기간	2~3년



[그림 2-6] 우리 작은미술관 현황

2.3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 2015년 선정되어 2차년도 사업 진행 중, 미술관 조성 후 주민들 만족도와 자부심 상승하며 주민들이 아끼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담당함
-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전시 교체를 요구하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고 화가들 전시 문의도 다수이며 작은미술관에서 학교 및 기관으로 찾아가는 미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2-8〉 남해바래길 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	
공간위치	단독공간	
운영구조	민간주체(기획+운영+예산)	
운영인력	전문기획자 1명	
시설현황	소유형태	지자체 소유
	규모	22.2평
	세부시설	전시장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방문객
	전시횟수	-
	내역	-
관람객 수	5,196명(15년)	
갈등유형	-	
개선사항	적정예산	-
	지원기간	-







[그림 2-7] 남해바래길 미술관 현황

2.4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 2015년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 후 예산비 매칭이 어려워 사업이 중단됨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은미술관 필요성 인지(인근에 시립미술관 있어도 모름)하고 열정적으로 예산 마련하여 전시 기획 및 운영 중임

〈표 2-9〉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단	
공간위치	부속공간(주민센터 분소 3층)	
운영구조	민간주체(기획+운영)	
운영인력	기획자 1명, 행정사무인력 2명, 도슨트 2명(자원봉사자)	
시설현황	소유형태	지자체 소유
	규모	50평
	세부시설	전시장 1개, 교육장 1개, 회의공간 1개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전시횟수	10회/ 각 15일
	내역	전시 10회, 아카이브 4회
관람객 수	2.971명(15년), 약 500명(16년)	
갈등유형	운영단체/예산매칭	
개선사항	적정예산	4천만원
	지원기간	최소 2년







[그림 2-8]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현황

2.5 장옥미술관

- 2015년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은 우수하게 완료하고 차후년도 사업 예산도 지자체에서 마련된 상황이나 운영주체인 문화재단과 지역예술가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포기함
- 반면 인근에 계룡 문화 예술의전당이(10분거리)위치하고 대전과도 인접,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장소로 요구 하는 등 필요성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음

〈표 2-10〉 장옥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단	
공간위치	단독건물	
운영구조	재단주체(기획+운영), 지자체(예산)	
운영인력	-	
시설현황	소유형태	지자체 소유
	규모	53평
	세부시설	전시장 1개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예술가
	전시횟수	-
	내역	-
관람객 수	1,660(15년)	
갈등유형	지역 예술단체와 갈등	
개선사항	적정예산	-
	지원기간	-



[그림 2-9] 장옥미술관 현황

2.6 소록도 Art Laundry 미술관

- 2015년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완료 후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 예산 매칭을 못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한센인 미술협회(7명)에서 작품전시 하는 등 점차 참여가 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주민 참여에 보다 시간이 필요한 지역임

〈표 2-11〉 소록도 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단	
공간위치	단독건물(국립 소록도 병원 내 옛 세탁실)	
운영구조	민간주체(기획+운영), 병원(예산)	
운영인력	기획자 2명, 큐레이터 2명, 행정인력 1명, 미술관 지킴이 1명(2015년 기준)	
시설현황	소유형태	국가 소유
	규모	60평
	세부시설	전시장 1개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전시횟수	1회(2015년)
	내역	-
관람객 수	5,500명(15년)	
갈등유형	예산매칭/편성	
개선사항	적정예산	-
	지원기간	3년







[그림 2-10] 장옥미술관 현황

2.7 정선 아트터미널

- 2016년 선정된 작은미술관으로 매칭예산을 예술단체의 기부금으로 마련함
  - 2차년도 사업 기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
- 터미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 특색을 주제로 작품 구성하고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 반응이 매우 좋음

〈표 2-12〉 정선 아트터미널 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	
공간위치	부속공간(터미널 지하)	
운영구조	재단주체(기획+운영), 예술단체(예산)기부	
운영인력	전문기획자 1명, 행정인력 1명	
시설현황	소유형태	지자체 소유
	규모	80㎡
	세부시설	전시장 1개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방문객
	전시횟수	2회/ 각 15~20일
	내역	전시 2회
관람객 수	8,571명(16년)	
갈등유형	예산매칭, 지속여부	
개선사항	적정예산	1억 이상
	지원기간	10년



[그림 2-11] 정선 아트터미널 미술관 현황

2.8 중동 작은미술관

- 2016년 선정, 정식개관 전으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주민 참여 유도하는 프로젝트 작품을 전시함(2월 정식개관 예정으로 사진은 공사 전 모습)
- 예술가와 주민이 만나고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여 미술을 접하는 사랑방과 같은 역할 지향함

〈표 2-13〉 중동 작은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	
공간위치	부속공간(문화센터 내 1층)	
운영구조	재단주체(기획+운영+예산), 사회적 기업(주기업이 미술관 관리)	
운영인력	전문기획자 1명, 도슨트 1명, 행정인력 1명	
시설현황	소유형태	지자체 소유
	규모	84㎡
	세부시설	전시장 1개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예술가/단체
	전시횟수	2회/ 각 2주
	내역	전시 2회, 공연 1회, 프로젝트 2회, 책출판 1권
관람객 수	600명(16년)	
갈등유형	예산 집행시 내부규정과 상충	
개선사항	적정예산	1억
	지원기간	2~3년



[그림 2-12] 중동 작은미술관 현황

2.9 솜리골 미술관

- 2016년 선정, 작은미술관 중 가장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미술관이며 전시가 없을 경우는 다양한 문화교육 진행하거나 수다방 역할을 담당함
-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협업과 지역주민 참여 작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단 내에서 방공호가 발견되어 방공호 전시장도 개방하여 운영 중임

〈표 2-14〉 솜리골 작은미술관 현황

구분	내용	
운영여부	운영중	
공간위치	부속공간(패션지원센터 1층 로비)	
운영구조	재단주체(기획+운영+예산)	
운영인력	전문기획자 1명, 도슨트 1명	
시설현황	소유형태	지자체 소유
	규모	46평
	세부시설	전시장 1개
프로그램 (2016 기준)	주요대상	지역주민
	전시횟수	5회/ 각 15~20일
	내역	전시 5회 / 공연 2회 / 교육 10회
관람객 수	2.371명(15년), 626명(16년)	
갈등유형	예산매칭	
개선사항	적정예산	1억 5천
	지원기간	3년 보장



[그림 2-13] 솜리골 작은미술관 현황

2.10 키워드별 종합정리

- 작은미술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위치, 접근성, 공간위치, 공간소유, 운영구조, 운영방향, 운영 중인 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8가지 항목으로 키워드를 구분하여 정리함

〈표 2-15〉 키워드별 종합정리

구분	운영 현황 분류		미술관명
접근성	내/외부인 접근 용이		• 남해바래길 미술관, 소록도 Art Laundry 미술관
	내부인 접근 용이, 외부인 어려움		• 그 외 작은미술관(7개)
위치	생활권에 미술관 등 문화시설 위치		• 장옥미술관,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생활권에 미술관 등 문화시설 전무		• 그 외 작은미술관(7개)
공간위치	단독건물		• 우리미술관, 남해바래길 미술관, 장옥미술관, 소록도 Art Laundry 미술관, 솜리골 미술관
	부속건물		• 두드림 미술관, 직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정선 아트터미널, 중동 작은미술관
공간소유	지자체 및 국가소유		• 모든 미술관
운영구조	재단주체	재단+지자체 협력	• 우리 미술관
		재단	• 두드림 미술관, 장옥 미술관, 정선 아트터미널, 중동 작은 미술관, 솜리골 미술관
	민간주체		• 직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남해바래길 미술관 • 소록도 Art Laundry 미술관
운영방향	예술형 전시 중심		• 남해바래길 미술관, 우리미술관, 정선 아트터미널, 두드림 미술관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심		• 중동 작은 미술관, 솜리골 미술관
프로그램/콘텐츠	전시, 교육		• 남해바래길 미술관, 정선 아트터미널
	전시, 교육, 프로젝트, 교육 등		• 두드림 미술관, 우리 미술관, 중동 작은미술관, 솜리골 미술관
운영여부	운영 중		• 그 외 작은미술관(6개)
	운영중단		•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장옥 미술관, 소록도 Art Laundry 미술관

3 의견조사 결과

3.1 관람객 만족도 결과

- 2016년에 운영 중인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만족도 조사결과 일부를 활용하여 만족도 결과를 도출함
- 2년간의 작은미술관 시범사업을 통해 작은미술관의 초기 조성목적인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 미술에 관심이 생길까에 대한 효과를 입증함

〈표 2-16〉 작은미술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일시	• 미술관별 전시기간
조사방법	• 설문조사
조사대상	• 작은미술관 방문객 중 일부
조사내용	• 작은미술관 방문목적, 정보획득, 미술관 방문빈도,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 의향, 지역발전 여부, 지속운영 필요성, 만족도, 추천여부 등

- 작은미술관 방문객 비율에 있어서 미술관 조성 외 지역에서 오는 40~5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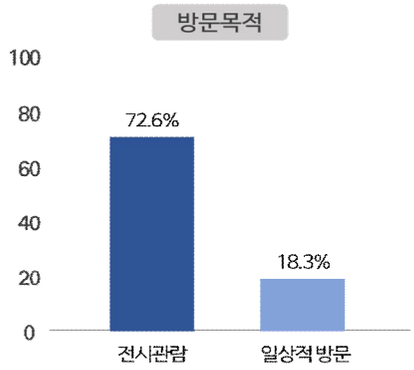
〈표 2-17〉 기본정보 부문 결과

구분	내용
성별	• 방문자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59.8, 남성 39.6%로 여성 방문 비율이 더 높음
연령	• 연령별 비율에서 40~50대가 46.2%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거주지	• 미술관 조성 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60.8%로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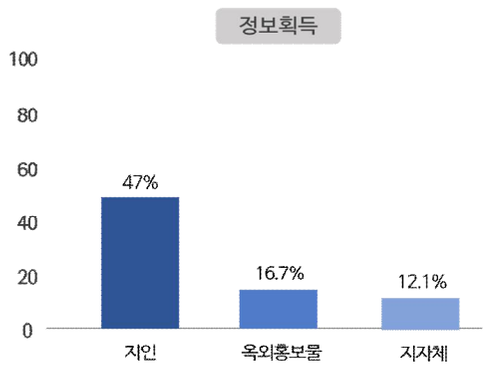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에 방문하는 목적은 전시 및 관람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지인의 추천으로 작은미술관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8〉 방문목적 및 정보획득 부문 결과

구분	내용
방문목적	• 작은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72.6%가 전시 및 관람을 위해, 18.3%가 일상적 방문으로 대부분이 전시 및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정보획득	• 작은미술관에 대한 정보획득에 있어 지인의 추천이 47%, 옥외홍보물이 16.7%, 지자체 홍보가 12.1%로 지인을 통해 작은미술관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2-14] 방문목적 부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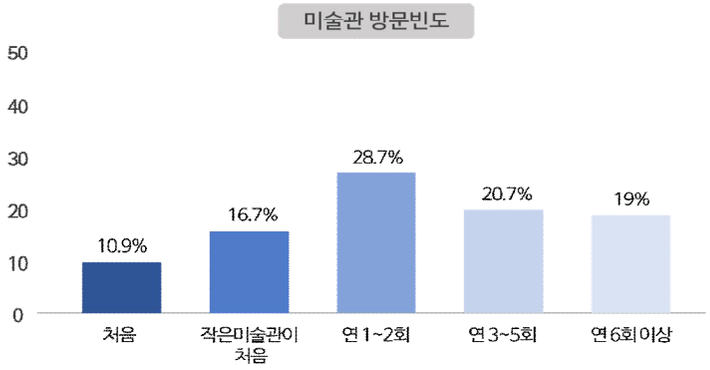


[그림 2-15] 정보획득 부문 결과

- 미술관 방문빈도는 평균 연 1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들이 미술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9〉 미술관 방문빈도 부문 결과

구분	내용
미술관 방문빈도	• 미술관 방문빈도를 살펴보면 미술관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10.9%, 작은미술관 방문이 처음인 사람이 16.7%, 미술관 연 1~2회 방문하는 사람이 28.7%, 연 3~5회 방문하는 사람은 20.7%, 연 6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은 1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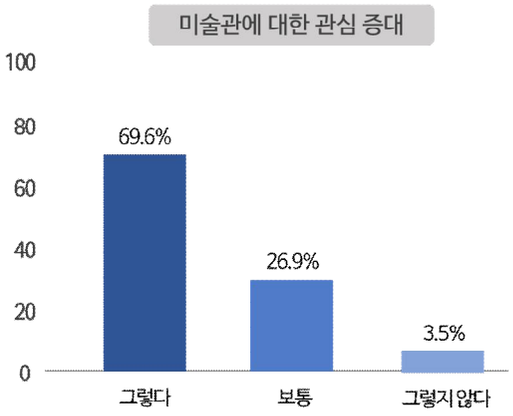


[그림 2-16] 미술관 방문빈도 부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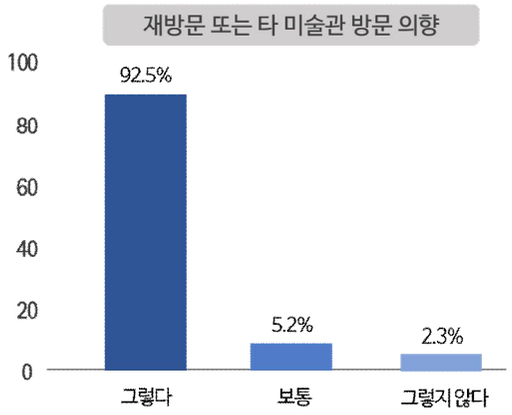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 방문으로 미술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되며, 재방문 또는 다른 지역의 작은미술관 방문 의향에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남

〈표 2-20〉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 의향 부문 결과

구분	내용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 작은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 중 69.6%가 작은미술관 사업을 통해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 했다고 대답함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 의향	• 작은미술관 재방문이나 타미술관 방문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92.5%로 작은미술관 방문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7] 미술관에 대한 관심 증대 부문 결과



[그림 2-18] 재방문 또는 타미술관 방문 의향 부문 결과

- 작은미술관 담당자들도 가까이에서 지역주민들의 변화를 느낀다고 응답하며 지역과 주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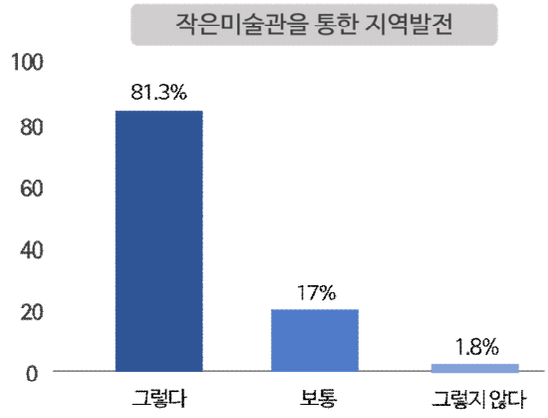
인천우리미술관/남해바래길 미술관 담당자 인터뷰 중 일부 내용

"현장에서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미술관을 편하게 드나들며 작품에 대해 묻고 교육에 참여하고 작품에 참여하고 작품을 요구하는 등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뿌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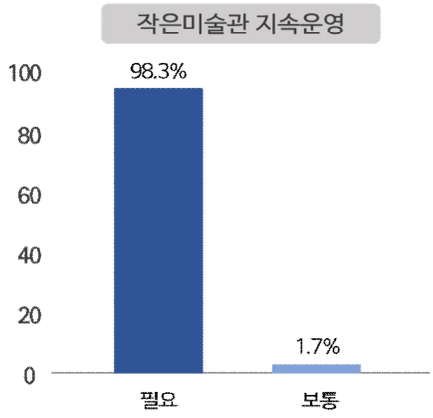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을 지속 운영에 있어 수혜자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미술전시회 관람률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수요가 형성됨

〈표 2-21〉 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속운영 필요성 부문 결과

구분	내용
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 작은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여부에 있어 81.3%가 작은미술관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인식함
작은미술관 지속운영 필요성	• 작은미술관 지속운영에 있어서 대부분(98.3%)이 필요하다고 인지함



[그림 2-19] 작은미술관을 통한 지역발전 부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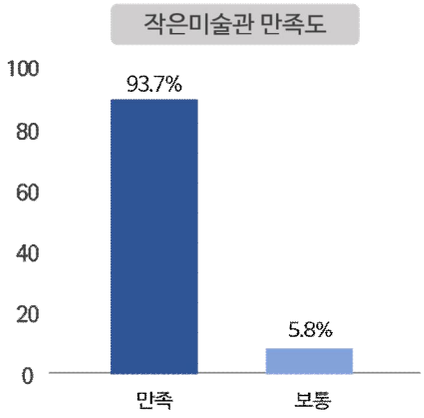


[그림 2-20] 작은미술관 지속운영 부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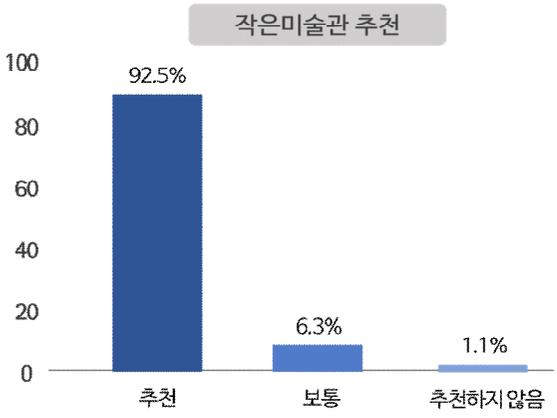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타인에게 추천여부에 있어서도 추천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이 매우 높음

〈표 2-22〉 작은미술관 만족도 및 추천여부 부문 결과

구분	내용
작은미술관 이용 만족도	• 작은미술관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 대부분(93.7%)의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대답함
작은미술관 추천여부	• 작은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 대부분(92.5%)이 타인에게 추천 의향이 있다고 대답함



[그림 2-21] 이용 만족도 부문 결과



[그림 2-22] 작은미술관 추천여부 부문 결과

3.2 관계자 인터뷰 결과

- 전국 9개지역의 작은미술관 운영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운영방향, 지자체와의 협력여부, 운영상문제, 예산문제로 구분하여 정리함
- 운영방향 경우 전시 기획 방향에 따라 크게 예술형 전시, 주민 참여형 전시, 복합형으로 나뉘었는데 예술형 전시를 기획하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 주로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와의 협력여부는 작은미술관 운영 지속성과 가장 큰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인천 우리미술관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공간 확장을 통한 확장된 미술관 개념을 실현하고 있음
- 운영상의 문제로는 사업구조에 따른 운영의 불연속성,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저조한 관심, 예산문제, 인력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예산 매칭 여부는 사업의 연속과 중단을 결정짓는 요소로 예산 부분은 지자체별로 차이점이 나타남

〈표 2-23〉 관계자 인터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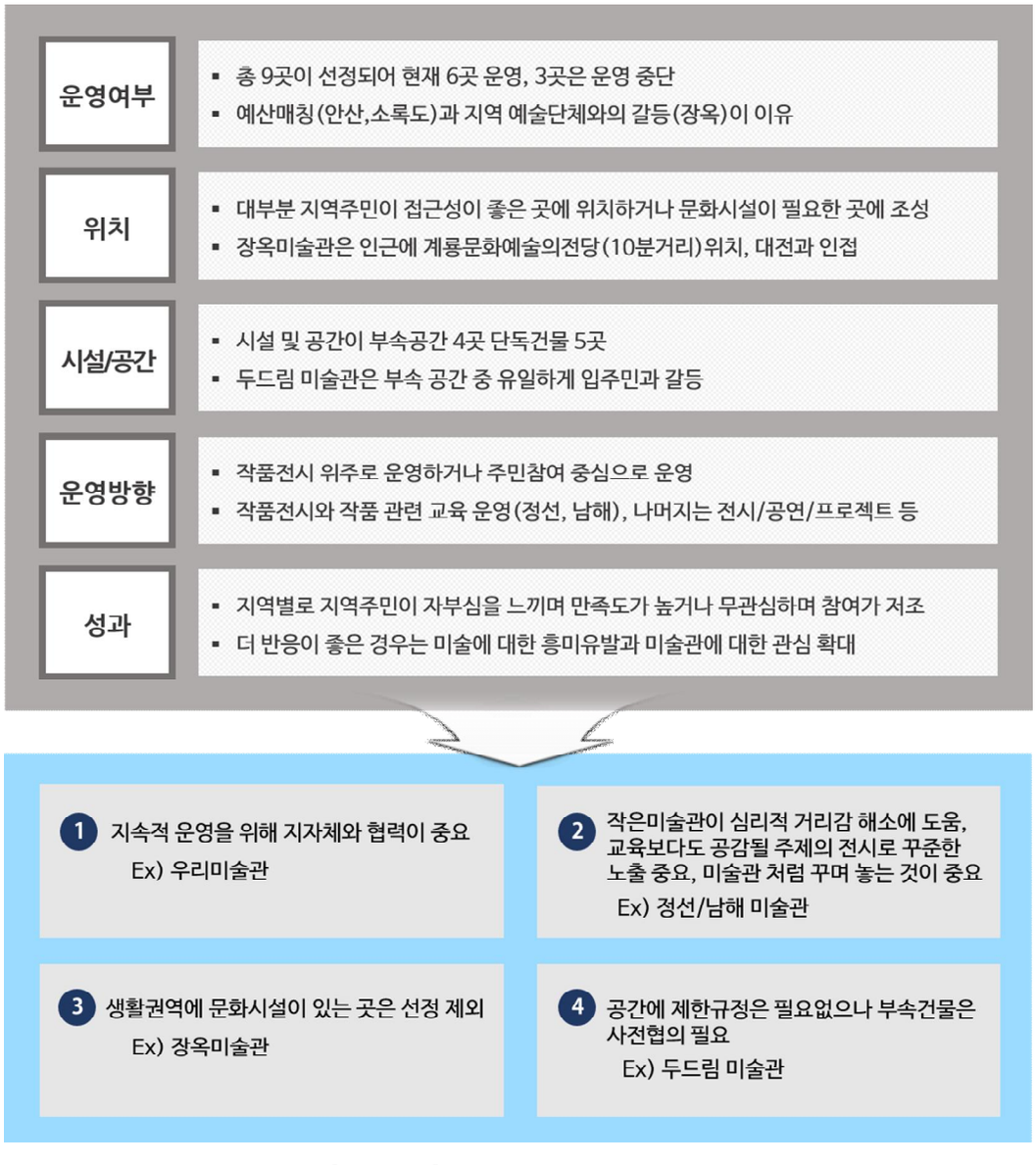
구분	내용		예시
운영방향 (정체성)	예술형 전시	• 지역예술가와 신진작가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각미술 전시에 집중하는 형태 • 작은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미술관이 주는 위화감 및 제재가 없어 편하게 작품 감상과 질의응답이 가능	- 정선 아트터미널 미술관 - 동두천 두드림미술관 - 소록도 작은미술관
	주민 참여형 전시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주민이 공감할 만한 주제의 전시를 기획, 전시와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운영, 작가와 공동작업한 주민 참여 작품 등을 전시 • 전시가 없는 경우는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장으로 활용 • 다만 이러한 형태의 공간은 이미 타 부처 및 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작은미술관 정체성의 모호함과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	- 익산 솜리골 작은미술관
	예술 + 주민참여	• 지역예술가와 신진작가 등의 예술작품을 전시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 협업작품 등을 전시하는 예술형과 주민참여형이 복합적인 형태	- 대전 중동 작은미술관 - 인천 우리미술관 - 안산 작은 미술관
지자체 협력	운영비 지원	• 작은미술관 공간운영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이 '운영예산'인데 이 운영예산을 프로그램 기획 예산과 공간운영관리 예산으로 나누어 보면 특히 공간운영관리 예산이 공간의 지속적 운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인건비, 전기세, 시설관리비 등)	- 대전작은미술관 - 안산 작은미술관 - 우리미술관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운영비 또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미술관의 경우는 작은미술관 사업 종료 후에도 공간 운영이 가능	
	저조한 관심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운영비 또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미술관의 경우는 작은미술관 사업 종료 후에도 공간 운영이 가능ㅍ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운영비 또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미술관의 경우는 작은미술관 사업 종료 후에도 공간 운영이 가능	- 두드림 작은미술관 - 정선아트터미널
운영상 문제	지역주민 저조한 관심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운영비 또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미술관의 경우는 작은미술관 사업 종료 후에도 공간 운영이 가능	- 소록도 작은미술관
	운영의 불연속성 (짧은 사업기간)	• 사업이 약 6개월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간동안 매우 바쁘게 전시가 진행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간은 비어 있게 되는 사업구조 • 실제로 미술관 운영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전문기획자 공모도 어려운 상황	- 계룡 장옥미술관 - 대전 작은미술관 - 소록도 작은미술관
	비현실적 예산책정	• 실제 미술관 운영에 대한 현실적 체감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다수로 신규사업의 경우 공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공간 조성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1년간 미술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는 부족하고, 재지원 사업의 경우도 인건비만을 책정해도 3,000만원이상이 필요하고 기획과 운영까지 생각한다면 미술관 운영자체가 어려운 예산금액	- 공통의견
	불필요한 행정절차	•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계획을 만들 때 마다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제시가 수반되어야 하고 계획에 대한 변경이 매우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많음	- 공통의견
	인력부족	• 기획자 혼자서 프로그램 기획, 미술관 운영, 관람객 응대 및 해설, 미술관 홍보, 행정처리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가 너무 과중	- 공통의견
예산문제	예산매칭의 어려움	• 작은미술관 사업의 재지원일 경우는 운영기관/단체와 국비를 1:1로 매칭해야 하는데 매칭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재지원이 어려운 지역도 일부	- 공통의견
	비탄력적인 에산집행 및 명확하지 않은 예산규정	• 작은미술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까다로움 • 또한 예산 집행할 때 재단 내부 규정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	- 두드림 미술관 - 정선아트터미널 - 안산 작은미술관

03 운영실태 종합정리 및 주요이슈도출

1 운영실태 종합정리

- 총 9곳의 작은미술관의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운영여부, 위치, 시설/공간, 운영방향, 성과 5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함
- 작은미술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될 주제로 전시를 여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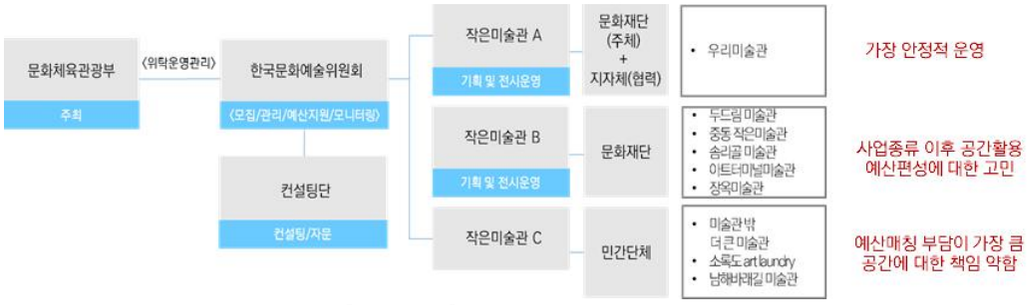


[그림 2-23] 운영실태 종합정리 및 시사점

2 주요이슈도출

2.1 사업운영구조

- 작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위탁하여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음
  - 모집공고, 사업자 선정, 예산지원, 협의 및 관리,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아서 운영 중이고 작은미술관 사업과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단도 구성
- 각각의 작은미술관은 문화재단 또는 민간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체가 되어 외부 기획자와 함께 기획 및 전시를 운영함
- 이때 재단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문화재단+지자체 협력모델과 문화재단만 주체가 되는 모델,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는 모델로 구분됨



[그림 2-24] 작은미술관 사업 운영구조

- 주체별 장단점과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우리미술관이 가장 안정적이게 운영 되고 있음
- 재단만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계획 내에서 운영가능 하지만 사업 종류 이후부터는 공간활용에 대한 고민과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모든 지역이 1차년도 사업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고 예산매칭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공간에 대한 책임이 다소 약하다는 느낌도 보임
- 이에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과 작은미술관 사업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24〉 운영주체별 장단점

구분	문화재단+지자체 협력	문화재단 주체	민간단체 주체
장점	운영 예산 확보 용이 안정적 운영 가능	기획의 독립성 확보 용이	행정처리 단계 감소 다양하고 창의적 기획 가능
단점	기획의 독립성 저하	예산 편성/매칭 문제 공간의 빈공간화(고민)	공간에 대한 책임 저조(방치) 예산매칭 문제

2.2 예산매칭 및 지원금

- 작은미술관 사업은 현재 체육기금인 토토기금으로 지원됨
  - 15년도에 총 8억원, 16년도에 총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은미술관 관련 홍보 활동, 행사준비 등에 각 1억원, 7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함
- 작은미술관 사업에는 리모델링에 평균 3천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전시진행비, 인건비 등으로 소요됨

〈표 2-25〉 예산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절차

구분	2015	2016	비고	추진절차
문화체육관광부	8억원	7억원	토토기금	5~6월 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원	7천만원	작은미술관 사업비	7월 초 모집공고
작은미술관 운영비	7억원	6억3천만원	민간경상보조	8월말 결과발표
두드림 작은미술관	1억 4천	4천+5천 매칭	재지원	10월~12월 예산교부
우리미술관	1억 4천	3.5천+3.5천 매칭	재지원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7천1백	3.5천+3.5천 매칭	재지원	
안산 작은미술관	7천1백	-	지원 안함	
계룡 장옥미술관	1억 4천	-	지원 포기	
소록도 미술관	1억3천8백	-	지원 안함	
중동작은미술관	-	7천 지원+4천 매칭	신규지원	
솜리골 미술관	-	7천 지원+3천 매칭	신규지원	
아트터미널 미술관	-	7천 지원+3천 매칭	신규지원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작은미술관 세부성과내역 내부자료

- 현재 작은미술관 운영비에는 7천~8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비와 다소 차이가 있고 1년간 공간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적절한 운영비는 평균 1억~1억5천만원으로 현재의 약 2배가 필요하다고 응답

〈표 2-26〉 예산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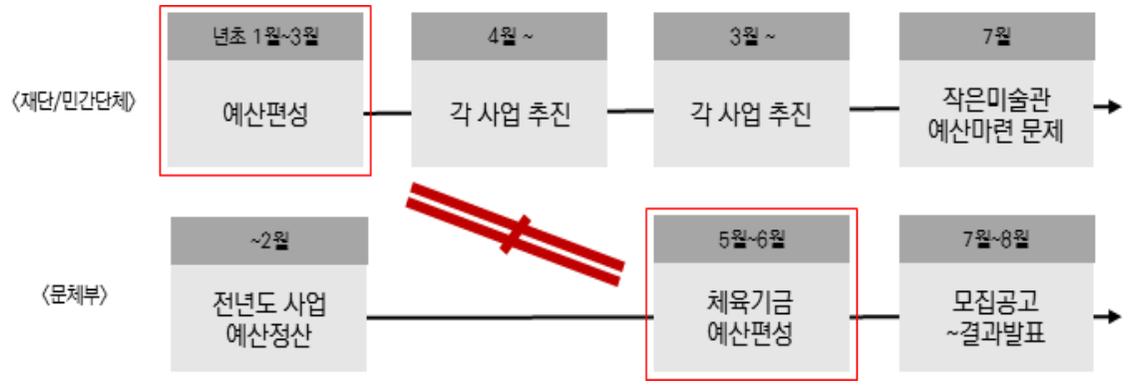
구분	인건비	전시진행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항목내용	교육파트 전시파트 프로젝트 파트 등 3인	전시 진행비 전시 부대비(전시 작가피, 작품설치비, 운송료, 보험료)	교육강사비 체험 재료비

- 또한 예산 집행시 지침과 규정이 유동적이지 않아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많고 예산 정산시 내부 규정과 충돌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별도의 작은미술관만의 별도 예산 규정 및 지침이 필요함

〈표 2-27〉 예산 집행 규정과 문제점

현재 공모안에 제시된 규정	문제점
• 작가 사례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가 아닌 프로그램 소요비용으로 책정함	• 작가 fee 이외에 운송료, 설치비, 보험료 등이 매 전시 마다 필요한데 비용 책정이 어렵고 내부 규정과 충돌
• 회계검사수수료 예산 책정 필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
• 보조사업자 본인과 단체 대표자에게 예산 집행, 상근지원 급여 지출,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운영비 등은 지원 불가	• 작은미술관 공간에 대한 직접 운영비인 전기세, 관리비, 관리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재단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없이는 예산 확보 어려움 • 또한 기본 물품(A4용지, 사무용품 등)에 대한 사용도 불가

- 작은미술관 관련한 문체부의 예산 편성시기와 재단과 지자체 등에서의 예산 편성시기가 상이해 실제 지역에서는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임



[그림 2-25] 작은미술관 추진절차에 따른 예산마련 문제

- 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서 매년 예산 확보해야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지속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속사업시 예산 확보 방안으로 지특사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3 사업기간

- 작은미술관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사업으로는 방향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음
- 최소 3년 간 지원 보장이 필요하고 실제 지역주민의 시각예술을 통한 성과는 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함
- 기획자 역시 3년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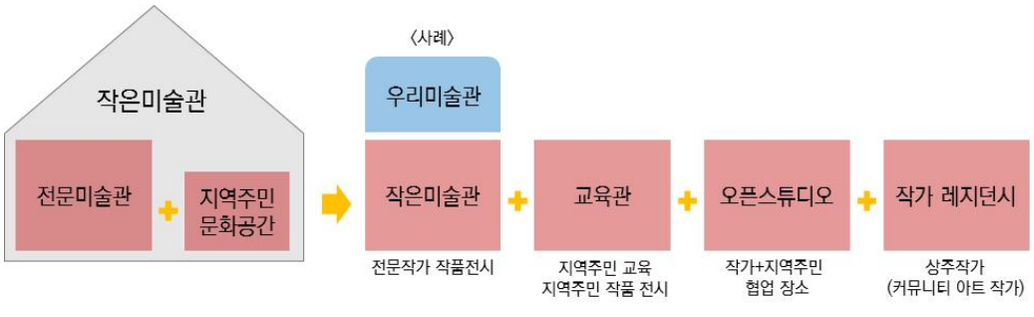
2.4 작은미술관 정체성 및 방향성

- 작은미술관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작은미술관 운영방향성을 살펴보면 크게 전문미술관을 지향하는 경우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지향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표 2-28〉 작은미술관 방향성

작은미술관 운영 방향성	관련 미술관
전문미술관	• 정선 아트터미널 미술관 • 인천 우리미술관 • 동두천 두드림 미술관 • 남해 바래길 작은미술관
지역주민 문화예술활동 공간	• 솜리골 미술관 • 대전 중동 작은미술관(현재 개관 전이나 향후 지역주민 공간 지향)

- 작은미술관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전문미술관의 역할은 반드시 해야 하나 작은미술관의 위치 상 지역주민의 관심없이는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것도 현실임
- 두 가지 기능을 따로 생각하기 보다는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가져가되 전문미술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지역주민과 작가와 협업 및 지역주민 교육과 작품 전시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림 2-26] 작은미술관 방향성

- 한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 빈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별 기능을 부여하여 전문미술관 이외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함

2.5 그 외 추가의견

- 인력문제: 전문기획자가 프로그램 기획부터 진행, 해설, 전시장 관리, 홍보, 행정업무 등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력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함
- 실제로 기획자가 작은미술관이라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인력에 대한 예산 증축을 요구함
- 부속 공간의 경우(두드림 작은미술관): 건물 내부인과의 마찰이 발생, 공간 활용에 대한 반발과 전기세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다수 제기하는 상황임
- 또한 내부인의 견제와 지역주민의 무관심이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어렵게 함
- 사업기간: 작은미술관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년도 사업으로는 자생력을 갖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방향성도 모호해질 수 밖에 없음
- 최소 3년의 시간은 연속사업으로 보장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성과를 기대한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다고 보임
-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 관계자의 이해가 없이는 작은미술관 사업이 지속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며 시각예술이 어렵다고 인식되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매우 필요하므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사업 추진이 이뤄지길 희망함

Ⅲ 국내 미술환경 및 유사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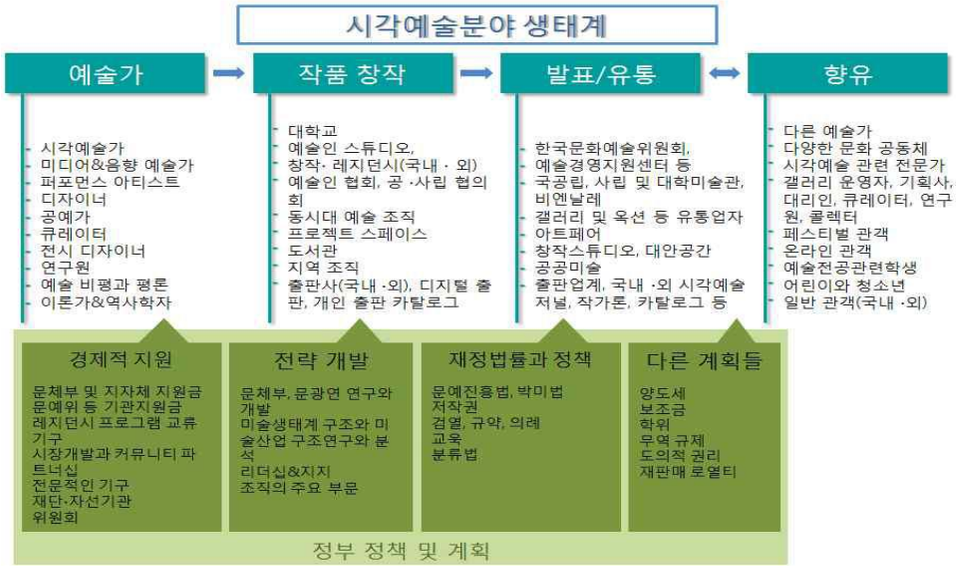
1. 국내 미술환경 검토
2. 유사시설 및 유사정책사업 검토

01 국내 미술환경 검토

1 미술 생태계

1.1 개념 및 구조

- 미술생태계[1](art ecosystem)는 미술의 창작, 매개, 유통, 향유, 미술인프라의 구축 및 유지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유기적 상호연관 및 영향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틀임
- 미술계의 창작, 매개, 향유 기능과 순환구조가 각 영역의 확장과 공유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유통, 소비의 구조가 더 이상 분절되지 않고 상호간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면서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짐
- 이러한 미술생태계 변화에 따른 국내 미술생태계 구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미술시장 중심의 구조도가 대부분임
  - 미술시장에 한정한 미술품 유통 구조의 본질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도[2]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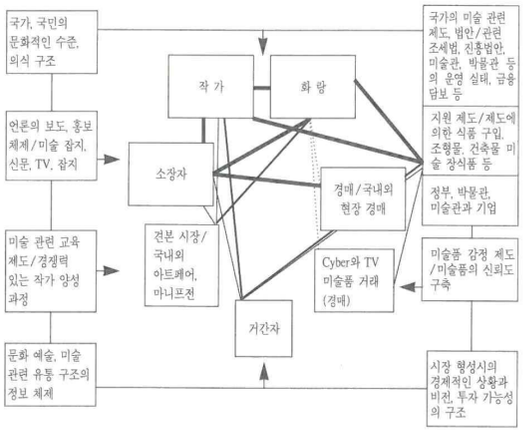


[그림 3-1] 국내 시각예술분야 생태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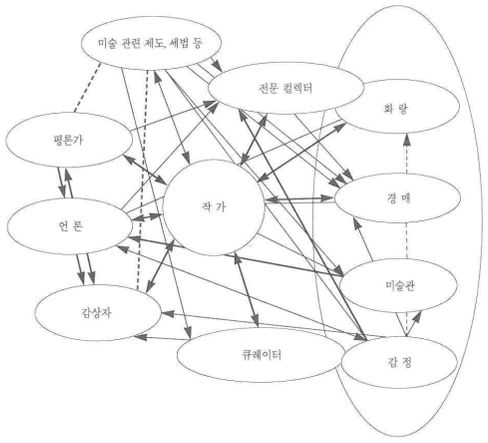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미술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1) 문화체육관광부(2014), 미술 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는 1935년 영국의 A.G 탠슬리가 제창한 용어로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지닌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관점임. 이러한 관점은 자연과 비즈니스 모두에 있어서 "효율과 생존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느슨하게 상호 연계된 참여자들의 관계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됨

2) 최병식(2001), 미술시장과 경영, 동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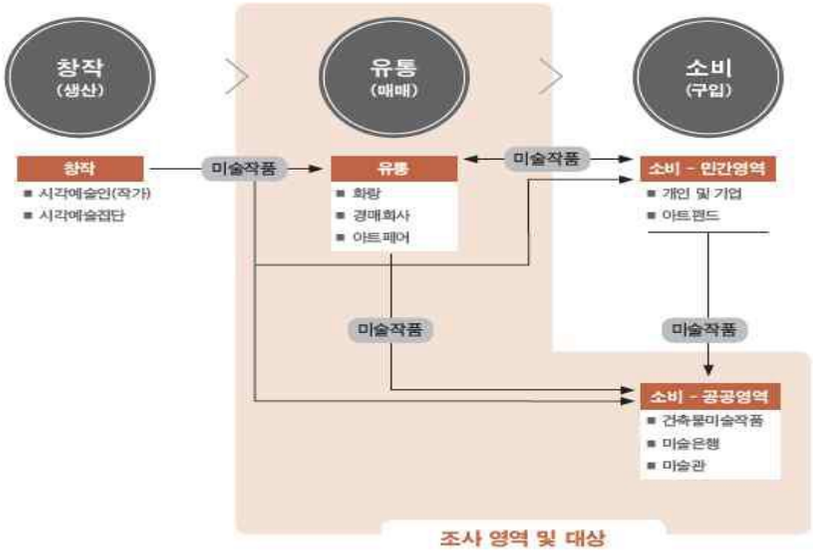


[그림 3-2] 한국미술시장의 구조도



[그림 3-3] 미술시장의 사회적 구조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미술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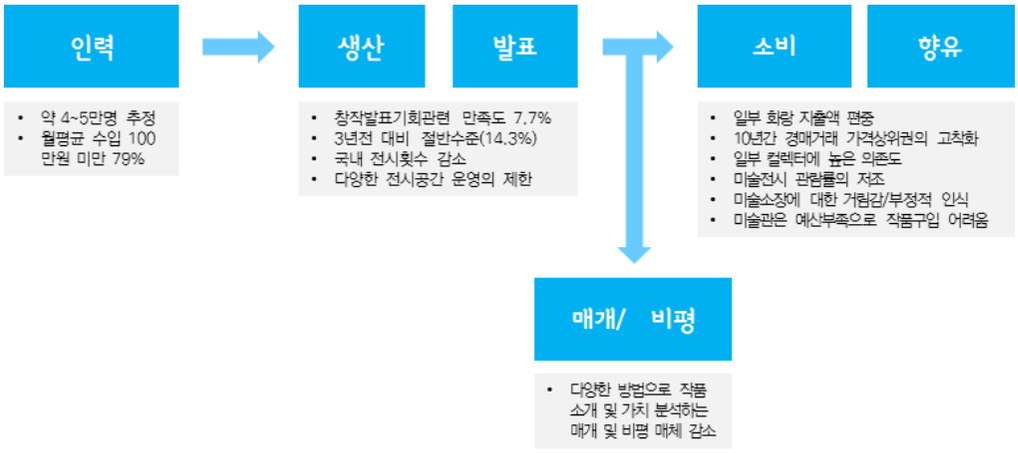
[그림 3-4] 미술시장실태조사 조사 설계에 따른 미술시장구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미술시장실태조사

- 미술계는 미술시장보다 더 큰 범주로 작품 창작과 향유의 과정을 포함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미술생태계의 구조도 정리가 필요함
  - 생산, 매개, 향유 기능의 순환구조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분석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술계를 미술시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 영역에 대해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미술생태계의 개념 정립 필요

1.2 건전한 미술 생태계 구축

- 2000년대 이후 미술시장의 급성장과 침체는 미술계의 구조적인 변동과 많은 문제점들을 심화시키며 미술 시장의 침체로 이어짐
- 이러한 미술시장 침체는 미술창작 여건의 불안정으로 신진작가의 감소, 미술비평 및 미술매개 영역의 쇠퇴 등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미술 생태계 구조의 자생적 순환을 마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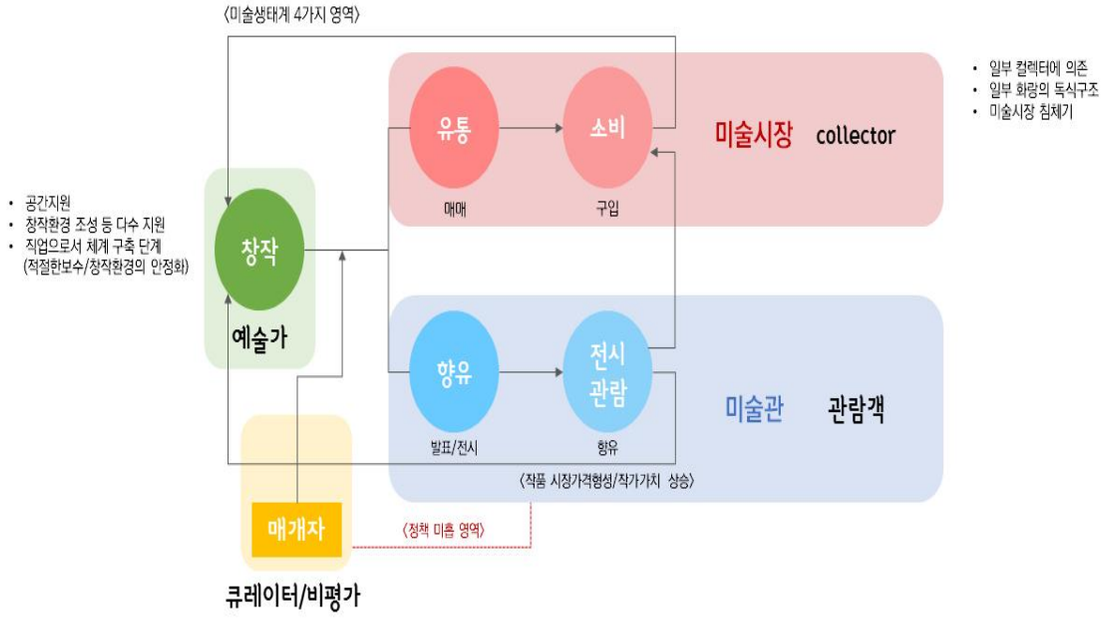
[그림 3-5] 미술생태계 문제점

자료: 김혜인(2015), 미술정책, 미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고민하자 기사 재정리

- 지금의 단편적인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미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함
- 미술을 비경제적인 순수예술 또는 기초예술로 규정하면서 공공재적 가치[3]에 근거한 공적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인과 미술활동을 경제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임
  - 미술인과 미술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구조의 정착, 미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경제활동인구로서의 미술인 자립기반 마련 등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제도 정비가 정부에게 요구되는 우선적 역할
- 실제 예술가를 위한 정책은 미술시장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협의의 미술유통시장이 아닌 경제활동인구로서 미술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건전한 미술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라는 보다 확장된 의미로 접근해야 함

3) 김혜인(2015), 미술정책, 미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고민하자(기사 중 일부), 현대미술은 그 사회적 활동과 역할이 확장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해, 그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로서 많은 기여를 한다고 인식함

- 그 외 생산, 매개, 향유에 대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영역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의와 분석으로 미술 생태계 정립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예술가: 작가육성은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하여 생애주기별 작가지원(중견+이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복지 차원 지원 외에 작가 활동이 지속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이 미흡
  - 창작/생산: 대부분 작품이 완성된 것을 전제한 상태로 작품발표지원(전시지원형태)에 집중하고 전시지원=창작지원이라는 인식, 창작스튜디오 지원 등의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창작을 위한'과정'에 대한 지원은 부재, 창작과정 자체를 진흥하기 위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응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작품발표: 전시공모지원의 형식이 대부분으로 이 또한 산발적이며 전시지원 이후 과정에 대한 고민이 부재, 생산된 예술작품이 판매로 이어져 작가는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미술계 전체 발전으로 연결
- 이에 따라 미술계 흐름 전체 프로세스관점에서 예술 자생력 강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생산에 대한 부분은 창작/전시와 유통/판매를 구분하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술 생태계구조도를 참고하여 전시와 유통/판매를 구분한 4가지 영역으로 미술생태계를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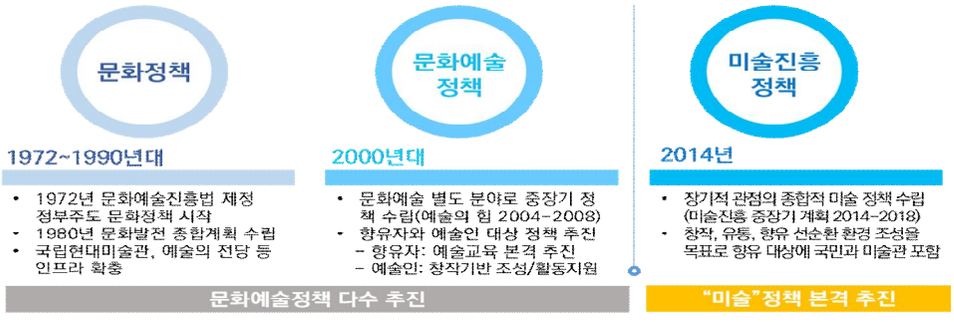


[그림 3-6] 미술생태계 개념 및 구조도 재정리

2 미술정책 변화

2.1 시대별 미술정책 변화

- 2014년도에 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술진흥정책을 수립하면서 미술에 대한 정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미술관 또한 성장기 단계에 위치함
- 2014년을 기점으로 '미술'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전에는 다수의 문화예술정책 안에 미술정책을 포함하여 추진함
- 1972~1990년대의 미술정책은 197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며 정부주도의 문화정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에 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인프라를 확충함
- 2000년대의 미술정책은 문화예술 별도 분야로 중장기 정책을 수립(예술의 힘 2004-2008)하며 향유자와 예술인 대상의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함
  - 향유자: 예술교육 본격 추진/예술인: 창작기반 조성/활동지원
- 2014년 이후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였던 이전과 달리 장기적 관점의 종합적 미술 정책을 수립함(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2014-2018)
- 2014년 미술진흥 중장기 정책은 국민과 미술관을 향유 대상에 포함하여 창작, 유통, 향유 간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미술유통체계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고, 미술문화 향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미술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이벤트 및 수단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창작자 자생력 강화 및 창작 여건 구축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며 국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 및 미술진흥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추진함



[그림 3-7] 시대별 미술관 정책 변화

3 미술전시공간 현황

3.1 문화전시공간 현황

- 2015년 기준 문화시설은 총 8,220개로 이 중 미술전시공간은 844개, 전문성[4]을 갖춘 미술관은 219개로 약 2.7% 차지함

〈표 3-1〉 문화시설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합	문화시설(7,376개)				미술전시공간(844개)					
		공공 도서관	박물관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대안 공간	작은 미술관
개수	8,220	978	826	5,595	25	219	229	228	114	48	6
비율	100	11.9	10	68.1	0.3	2.7	2.8	2.8	1.4	0.6	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 법적근거에 따라 조성된 문화기반시설과 법적근거는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시설 중심으로 재정리(2015년 기준)

-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및 미술관 분포 수는 경기, 서울, 전남, 경북 순으로 나타나며, 미술관의 수만 비교했을 때에는 제주도가 미술전시공간 대비 미술관 비율이 44% 로 타 지역보다 미술관의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3-2〉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분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전시공간	111	37	24	24	26	17	13	2	135	58	41	53	55	71	68	66	43	844
미술관	37	6	4	4	9	5	0	0	49	11	8	9	13	25	11	9	19	219
비율	33.3	16.2	16.7	16.7	34.6	29.4	0	0	36.3	19	19.5	17	23.6	35.2	16.2	13.6	44.2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 기존에 조성된 미술전시공간이 수도권보다는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특히 미술관은 도시편중화가 심한편이며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 미술관 전무한 곳이 다수임
- 특히 미술전시공간의 66%, 미술관의 72%가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위치하나 미술관은 수도권에 약 41%가 분포해 다른 시설에 비해 수도권에 더 편중된 편임
- 지방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미술향유 기회제공과 미술향유 균형 도모를 위한 지방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미술관 조성이 필요함

4) 전문성을 갖춘 미술관이란 미술관의 공간과 기능을 제공하는 미술관으로 일정한 요건과 일정량 이상의 소장품과 시스템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전시하는 공공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작품매매는 이뤄지지 않는 공공적 성격의 공간

〈표 3-3〉 지역별 미술전시공간 분포

구분	미술전시공간		미술관		지역문화기반시설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농어촌지역	265	33.3	61	27.9	200	35.1
도시지역	531	66.7	158	72.1	371	64.9
수도권	270	32	90	41.1	145	25.4
비수도권	574	68	129	58.9	426	7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 미술전시공간(전시공간, 국공립, 사립, 대학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대안공간, 작은미술관)/미술관(국공립, 사립, 대학미술관)/지역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대안공간, 작은미술관)
*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분포에서는 대안공간 제외

3.2 미술관 현황

- 미술관은 총 219개로 운영주체별 미술관 수를 살펴보면 전체 미술관 수 중 사립미술관이 150개소(68.5%)로 가장 많으며, 국립미술관 1개소, 공립미술관 54개소, 대학미술관 14개소로 집계됨

〈표 3-4〉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

운영주체	미술관 수	1관당 평균			
		직원수	학예인력수	소장자료수	연관람인원
국립미술관	1	248	44	7,460	2,086,323
공립미술관	54	13.19	2.57	1,154	117,849
사립미술관	150	6.67	1.53	819	48,475
대학미술관	14	7.00	1.43	455	10,351
총 계	219	8.27	1.78	909	72.4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 지역별 미술관 수는 경기 49개소, 서울 37개소, 전남 25개소 순이며, 이 외 지역은 미술관의 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수도권 지역인 서울(37개소), 경기(49개소), 인천(4개소)에 위치한 미술관 합계는 총 90개소로 전국 미술관 총 219개소 중 약 41%를 차지
- 미술관 수로만 보면 지속적인 미술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등록미술관은 아직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광역지역임에도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음
- 절대적 숫자로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술관이 많이 있지만 1관당 수용인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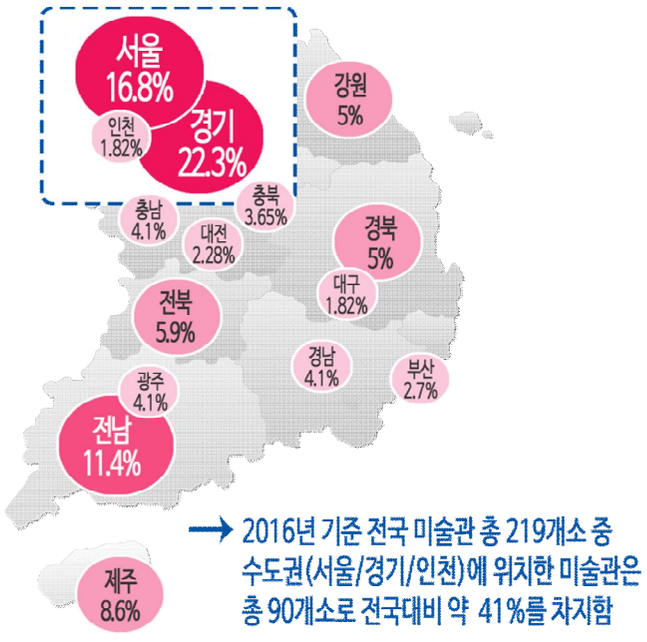
평균관람객을 살펴보면 인구 대비 전시관람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오히려 전남과 제주지역이 1관당 인구수가 약 7만명과 약 3만명으로 미술전시 관람 여건은 수도권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음
  - OECD기준인 1관당 평균 인구 수는 약 4만명으로 이와 유사한 수치

〈표 3-5〉 지역별 미술관 현황

구분	미술관(개)	비율(%)	1관당 수용인구(명)	1관당 평균 관람객(명)
서울	37	16.9	267,684	127,402
부산	6	2.7	574,790	106,226
대구	4	1.8	616,513	178,071
인천	4	1.8	722,613	19,692
광주	9	4.1	166,987	24,424
대전	5	2.3	307,679	60,144
울산	0	0.0	-	-
세종	0	0.0	-	-
경기	49	22.4	254,675	67,398
강원	11	5.0	138,004	34,905
충북	8	3.7	198,668	70,563
충남	9	4.1	234,200	107,768
전북	13	5.9	141,086	20,728
전남	25	11.4	71,962	16,278
경북	11	5.0	243,663	37,427
경남	9	4.1	370,503	43,883
제주	19	8.7	31,875	131,560
전국	219	100.0	233,193	72,4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그림 3-8] 국내 미술관 현황

- OECD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미술관 수는 1,000개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총 219개로 미술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OECD기준 미술관 1관당 평균 인구수는 4만 명인데 반해 2015년 기준 국내 미술관 1관당 인구수는 233,193명으로 약 6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표 3-6〉 OECD 주요 국가의 미술관 수

구분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개수	1,290	2,300	1,300	330 (소도시 미술관 포함시 5,000개)	2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민간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OECD 주요 국가 미술관 수는 2004년 기준, 국내 미술관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시점은 다르지만 이미 더 많은 미술관 보유

-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 타 문화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미술관이 현저히 부족함

〈표 3-7〉 문화시설별 현황

구분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극장	총합
총 개수(개)	219	978	826	292	2,887
구성비(%)	7.6	33.9	28.6	10.1	100
인구 100만명 당 시설수(개)	4.25	18.98	16.03	5.72	50.3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 전국 229개 시군구 지자체 중 미술관 미조성 지역은 총 124개이며, 제주도를 제외하고 미술관 미조성 지역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서울, 경남 순으로 조사됨

〈표 3-8〉 미술관 미조성 지역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수	13	11	4	6	3	2	5	1	1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개수	10	9	7	7	10	14	12	0	1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민간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비율은 48.1%, 51.9%로 비슷하나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지역은 21.1%이고, 농어촌지역은 78.9%로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미술관 불균형 조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 미술관 미조성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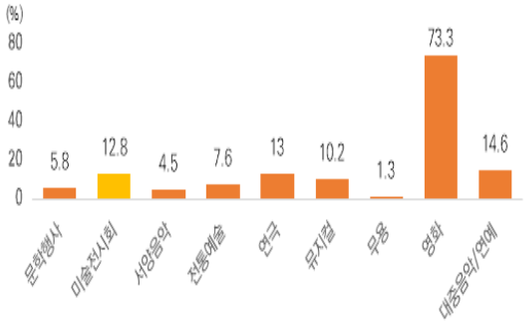
구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총합	
	개	비율(%)	개	비율(%)	개	비율(%)
전국	68	54.8	56	45.2	124	100
광역자치단체	17	24.6	52	75.4	69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고하여 재정리
*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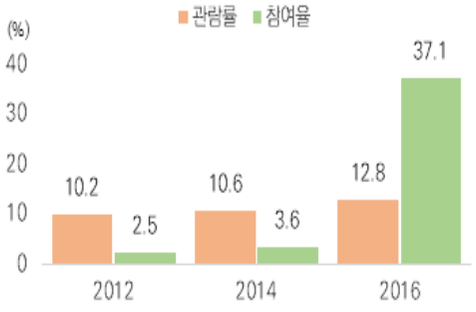
4 미술향유실태

4.1 미술전시 관람률

- 문화향유실태조사 결과 2016년 기준 미술전시 관람률은 12.8%로 영화, 연극, 대중음악 다음 순서로 나타나며, 73.3%를 차지하는 영화에 비해 관람률은 저조한 편임
- 그러나 매년 미술전시 관람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실제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미술 34%) 및 문화예술교육(3.1%)에서 미술전시 참여비율이 1위를 차지함



[그림 3-9] 문화예술 세부분야별 관람률(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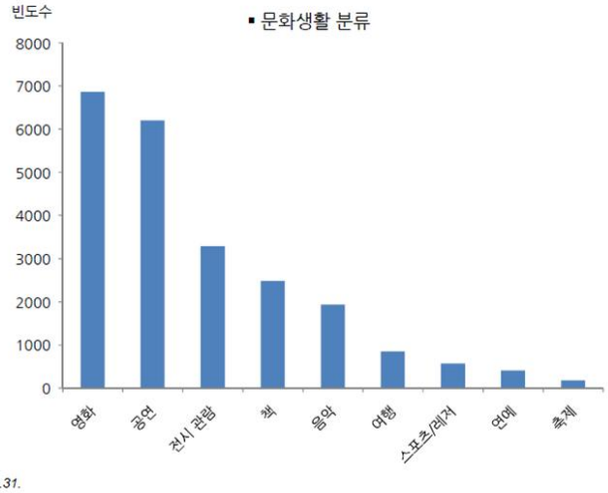


[그림 3-10] 미술전시 관람률과 참여율 변화

- 문화예술 인식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문화생활의 종류에 대해 영화, 공연 다음으로 전시관람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만 음악보다 더 많은 연관어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남(영화 6,393건, 공연 5,326건, 전시관람 2,778건, 책 1,486건)

'문화생활' 연관어(Culturing)

순	연관어	빈도수	분류
1	영화	4,804	영화
2	뮤지컬	2,126	공연
3	연극	1,477	공연
4	음악	1,376	음악
5	책	1,239	책
6	전시	1,083	전시관람
7	콘서트	726	공연
8	미술관	684	전시관람
9	여행	637	여행
10	노래	584	공연
11	그림	527	전시관람
12	극장	527	영화
13	미술	484	전시관람
14	영화관	477	영화
15	공연장	413	공연
16	cgv	345	영화
17	드라마	336	연예
18	스포츠	277	스포츠레저
19	소설	247	책
20	개봉	240	영화



Source: SOCIALmetrics™, Blog, 2010.09.01. ~ 2013.08.31.

[그림 3-12] 문화예술 인식조사 빅데이터 분석결과(2013년)

- 해외작가 전시전의 경우 50만 명을 웃도는 관람객이 미술관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의 연간 관람객 수준의 관람객이 전시 감상한 것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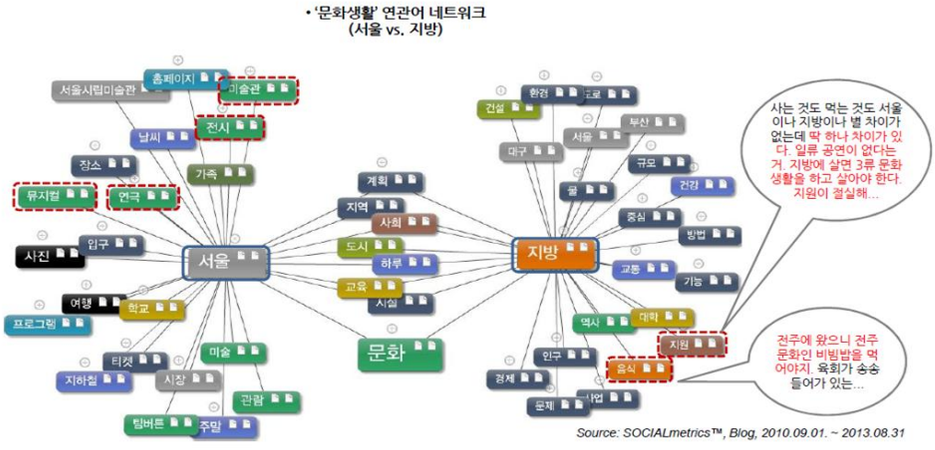
〈표 3-10〉 블록버스터급 전시 관람객

구분	2008년	2013년		2015년 기준
	고흐전	고갱전	근현대회화 100선	미술관 관람객
관람객	82만명	45만명	52만명	• 1관당 평균관람객 72,449명 •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708,60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4~2018)

4.2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미술 향유율

- 2012년 기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미술전시 관람률은 83%, 17%로 서로 약 4배 이상 차이나며 농어촌 지역 향유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5)]
  -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 관람률이 14%(평균관람횟수 0.28회)로 가장 높고 울산 지역은 관람률이 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실제로 문화예술인식조사 빅데이터 분석에서 서울과 지방간 문화접근성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서울문화생활 연관어로는 미술관, 전시, 연극 등 공간이나 콘텐츠가, 지방은 음식, 지원 필요 등으로 인식됨



[그림 3-11] 문화예술 인식조사 빅데이터 분석결과(문화접근성 차이부문)(2013년)

- 지역별 지역문화격차 지수를 통한 결과분석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도시와 농촌 간에는 지역문화자원, 활동, 향유에서부터 지역격차 발생, 시, 군, 구는 정책, 자원, 활동, 향유 등 모든 영역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6)]
  - 지역문화지표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면 자원: 수도권(0.017)/비수도권(0.006), 활동: 수도권(0.047), 비수도권(-0.019), 향유: 수도권(0.091)/비수도권(-0.037)로 지역별 격차 발생
  - 다만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5)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향수 실태조사 참고하여 정리
6)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지표 분석

02 유사시설 및 유사정책사업 검토

1 사례 조사개요

- 작은미술관의 지향점과 운영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유사 정책 및 시설의 운영 사례를 조사함
-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변화로 인해 노후화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유사 시설이 공존하는 가운데 작은미술관이 지닌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작은미술관만의 차별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사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여 작은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유사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함

〈표 3-11〉 사례조사 대상

구분		정책 및 사업	시설운영사례
국내	유사 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여우네도서관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한누리시네마, 올망졸망 지편선시네마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광산생활문화센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유사 공간	소규모 사립미술관	아미미술관, 대산미술관
		대안공간	갤러리팩토리, 대안공간 눈
	기타 부처 사업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	군산 근대유산 예술창작벨트, 대구 문화창작발전소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지원사업	남포미술관, 감자꽃 스튜디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봉화 분천역, 무안 몽탄역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담빛예술창고, 청주 동부창고와 연초제조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
해외	일본	일본 미술관 정책	오하라 미술관, 나오시아 아트하우스 프로젝트
	프랑스	프랑스 미술관 정책	노르망디 Caen(깡) 지역의 미술관, 마르세유 프리쉬 라 벨 드메



[그림 3-13] 유사시설 및 정책사례

2 유사사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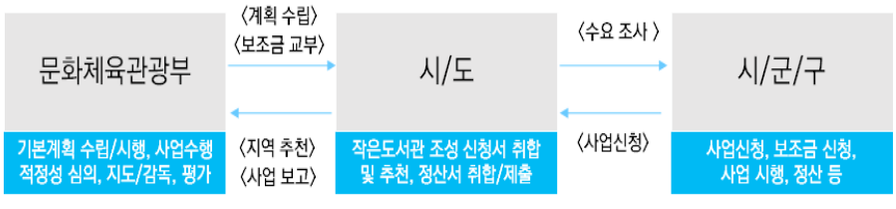
2.1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가. 개요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유휴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1년 단위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자치단체 보조로 이루어지며, 지역별 예산 범위 내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음
  - 단, 재정자립도가 30%미만 지역은 70%를 지원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율 이내에서 차등지원
- 자체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하게 작은 도서관 공간 조성(서고/열람공간/모인공간 등) 리모델링 공사비 및 적정 소요물자 경비. 자료구입비(총 사업비의 30% 이내), 운영인력 확보, 작은도서관 명칭과 CI사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가 광역시/도를 거쳐 신청하며, 지원할 지자체는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 부지와 건물을 확보함
  -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에는 소유주와 협약체결 후 공증 등 근거자료 제시

〈표 3-12〉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사업기간	2004년 계속~
사업대상	도서관 미설치 지역 및 서비스 인구가 과밀한 문화취약지역
사업예산	1,720백만원(지역발전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규모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20개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10개관 • 지역별 배분 예산 범위 내 국고 50% 지원(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70)
지원내용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조성경비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그림 3-14]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체계

나. 현황

전국 6,0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

- 작은도서관의 조성은 1990년 민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다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은도서관 25개관을 개관하였고,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개념정립 및 정책제도화가 이루어짐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과 민간의 자발적 조성 확대에 따라 2007~2013년의 계획목표보다(전국 3,560여개 읍면동마다 1개관 조성) 많은 5,234개관이 2014년에 조성되었으며, 2015년 작은 도서관은 5,595개가 운영 중임
- 2016년부터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20개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10개관을 포함하여 한해에 30개관 내외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

-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장서 1,000권 이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7]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의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전국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출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고 도서구입비의 지출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8]
- 또한, 작은도서관 중 사립 작은도서관의 54.8%가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고 있으 그중 예산지원을 받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중(42.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전국 작은도서관 지출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예산지출액	11,555,930	100.0	10,443,548	100.0	11,453,124	100.0
도서구입비	3,469,034	30.0	2,644,159	25.3	2,660,255	23.23
인건비	7,102,690	64.5	4,478,233	42.9	5,023,448	43.86
운영비	4,521,303	39.1	3,321,156	31.8	3,773,353	32.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7) 「도서관법 시행령」
8)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다. 우수운영사례

인천시 부평구 신공3동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 2003년 건립된 청계구리 어린이도서관은 '동화 읽는 엄마모임'이 부평 대건신협에서 공간의 무상임대를 받아 조성된 도서관으로 관장, 사무국장, 사무국원 등 유급인력 3명과 자원봉사자 1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은 매년 기획단 회의를 거쳐 도서관 철학에 맞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13년 인천시 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된 청개구리 작은도서관은 부평대건신협의 지원과 회원 후원에 의해 운영되며, 부평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인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구와 매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음



[그림 3-15] 청개구리 어린이 도서관

자료: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카페(http://cafe.daum.net/treefrog5212040/FvvW/2)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여우네도서관

- 여우네도서관은 2008년 마을 이장과 부녀회, 청년회 등의 제안으로 농촌마을 체험장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제공받았고 서천군의 지원을 받아 건립됨
- 여우네도서관은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에서 선출된 6인의 운영위원과 대표관장이 중심이 되어 총무, 후원회장,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되고 있음
- 여우네도서관은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 동아리', '여우네 풍물단' 등 지역커뮤니티 활동도 겸하고 있음



[그림 3-16] 여우네 도서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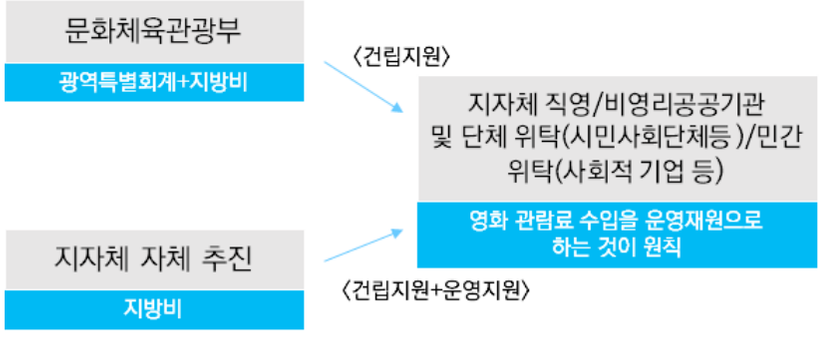
2.2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가. 개요

-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은 영화관람에 대한 국민선호도가 높으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낮아 대형영화 건립이 어렵고 이에 따른 영화관람 횟수에 대한 지역 편차도 심각해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됨
-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을 건립하고자 건물 리모델링 등 상영관 구축 비용 및 영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영화관의 운영은 해당 위탁 사업자가 영화 관람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료, 전기료 등을 지원받거나 기업 및 시민들에 의한 기부금 및 후원 등을 모집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표 3-14〉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표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상설 상영관 건립
사업기간	2014년~(단년도 계속사업)
사업대상	극장부재 102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사업예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 추진하므로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예산확보 (2015년 기준 3,800백만원)
사업규모	1개소 당 5억 원(광특회계) 및 지방비 매칭 50% 이상
지원내용	건물리모델링 등 상영관 구축 비용 및 영사기 등 기자재 구입 비용 작은영화관 건립 및 운영 컨설팅 지원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비영리 공공기관 및 단체 위탁, 민간위탁



[그림 3-17]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지원체계

나. 현황

-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진되다가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고 현재 33개소가 조성됨
  -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0년 설립된 장수군 한누리시네마가 최초의 조성 사례
- 작은영화관 조성은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전국 25개소의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1백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제외
-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500㎡의 전체 면적에 매점 및 매표시설, 화장실, 총 100석 내외의 2개 관 이상을 조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표 3-15〉 전국 작은영화관 현황

구 분		명칭	개관	비고
인천	강화	작은영화관	2014.12	
	울진	알프스시네마	2015.07	
울산	영동	레이보우영화관	2016.09	
충북	서천	작은영화관	2014.05	
	홍천	홍천시네마	2014.04	지자체 자체 추진
충남	화천	산천어 시네마	2014.12	
강원	영월	영월시네마	2015.08	
	평창	평창시네마	2014.08	
	삼척	가람영화관	2016.07	
	철원	작은영화관 뚜루	2016.09	
	장수	한누리시네마	2010.10	
전북	김제	지평선시네마	2013.09	지자체 자체 추진
	임실	임실한마당 작은별영화관	2013.09	
	고창	동리시네마	2014.04	
	무주	산골영화관	2014.05	
	부안	부안마실영화관	2014.08	
	완주	휴(休) 시네마	2014.05	
	순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2014.12	
	진안	마이골영화관	2014.12	
전남	장흥	정남진시네마	2015.10	
	고흥	작은영화관	2016.02	
경북	고령	대가야 시네마	2015.11	
	영양	작은영화관	2016.03	
경남	남해	보물섬 시네마	2016.02	
	합천	수려한 합천시네마	2016.07	
합계	25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다. 우수운영사례

전북 장수 한누리 시네마

- 전북 장수군 한누리전당 내에 위치한 한누리 시네마는 2010년 장수군이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함
- 한누리 시네마는 입체영상(3D) 영사시설과 50석 내외의 2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총 3만 9천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함
- 장수군의 전체 인구가 2만 3천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민 1인당 연간 평균 1.6회의 높은 영화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 장수군의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장소임



[그림 3-18] 장수 한누리 시네마

자료: 장수 한누리 시네마 홈페이지(https://hannuri.scinema.org/)

전북 김제 올망졸망 지평선시네마

- 2013년 8월에 개관한 김제 지평선시네마는 시민훈화체육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영화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첫 번째 작은영화관임
- 지평선시네마는 총 99석 규모의 2개 상영관을 마련하고 있으며, 김제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 3-19] 전북 김제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

자료: 전라북도 모여락 홈페이지(http://www.myjb.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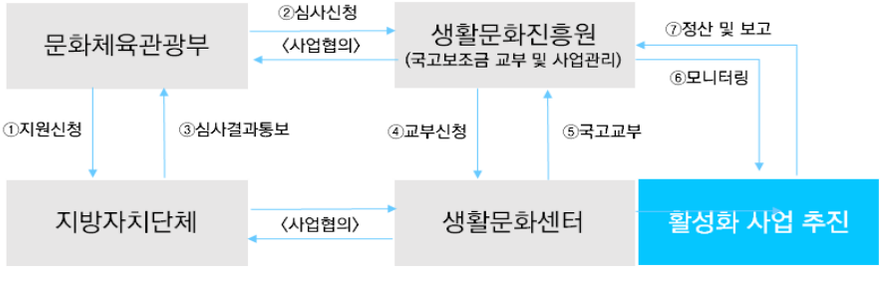
2.3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가. 개요

-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신청은 지자체가 광역시도를 거쳐 이루어지며,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의 부지 및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주체와 인력 및 운영비를 확보해야 함
- 지원은 시설조성과 활성화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며 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생활문화진흥원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16〉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비전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가 있는 삶 추구
사업개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각 지역 여건에 따른 사전 준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활문화센터의 조기 운영 활성화를 도모
사업기간	2014~현재(총 24개 센터/2015년 기준)
사업내용	생활문화센터 조성 여건에 맞춰 다음 4개 분야별 자율 기획 사업 지원 - 조성 및 운영 기획/이용수요 확대/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주민 홍보
사업예산	총 500백만 원(지특회계)
지원대상	신규지원센터(기본지원): 거점센터 20백만 원/준거점형 15백만 원/생활권형 10백만 원 지원 1차 기지원 센터 및 신규 센터 추가 증액 요청(추가지원) 10백만 원 지원
지원내용	시설조성: 70%, 건물가액도 지방비로 인정하나 총 조성비용의 40%까지만 인정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컨설팅 지원/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아카이빙



[그림 3-20]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전략컨설팅 방안 연구 재구성

나. 현황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은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

- 생활문화센터는 크게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와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125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구성은 주민자율공간(동호회 연습 등). 주민공동체 공간, 다목적홀(공연/전시, 교육/강의), 공용시설을 기본으로 조성하고 공방/북카페 등은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3-17〉 생활문화센터 유형별 특징 및 조성현황

구 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위치	시/군/구 단위로 조정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으로 조정
기능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멀티 플랫폼 역할 ※ ① 동호회 활동, 주민교류 등 생활문화전문시설 ② 생활문화 관련 컨설팅/정보제공/교육 ③ 생활문화시설 간 협력	기초생활문화 접점 활동 공간
시설	기본시설 및 공연/전시시설+지역지원 가능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응
조성현황	• 2014년: 21개 • 2015년: 15개 • 2016년: 16개	• 2014년: 13개 • 2015년: 19개 • 2016년: 21개

미술 전시 관련 프로그램은 주민동호회 작품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이 다수

- 2014년 기준으로 개관했거나 조성예정인 생활문화센터 35개 공간의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5개(44.1%) 기관이 전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9)]
- 주민 동호회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작가와 연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미술을 포함한 예술 관련 강좌프로그램이나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전시회나 동호인 발표회 등의 형태로 개최될 것으로 보임

〈표 3-18〉 생활문화센터 문화관련 프로그램 현황

구분	문화강좌	공연예술	전시포함	합계
개수	8	11	15	34
비율(%)	23.5	32.4	44.1	100.0

9)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전략컨설팅 방안 연구 참조

다. 우수운영사례

광주광역시 광산생활문화센터

- 2016년 3월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30여년 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거점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광산문화원이 위탁 운영함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주체는 센터운영위원회와 광산동호인연합회와 사무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센터운영위원회에 의해 광산문화센터 운영규약이 제정되었으며 광산동호인연합회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이나 행사 예산을 공유하는 역할 담당
- 생활문화진흥원으로부터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동호인들에 의한 '공연', '전시', '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역문화축제로 확산됨



광산문화센터 건물 | 광산생활문화제-체험/전시 | 동호회결과 발표

[그림 3-21] 광산생활문화센터

자료: 생활문화진흥원(2017), 2017 생활문화센터 성과공유회자료집

충남 금산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 금산 문화의 집 내부에 위치한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는 2015년 1일 주민운영협의회가 결성되어 당해 9월에 개관함
-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생활문화공동체인 '어깨동무', 생활문화기획자그룹인 '금산문화리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육성함
-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결연이 맺어진 마을과 공동으로 경연잔치 결연 콘서트를 진행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 동호회 네트워크 체험/전시 | 무대그림 퍼포먼스

[그림 3-22]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자료: 생활문화진흥원(2017), 2017 생활문화센터 성과공유회자료집

2.4 유사사업 종합비교 검토

- 유사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와의 매칭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유사사업의 경우 지원을 지자체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은 지자체와 위탁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시민이나 기업들에 의한 후원이나 기부금 모금 등은 허가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시설의 경우 생활문화진흥원을 통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특히, 생활문화센터는 미술관련 전시와 작가 연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술관련 공간의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

〈표 3-19〉 작은미술관 유사사업 종합 비교 검토

구분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목적	지식접근성 보장	영상문화확산	생활문화확산 거점공간	시각예술 진흥공간
사업성격	시설조성	시설조성	시설조성+활성화 (역량강화)	시설조성+운영비
운영주체	지자체	지자체직영, 비영리 공공기관/단체, 민간위탁	지자체직영, 민간위탁 주민운영위원회(권장)	문화재단, 민간위탁
예산	지특회계 (2015년까지 일반)	지특회계	지특회계	토토기금
예산매칭 비율	• 50%매칭 -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역은 70%까지 지원	• 50% 매칭 - 시설건립비 5억 원 지원,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 시설조성: 70%, 건물가액도 지방비로 인정하나 총 조성비용의 40%까지만 인정 • 활성화지원: 유형별상이	• 유휴시설 또는 공간 • 기존 지원받는 공간 및 문화시설은 제외
지원조건	•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 부지와 건물 확보 -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 소유주와 협약체결 후 공증 등 근거자료 제시 (10년 보장조건) • 운영인력, 운영비 확보 • 작은도서관 명칭과 CI사용	• 영화관람료 수입을 운 영재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 • 지자체에서 위탁사업자에게 임대료, 전기료 등 지원 가능, 기업 및 시민들의 기부금과 후원 등을 허용	•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 부지 및 공간 확보 - 지자체소유가 원칙이나 공공시설 장기사용(10% 이상)시 신청가능 • 운영주체, 인력 및 운영비 확보 • 야간운영 및 주말운영 가능 •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BI 사용	• 유휴시설 또는 공간 • 기존 지원받는 공간 및 문화시설은 제외
지원신청	지자체가 광역시도 거쳐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가 광역시도 거쳐 신청	문화재단 및 단체가 신청
평가 및 관리	추진현황보고, 결과보고	사업실적 및 운영실적 제출	모니터링, 정산 및 보고	-

3 유사시설 검토

3.1 소규모 사립 미술관

가. 시설 개요

- 등록 사립 미술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미술관으로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임
- 사립 미술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함

〈표 3-20〉 예산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절차

구분	내용	사례
주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당진 아미미술관
목적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비영리 공공기관	
관리시설 (제2종 미술관)	•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 화재·도난방재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완비 • 82㎡이상의 전시실과 수장고	
콘텐츠/ 프로그램	• 시설면적 10% 범위 내의 매점 · 아트숍 · 카페 등의 편의시설 운용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산미술관
운영 및 조직	• 운영인력: 1인 이상의 학예사 보유 • 관련 조직: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주요 지원 사업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미술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등	

나. 우수 운영사례

충남 당진 아미미술관

- 충남 당진에 위치한 아미미술관은 박기호 화백이 1995년부터 폐교를 활용하여 신인작가에게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설립된 미술관으로 2010년에 개관함
- 특히, 2016년 당진시립도서관과의 협력 하에 미술관 관람지원과 화가와의 만남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음

경남 창원 대산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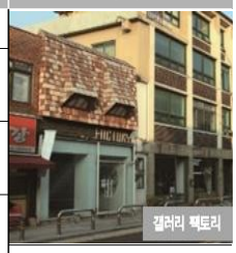
- 대산미술관은 명화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지역 학부모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미술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3.2 대안공간

가. 시설 개요

- 미술관 및 화랑의 권위주의와 상업주의에서 탈피하고, 미술가의 제작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비영리전시공간으로 창구나 방치된 빌딩, 해체 직전의 학교 등을 주로 활용한 미술공간임
- 신진작가들의 작품 전시 및 실험적 전시를 통해 다양한 시각예술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미술의 공공적 역호라 조성에 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표 3-21〉 예산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절차

구분	내용	사례
주체	• 작가 등 창작자 중심의 개인	
목적	• 신진작가들의 작품 전시 및 실험적 전시를 통한 다양한 시각예술전시 기회제공	
관리시설	• 50~100㎡의 전시장과 아카이브 응접실 등으로 구성 • 최근에는 작가 레지던스 공간 확보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 환경 제공	
콘텐츠/ 프로그램	• 상업성을 추구하지 않고 실험적인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 •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 공간 제공 • 국제교류전시를 통한 다른 문화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조직	• 미술가 공동 , 기업, 미술인 회원들의 순수 기부 운영 등 운영주체가 다양	
주요 지원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나. 우수 운영 사례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갤러리 팩토리

- 갤러리 팩토리는 2층 규모의 건축물로 1층/2층 일부 공간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층에는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음
- 연간 5~8회 시각예술의 자체 기획 전시와 〈부엉학교〉라는 교육프로램을 운영함

대안공간 눈

- 주거공간을 개조한 '대안공간 눈'은 수원마을커뮤니티센터, 행궁동프로젝트 등 지역과 연계한 공공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관공서 로비 등에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4 기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 사례

4.1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

가.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 개요

- 사회환경과 도시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외되어 방치되고 있는 산업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예술관광 진흥의 관점에서의 활용을 검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함
- 2008년 국토연구원의 근대산업유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자체 추천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5개소를 선정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함

〈표 3-22〉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시기	2009~2012년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표	• 소외되어가는 지역근대산업유산의 가치 보존 •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방향 및 원칙	• 근대산업유산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한 리모델링 •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산업유산 활용모델 확립
조성 개수	전국 5개소 산업유산시설

나.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대상 내 미술 전시 프로그램 현황

- 사업의 대상은 공연·문화강좌·창작·전시 등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였고, 시범사업 대상 5개 공간이 모두 미술 관련 전시프로그램이나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3-23〉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대상현황

지역	사업대상	특화영역	주요사업내용
전북 구산	내항 근대유산	근대사, 공연	내항부두 및 일제
전남 신안	염전, 소금창고	소금, 체험	미술관, 공연장 및 소금문화체험공간 조성
경기 포천	폐채석장	돌, 조각	창작스튜디오 조성, 조각 분야 특성화프로그램
대구	구 KT&G 연초장	예술창작	대구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예술창작프로그램
충남 아산	구 장항선	공연, 전시	도고온천역 등 구 역사의 문화공간화

자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3),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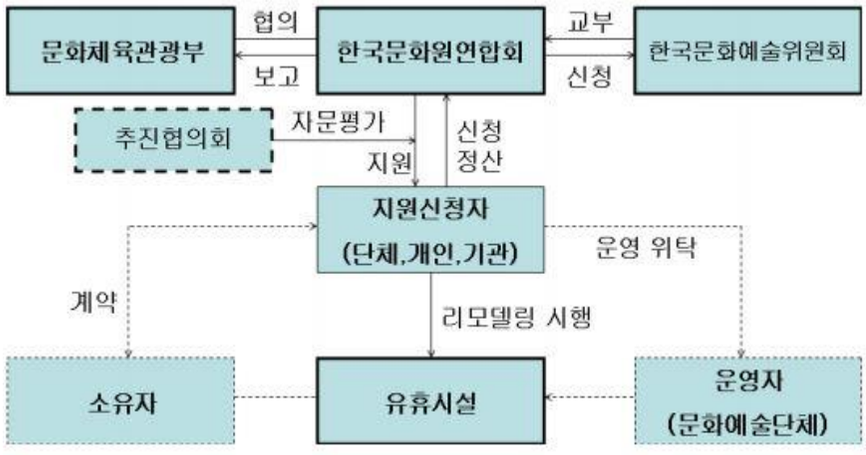
4.2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지원사업

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지원사업 개요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에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음
- 동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실행단체인 한국문화원 연합회에 예산을 교부하고,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사업을 총괄함
- 지원은 기존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경비(90%이내)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10% 이내)로 이루어졌으며 약 4년 동안 총 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

〈표 3-2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시기	2004~2007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표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에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공간 조성
사업방향 및 원칙	• 지역균등 지원의 원칙에 따라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문화소외지역에 고르게 배분 • 저소득 인구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우선 배려
소요예산	91억 원
조성 개수	전국 74개의 마을문화공간



[그림 3-23]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9),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내 미술 전시 프로그램 현황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은 크게 교육·복지형/전시형/공연형/창작·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10)]
- 이중 미술 전시와 관련된 공간은 전시형으로 전체 74개 공간 중 8개 공간(10.8%)으로 분류되고 있음

〈표 3-25〉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현황

구분	교육복지형	전시형	공연형	체험창작형	합계
개수	29	8	5	32	74
비율(%)	39.2	10.8	6.8	43.2	100.0

다. 우수 운영 사례

전남 고흥 남포미술관

- 남포미술관은 4개의 전시장을 비롯하여 공연장, 창작교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폐교된 학교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설립함
- 현 미술관 관장인 곽형수 관장은 2004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폐교를 활용한 전통문화체험 및 미술전시공간을 조성하였고, 2005년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현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강원 평창군 감자꽃 스튜디오

- 2004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감자스튜디오는 폐교 학교 건물의 원형은 존치하면서 전면에 아트리움을 중축하고, 교실 내부를 개조하여 활용 중임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강사들이 관련 단체와 기관과의 협업 하에 각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의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작업과 전통예술 아카이빙, 전시 등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음

10) 문화체육관광부(2009),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는 생활문화공간을 공연장형/도서관형/박물관미술관형/창작공간형/체험공간형/문화센터형/장애인복지형으로 구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교육·복지형(문화센터형, 도서관형, 장애인복지형), 전시형(박물관미술관형), 공연형, 창작·체험형(창작공간형, 체험공간형)으로 재분류 하였음

4.3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는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및 소통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누려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의 방향은 소규모 간이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와 디자인을 결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 간이역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을 디자인 리모델링 비용과 주민참여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비용, 전문 컨설팅 비용을 1개소 당 1억 원 내외로 지원함

〈표 3-26〉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시기	2011~2014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표	•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재활용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및 소통공간의 활성화
사업방향 및 원칙	•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반영 •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소규모 간이역 등 문화와 디자인 결합
소요예산	40억 원(2011년 4억, 2012년 15억, 2013년. 15억, 2014년 6억 원)
조성 개수	전국 19개 간이역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

나. 문화디자인 공간 내 미술전시공간 현황

- 2011~2014년까지 조성된 문화디자인 공간을 분석한 결과, 총 6개 공간(21.1%)이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시 공간은 작가 연계나 작품 해설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 전시 보다는 단순 작품 전시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획전시보다는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주민의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음

〈표 3-27〉 문화디자인 공간 현황

구분	교육공간형	전시공간형	공연공간형	테마공간형	합계
개수	7	6	4	2	19
비율(%)	36.8	31.6	21.1	1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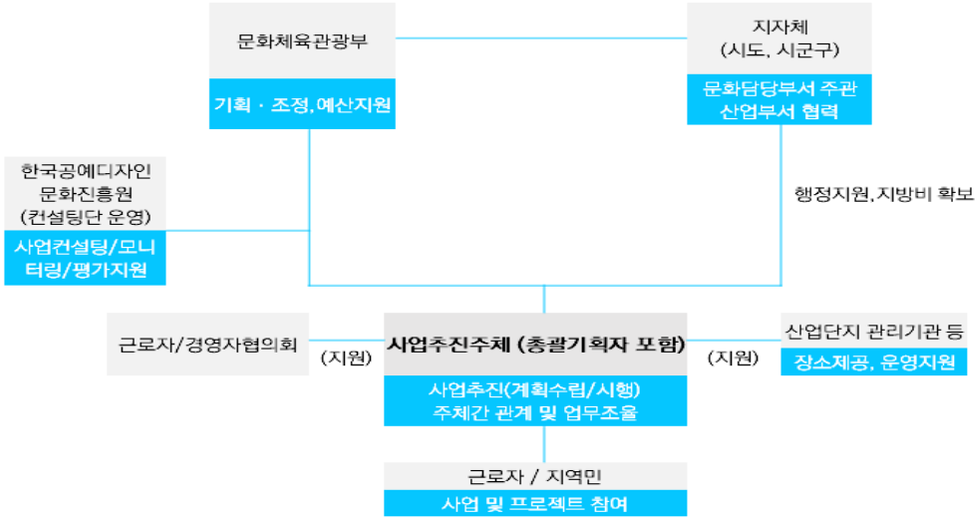
4.4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가.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개요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에 문화적 공간 환경개선을 통해 공간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여 문화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1차 산업시설 중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1970~1980년대 시설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은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융복합 활성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등
- 한국공예디자인화진흥원은 선정대상에 대해 사업컨설팅/모니터링 등을 수행함

〈표 3-28〉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시기	2014년 ~ 계속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표	• 노후/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예술인, 주민, 근로자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
사업방향 및 원칙	• 창작공방/갤러리/공연장 등 공간의 조성은 지역 및 소유자의 특성 고려 • 건축가/예술가/디자이너/지역문화재단 등의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기획과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지향
소요 예산	2014년: 125억 원/2015년: 118.7억 원/2016년: 109.7억 원
조성 개수	21개 공간 조성(중)



[그림 3-24]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체계

나. 산업시설·폐산업시설 문화재생시설 내 미술 전시 공간 및 프로그램 현황

- 조사된 21개의 공간 중 미술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공간은 11개(52.4%)임
-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지역 작가나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고 있고 전시는 회화 작품보다는 공공디자인이나 조형물 전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3-29〉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간 및 프로그램 현황

구분	커뮤니티	공연	전시	창작·창업	계
개수	4	4	11	2	21
비율(%)	19.0	19.0	52.4	9.5	100.0

다. 우수 운영 사례

전남 담양 담빛예술창고

- 담빛예술창고는 농가가 줄어들어 사용되지 않던 양곡 창고를 카페, 전시회장으로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지원에 힘입어 2015년 개관함
- 다양한 전시회와 음악회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현대미술 작품을 주로 전시함
- 담양군을 담빛예술창고를 거점으로 전 세계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이는 국제예술촌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동부창고

-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2014년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청주 연초제조장을 시민들을 위한 갤러리, 목공실, 교육실, 카페, 다목적 강당 등으로 조성함
- 특히 동부창고 34동은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조성되어 2016년 문화재생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시민들을 위한 갤러리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동부창고 35동은 청주공연예술연습장으로 개관하였으며, 36동을 포함한 현재 7개 동도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함

4.5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사업

가. 도시재생사업 개요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지자체를 중심으로 쇠퇴도시의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
- 2014년 13개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매년 35개 내외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가 되는 원도심 지역은 과거 도시의 중심지였던 공간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휴공간들이 산재해 있어 이러한 유휴공간들을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다수 추진되고 있음

〈표 3-30〉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사업

구분	내용
사업시기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목표	• 경제기반형: 산단/항만/역세권 정비 및 복합개발 등을 통한 고용개발 창출 • 근린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 낙후한 근린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유지
조성 개수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2016년부터 매년 35개 내외 단계적 지원

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중 미술 관련 활용 현황

- 도시재생정책은 범위가 넓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원을 담당한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시설관련 사업을 분석함
- 분석 결과 미술 등을 중심으로 한 전시 공간 위주로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지역은 총 33개 중 4개(12.1%) 지역으로 문화시설이 없는 경우가 나타남

〈표 3-31〉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사업 중 문화시설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역사문화공간	공연 및 행사	전시	문화시설 없음	합계
개수	9	1	4	19	33
비율(%)	27.3	3.0	12.1	57.6	100

5 해외 사례

5.1 일본

가. 일본 미술관 정책 개관

일본 미술관 정책의 기본 방향

- 거품경제 이후 문화예술정책 분야에서도 공적 비용의 삭감이나 시장원리의 도입을 추구했던 일본은 2000년 이후 행·재정적 투입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등 국가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미술관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행정영역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의 문화적 힘이 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화력(文化力)'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임
- 2000년「미술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었고, 2002년에는「문화예술진흥기본법」, 2010년「전시회의 미술품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특히,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정 전후로 학예사를 위한 지원제도가 늘어나면서 미술관 전문인력의 수급이 원활해짐

일본 미술관 정책의 특징

- 일본 미술관 정책은 미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경제적 이익과 상관없이 미술관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전시 개최 여건을 적극적으로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전시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 특히,「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법률」은 사립미술관까지 확장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사업이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에는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지방소도시까지 합쳐 대략 5,000여 곳이 존재하며 대부분 서양미술/현대미술을 전시하고 있음
- 이러한 미술관의 양적 증대는 정부의 미술관 정책과 일본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가능함

나. 일본 작은 미술관 사례

오하라 미술관

- 1930년 일본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오하라 미술관'은 구라시키 미관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하라 마구사부로'라는 구라시키 방적회사 주인이 설립하고 '코지마 토라지로'라는 오하라 친구이자 미술수집가가 완성함
- 오하라 미술관은 사회 환원 차원이나 개인적 관심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수집으로 인해 이미 20세기 초부터 컬렉션은 완성됨
- 현재에는 작품 3,5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모네, 로댕, 피카소 등의 작품을 전시함



[그림 3-25] 오하라 미술관

자료: 동아 백과사전(http://www.doopediat.com)

나오시마 아트하우스 프로젝트

- 1998년에 시작된 아트프로젝트는 나오시마의 혼무라(本村)지역에서 비어있거나 버려진 집, 절, 신사 등을 복원하고 건축물 내부는 예술가에 의해 리모델링되고 현대미술을을 전시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2006년까지 진행됨
- 에도 시대의 신사를 개조한 고오진자와 절을 리모델링한 미나미데라 등 7개의 건축물을 개조했으며, 빈집과 예술가의 섭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예정임
-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는 고령화되고, 낙후된 나오시마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서 마을은 입장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들은 미술관이 된 빈집을 관리하고, 작품의 위치를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



미나미데라 고오진자 치과

[그림 3-26] 나오시마 아트하우스 프로젝트

자료: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http://benesse-artsite.jp/en/about/)

5.2 프랑스

가. 프랑스 미술관 정책 개관

프랑스 미술관 정책의 기본 방향

-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컸고 국가 중심으로 지원되는 구조에서 1980년대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문화예술의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중앙-지방의 협력적 모델로 변화하며 지자체 권한이 강화됨
- 이와 함께 프랑스 문화예술정책의 이념이 중앙정부에 의해 문화를 널리 보급한다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에서 모든 사람의 주체가 되어 문화를 생산/향유한다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커뮤니티 아트나 지역사회 개발, 문화에서의 지속적 교육 등이 강조됨
- 또한, 역사적으로 장르 전용 공간이었던 박물관/미술관 등이 엘리트 예술과 고정관념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적 성찰이 제기되면서 폐산업시설 등을 문화시설로 재구성하여 기존의 예술공간과는 다른 '문화창조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프랑스 미술관 정책의 특징

- 프랑스 미술관 정책은 초기부터 국가 중심의 문화예술 및 미술관 진흥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지금도 국가 주도적 지원의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문화예술영역별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지원금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레지옹 문화사무국(DRAC)'과 '데빠르트망 건축및문화유산국(SDAP)'을 설립하여 지자체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원/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폐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 예술 공간에 대한 접근으로 미간 차원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화 정책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미술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기존 폐 산업시설을 개조하여 다양한 예술 장품 및 활동의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도시와 농촌지역에 설립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보급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프랑스 작은 미술관 사례

노르망디 깡(Cean) 지역의 미술관

- 노르망디의 깡(Cean)에는 인구 12만 명의 작은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3개의 미술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미술관은 프랑스 지역예술을 위해 생겨난 기금인 FRAC의 지원을 받아 작품을 구입하고 전시하는 등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시내에 위치한 시내 중심에 위치한 Le musee des Beaux-Arts는 중세에 지어진 성안에 위치하며 깡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으로 중세부터 현대까지 작품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이 지역의 미술관들은 소장 작품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교육하고, 주민에게 소장품을 임대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3-27] 노르망디 깡의 Le musee des Beaux-Arts

자료: 프랑스 위키피디아 백과(https://fr.wikipedia.org/)

마르세유 프리쉬 라 벨 드메

- 프리쉬 라 벨 드메는 마르세이유 지역 내 흉물로 전락한 담배공장을 예술가들이 들어서면서 아트팩토리 형태의 다양한 예술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조성했으며,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마르세유시는 199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인 '유로디테라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마르세유시는 2013년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됨



[그림 3-28] 프리쉬 라 벨 드메

자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이트(http://artnetworking.org)

6 종합정리 및 시사점

- 앞서 살펴본 사례를 종합하면 작은미술관은 공공에서 시각 예술을 전문으로 향유하는 공간으로 미술관 컨텐츠 지원 중심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생활문화센터와 대안공간 등 유사시설들이 지역 자원 여건에 따라 미술컨텐츠를 제공하는 반면, 작은미술관은 미술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음
- 공공에서 시각예술 전문으로 향유하는 공간으로 미술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지자체와 문화재단이 협력하는 구조로 사업구조의 변경이 필요함
- 어렵지 않게 방문해서 미술을 접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과 연계하여 공간을 확장과 운영을 통한 양적 확대와 유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체계 구축이 요구됨

〈표 3-33〉 유사사업 및 유사시설 종합 비교

구분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유휴공간 활용	대안공간	사립미술관
주체	공공영역	공공영역	공공영역	공공영역	비영리/단체	민간영역
목적	지식접근성 보장	영상문화 확산	생활문화확산 거점공간 조성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공간	미술향유 공간 미술품 유통채널
성격	시설조성	시설조성	시설조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활성화	시설조성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미술관 조성 진흥
특징	- 걸어서 10분 거리에 조성 - 지자체 직영 운영	- 운영비의 자부담을 통한 자율적 구조 - 설계 가이드 제시 - 작은영화관 기획전 - 지역주민 영화스쿨 운영/영화제 개최	- 시설조성과 운영활성화 모두 지원 - 시설조성 이전에 사전 준비사업 지원	-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공간 조성 - 인프라 확충 중점	- 예술가 창작기반 공간 - 상업성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작품 전시/기획	- 일정한 시설 기준 충족 필요 - 전문인력/컨설팅 등 다양한 운영 지원사업
시사점	시각예술 접근 확대	- 미술관 공간 가이드 마련 - 지자체 지원과 자율적 운영 구조 - 작은미술관 특별전 등 프로그램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집중 지원 필요	공간 연계 활용 (시각예술 진흥 공간)	지역 내 대안공간과 연계 작품 전시	운영 지원사업

Ⅳ 작은미술관 모형적용(안)

1. 작은미술관 개념 및 유형
2. 작은미술관 운영모형(안)
3. 작은미술관 중장기 방향
4. 작은미술관 운영방안

01 작은미술관 개념 및 유형

1 작은미술관 개념 및 역할

1.1 작은미술관 개념

- 작은미술관은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지 않으나 지자체 및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립 문화시설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것이 화랑과의 가장 큰 차이
- 또한 등록미술관의 수집, 관리, 보존, 수장 등의 기능은 없지만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전시, 교육의 기능을 지님
- 지역 실정에 맞게 조성되는 작은미술관은 등록미술관과 같이 특별한 등록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공간 활용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이 등록미술관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다만 미술관의 전시, 교육기능과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으로서 정체성은 지니고 있음

〈표 4-1〉 등록미술관, 화랑, 작은미술관 특성 비교

구분	등록미술관	화랑	작은미술관
법적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없음
운영주체	국립: 중앙정부 공립: 각 지자체 사립: 개인/민간	개인사업자	지자체 문화재단
기능	수집, 관리, 전시, 보존, 조사, 연구, 교육 등	전시, 판매	전시, 교육, 연구
성격	공공적	상업적	공공적
등록요건	• 제1종(제2종) - 100㎡이상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 전시장(82㎡ 이상 전시실) - 수장고(수장고)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100점이상(60점 이상) - 학예사 1명 이상(1명 이상)	없음	• 82㎡미만 면적 권장 • 생활권 내 공간 • 기존시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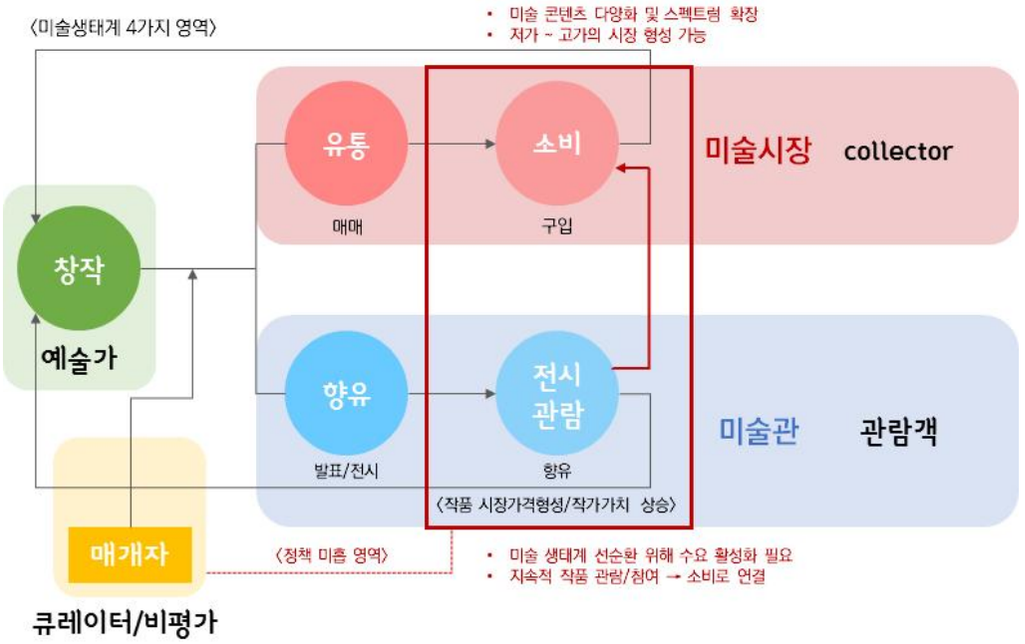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 개념
  - 작은미술관은 문화소외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상설 소규모 미술관
  -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를 통해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고 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친밀함을 높여주는 공공문화시설
  - 등록미술관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전시공간 추구하면서 미술관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

〈표 4-2〉 작은미술관 개념

구분	내용
사업성격	법적 시설을 갖추거나(등록미술관) 시설 활용방안이 아닌 지역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인 사업
조성위치	문화소외지역 중심
공간조성	지역 내 유휴공간이나 기존 공간 활용
조성규모	20~25평의 소규모(등록미술관보다 작은 규모 권장: 82㎡~100㎡)
주요기능	전시와 교육(보존과 수집은 X), 미술창작과 미술향유(미술소비는 X)
역할	시각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일반의 미술에 대한 관심과 친밀함 높여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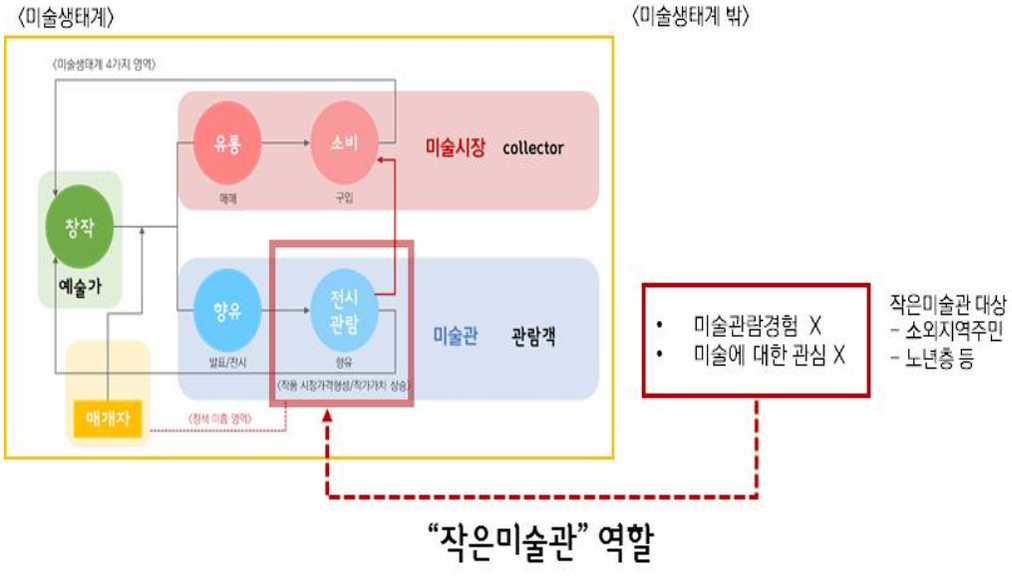
1.2 작은미술관 역할

- 미술관은 관람객이 작품과 만나는 접점으로 미술 생태계 선순환 체계에 앞서 미술관람 및 참여, 미술작품 소비 등의 수요 활성화가 필요함
- 이러한 수요 활성화의 가장 기본은 미술 전시 관람으로 미술전시 관람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 증대가 미술관람률 증가로 이어지게 됨
- 미술관람이 익숙해지면 일부 관람객은 미술품 매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고 미술품 구매 및 소장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시장이 활성화 됨
- 이때 지금의 일부 작가 및 화랑에서 미술품 매매를 독점하거나 일부 콜렉터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콜렉터들의 취향이 다양화 되면서 다양한 작품이 거래될 수 있고 가격면에서도 현재의 고가 시장과 함께 저가작품 시장도 형성 가능함
- 이러한 다양한 가격대와 작품은 다양한 작가들의 창작활동 동기부여를 이끌 수 있고 이는 미술 콘텐츠의 다양화와 스펙트럼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미술전시 관람 기회가 누구에게나, 많이, 언제나 있어야 하고 작은미술관이 그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임



[그림 4-1] 전시관람 활성화를 통한 미술생태계 선순환체계 기반 마련

- 이에 작은미술관은 미술전시 관람 경험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미술생태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술생태계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 주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미술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미술문화 대중화 도모가 궁극적인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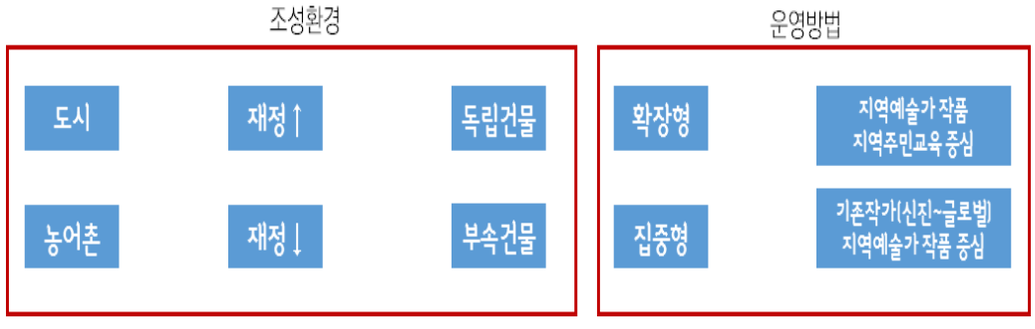


[그림 4-2] 작은미술관 역할

2 작은미술관 유형

2.1 운영결과에 따른 유형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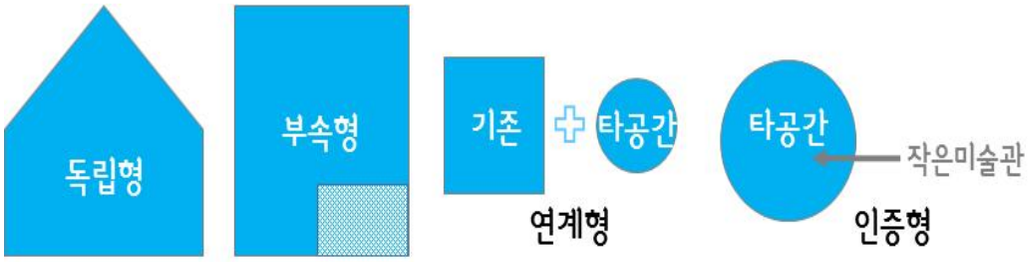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 시범사업 결과 조성환경과 운영방법에 따라 작은미술관이 구분됨
- 조성환경의 경우 작은미술관이 조성된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되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30%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으로 구분함
  - 현재 시범사업 운영시에는 지역별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대한 구분이 따로 없으나 운영결과 정리에 따라 구분하였고 향후 지역 환경에 따른 차등지원 근거로 제시 예정
- 작은미술관은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공간을 재활용하여 조성하고 있어 독립된 건물, 기존 건물 내부에 부속된 형태로 조성되고 있음
- 운영방법의 경우는 미술관의 주요한 기능인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 지역별로 지역친화적인 프로그램과 예술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친화적: 지역예술가 작품 전시와 지역주민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예술지향적: 기존작가(신진작가~글로벌작가)의 작품과 지역예술가 작품을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전시기획, 전시 연계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대부분 지역친화적 또는 예술지향적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집중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을 확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음
- 특히 작은미술관은 콘텐츠 운영이 중요한 공간으로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예술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지역색에 맞게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4-3] 운영결과에 따른 작은미술관 분류

2.2 작은미술관 유형

- 앞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분된 유형을 토대로 작은미술관 유형을 도출함
- 조성환경에서 지역별 인구(도시/농어촌 구분)와 재정자립도는 지역별 차등지급의 근거자료로서 유형분류에서는 제외함
- 작은미술관 공간형태의 경우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간 모두를 활용하기 위해 시범결과에 따라 도출된 독립형, 부속형에 연계형과 인증형 유형을 추가함
  - 공간이 유휴공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하며 유휴공간일 경우는 독립형과 부속형으로 활용공간(기존에 활용하였거나 활용하고 있는)일 경우는 연계형과 인증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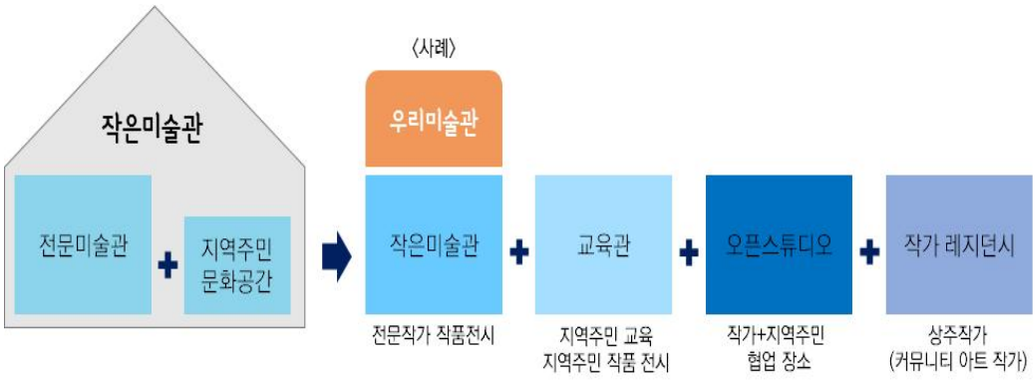


[그림 4-4] 공간형태에 따른 유형

- 운영방법은 시범결과에 따라 도출된 유형을 활용하되 집중형을 기본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작은미술관은 공간형태과 운영방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함
  - 공간형태에 따라서는 독립형과 부속형, 연계형으로 운영 방법에 따라서는 확장형과 기본형으로 유형 구분
  - 기존에는 타사업 공간 및 사립미술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작은미술관과 연계 방안으로 추가 검토
  - 작은미술관은 미술 전시 기능을 가장 중요시 하나 지역 내 유휴공간 또는 문화공간과 연계하는 방안도 중요하므로 확장형을 작은미술관 대표 운영모델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

〈표 4-3〉 작은미술관 유형

공간형태			운영방법	
			신규지원	재지원
유휴공간	독립형		기본형	기본형/확장형
	부속형		기본형	기본형/확장형
활용공간	연계형	독립형	-	확장형
		부속형	-	확장형
	인증형	독립형	기본형	-
		부속형	기본형	-



[그림 4-5] 인천 우리미술관 운영모델(확장형 모델)

- 각 유형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4-5〉 작은미술관 유형별 고려사항

구분	유형		고려사항
공간 형태	독립형	• 독립된 건물을 작은 미술관으로 활용 • 지자체 또는 공공소유	
	부속형	• 기존 시설의 일부 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활용 • 지자체 또는 공공소유, 민간소유 가능	• 공간사용에 관해 기존 입주자와 협약체결, 장기활용(10년) 협약체결
	인증형	• 이미 기 사업(타 부처 사업 포함)으로 조성되었거나 기타 전시공간	• 신규지원 하는 공간일 때 기존의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활용 • 공간 소유주-사업시행 주체와 협약 • 타부처사업: 부처 간 협의 • 기타전시공간: 공공성 확보에 관한 협약, 공간 장기활용(10년) 협약체결 • 다만 인증 관련 추가적 연구 필요
	연계형	• 이미 기 사업(타 부처 사업 포함)으로 조성되었거나 기타 전시공간	• 재지원 할 때 작은미술관 기능 확장 • 공간 소유주-사업시행 주체와 협약 • 타부처사업: 부처 간 협의 • 기타전시공간: 공공성 확보에 관한 협약, 공간 장기활용(10년) 협약체결
운영 방법	확장형	• 미술관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 • (우리미술관: 미술관-교육관-레지던시-오픈공간 등)	• 미술관 전시가 중심이 되도록 운영 • 추후 공간 확장은 지역 내 공간 활용 또는 연계 • 지자체 또는 타 부처간 공간 사용여부 협의 • 중장기 계획 수립시 방향 설정
	기본형	• 미술전시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	•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술지향적 프로그램에 집중)

3 작은미술관 특징과 차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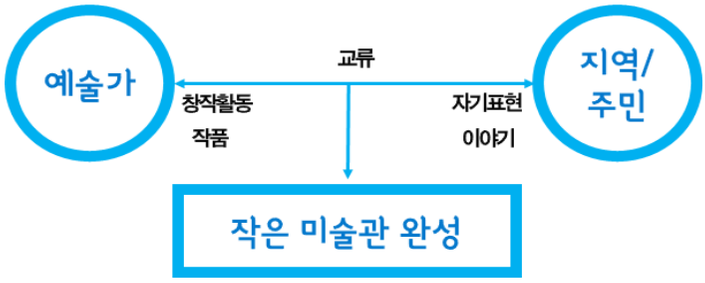
3.1 작은미술관 특징

- 작은미술관과 기존 미술관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존 미술관과 다르게 작은미술관에는 작품 수집 및 소장기능이 없어 작은미술관은 큐레이팅이 매우 중요한 공간임
  - 현재 미술환경에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매개와 향유분야 활성화 도모 가능



[그림 4-6] 등록미술관과 작은미술관의 전시기획 방법

  - 다양한 전시 기획 방법 중 특히 지역/주민이 예술가와 교류를 통해 미술관을 만들어가는 상호 교류적이고 능동적인 전시/향유의 형태가 작은미술관의 대표적 큐레이팅 방법으로 기존 미술관에는 없는 새로운 방식



[그림 4-7] 작은미술관 차별적 특징

- 특히 작은미술관은 소규모 공간이라 공간 제한만 있을 뿐 주요작가나 장르적 제약은 없고 자율적 운영과 기획이 가능한 가장 자율적인 미술관임

〈표 4-6〉 작은미술관과 유사공간 비교

구분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안공간	작은미술관
공간	신규조성		신규/기존	신규/기존	기존시설활용
기능	소장, 수집, 전시, 교육, 연구			전시, 교육	전시, 교육,(연구)
주요작가군	글로벌작가-중진작가	중견-유망-신진		신진	제한없음 지역작가 중심
매개인력	전문 학예사 1명이상 반드시 확보			-	전문기획자
콘텐츠	1개관 1장르는 아니지만 미술관 정체성 위해 장르적 제한(현대미술 장르가 다수)			장르제한(실험적)	공간적으로는 제약, 기획/운영 자율적

3.2 지역문화기반시설과의 차이점

- 미술관 이외에 미술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는 문예회관, 도서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는데 이 중 문예회관은 공연과 전시를 중심기능으로 하는 공간으로 도서관, 문화원, 문화의 집에 비해 다양한 미술전시가 가능함
  - 2015년 기준으로 총 229개 문예회관 중 전시공간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문예회관은 총 164개로 약 71.6%의 문예회관에서 미술전시가 가능
  - 지역 문예회관은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조성되어 있고 전시공간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등록미술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간 및 미술소외지역의 미술향유 기회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지자체의 전시예산과 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부재로 전시실 평균 가동률은 34.2%(2014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미술관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지는 않음
  - 수도권 몇몇 문예회관 이외에 김해, 대구 등 소수의 문예회관에서만 전시 전문인력(큐레이터)을 공식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대관공간으로 활용되는 실정
- 이에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회관 전시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시각예술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을 추진함

〈표 4-7〉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

구분	내용
배경 및 목적	• 지역문예회관은 대부분 공연과 영화상영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전시콘텐츠 부족으로 시각예술 전시시설 가동률이 저조 • 우수한 전시콘텐츠 지원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민 문화향수 확대
추진 방향	• 자체 전시기획능력과 지역작가 활동기회 제고, 각 지역의 문화예술자원 발굴 • 전문가 위주의 시각예술 전시활동을 지역 동호회 등으로 다양화 • 순수 미술 중심에서 공예/디자인 등 생활미술 분야로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4년 • 사업예산: 1,500백만원 • 사업시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지원대상: 전국문예회관 • 사업규모: 70개 문예회관 • 사업내용: 우수전시프로그램 지원, 지역문예회관 자체 기획전 지원, 지역시각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지원 프로그램	• 우수전시 개최지원: 검증된 우수전시 프로그램을 전문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역 문예회관에 전시하도록 지원(20개소, 각 3천만원내외, 5~10개 작품내외, 차등지원) • 자체 기획전시 지원 - 전문분야 전시지원: 문예회관의 전문 전시인력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 및 지역기반 단체, 작가, 독립 큐레이터, 문예회관 간 공동기획, 운영하는 전문전시지원, 필요시 큐레이터 등 매개인력 활용지원 포함(2014:11개지역 31개 문예회관, 32개 프로그램 지원) - 주민동아리 전시지원: 문예회관이 기획한 아마추어 전시발표 등 지역주민 문화예술 활동과 가족단위 참여형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7개지역 13개 문예회관, 13개 프로그램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보도자료

-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고 지역문예회관의 공연과 전시기능 모두에 대한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다시 추진됨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지역문예회관 기획 역량강화로 지역문화예술 수준 제고)
- 2015년 기준으로 문예회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시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나 한시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임
- 이는 지방문화원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시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율이 적고 전문 미술관이 아닌 일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임

〈표 4-8〉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비율

(단위: %)

구분		문화 및 생활강좌	공연 및 행사	전시(미술포함)	미술전시 +공연 복합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7.42	49.34	0.87	42.36
	지방문화원	19.4	45.6	1.9	33

- 또한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성공적으로 미술전시를 운영한 대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람객 70%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며 전시관이 시민들의 휴식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구 문예회관은 2014년에 미술전시관을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하였고 연면적 3,930㎡에 13개의 전시실과 1,070개의 작품을 소장하며 매년 100차례 이상 전시를 개최하고 있음
- 문예회관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모든 전시공간에 필요한 부분으로 더 지역친화적인 전문 미술전시공간을 지향하는 작은미술관도 전문인력은 매우 중요함
- 다만 문예회관이 대규모 공간에 대규모 투자비를 필요로 하는 공간임과 다르게 작은미술관은 기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공간을 지향하고 지역 동호회 활동 보다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같이 만드는 전문 시각예술 전시 공간을 만들고자 함
- 등록미술관의 전문적인 전시와 교육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되 수집과 소장에서 자유로우며 다양한 전시전문 기관과 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문예회관 및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임

3.3 유사시설 및 사업과의 차이점

-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사업의 경우 작은미술관과 그 성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세부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 복합문화공간 유형으로 차이가 있음

〈표 4-9〉 작은미술관과 유사 시설 및 사업의 특징

구분	내용	특징
타부처 문화공간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2004~200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004~) 농어촌신문화공간조성사업(2009~)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2009~)	• 주민주도적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 • 사람과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지향 • "공간"활성화에 집중 •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유사사업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 유휴공간의 전문 공간 활용 • 시설조성 성격의 사업 • 지역커뮤니티 역할 목적
	생활문화센터	• 생활문화의 일상화 목적 • 시설조성과 콘텐츠 운영 복합 지원 •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기존 미술관	국립/공립/사립 미술관	• 보존과 수집, 전시, 교육 등 미술관 모든 기능 가능
	화랑/갤러리	• 사익추구가 목적 • 미술수집과 전시 보다는 미술소비가 중점인 미술 유통공간
소규모 공공미술관	작은미술관	• 공공의 미술 전문 공간 • 전시와 교육이 중심 기능 • 미술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창작과 향유 중심 공간 • 시설조성보다는 다양한 콘텐츠가 중심인 공간 • 지역밀착형 미술관으로 미술에 쉽게 접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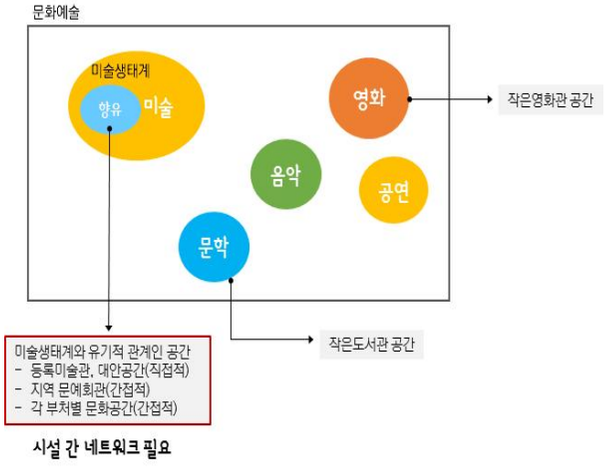
-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는 교육 및 학술, 근대 산업유산 문화공간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은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음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경우 미술관형의 전시프로그램이 가장 많으나 예술가 창작지원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경우는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시를 포함한 복합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음

〈표 4-10〉 유사 사업에서 미술/전시 프로그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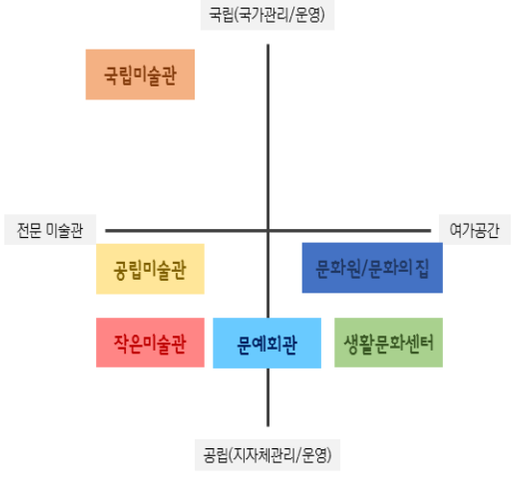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교육 및 학술	공연 및 체험, 행사	전시 (미술 관형)	창작 및 창업	문화 거리	전시 포함 복합	문화 시설 전무
중앙 부처 문화 공간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58.3	12.5	-	-	-	29.2	-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	-	-	-	-	100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39.19	6.76	10.81	-	-	43.24	-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46.2	15.4	30.8	-	7.7	-	-
	폐산업시설문화재생	20	20	50	10	-	-	-
	도시재생 연계 유휴공간 활용사업	27.3	3	12.1	-	-	-	57.6

-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인 문화공간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거나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문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은 거의 없음
- 지역 내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나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큐레이팅과 전문미술관과 네크워크 구축 등이 이뤄지는 전문 미술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음
- 이렇듯 작은미술관과 유사공간을 비교해보면 문화예술 범주 안에서 영화, 문학, 공연과 함께 미술은 하나의 장르일 뿐으로 미술생태계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시설임
- 미술관과 대안공간은 미술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간이고 그 이외의 공간들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간으로 부처별 문화공간과는 시설 간 네크워크가 필요함



[그림 4-8] 작은미술관과 유사시설 관계



[그림 4-9] 작은미술관과 유사시설의 특성에 따른 위상

02 작은미술관 운영모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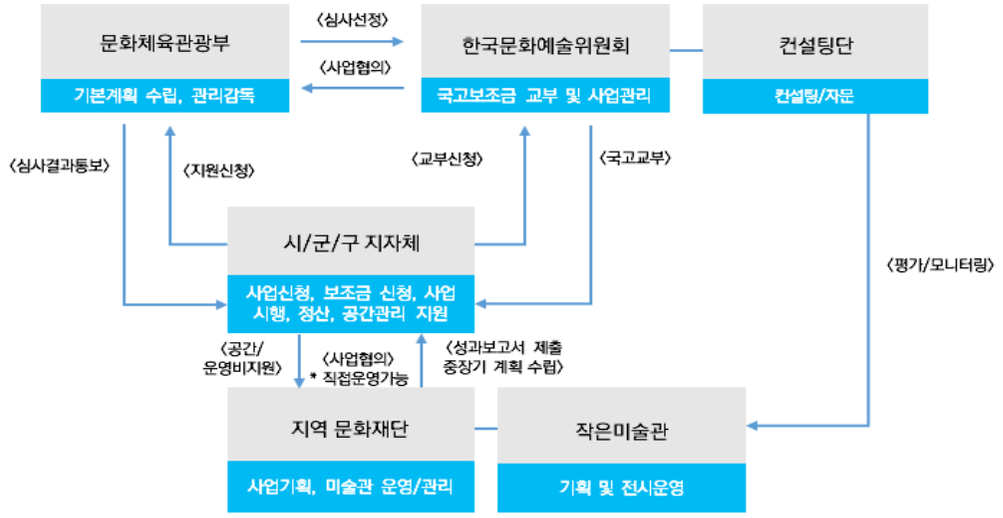
1 추진체계 및 절차

- 작은미술관 추진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운영주체의 경우 기존의 문화재단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자체가 직영이나 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지자체는 직영으로 운영가능하나 지역문화재단과 위탁운영 체결하는 방안 우선 검토
- 시범사업에서 민간단체도 운영주체에 포함되었으나 운영관리가 미흡하여 본 사업에서는 제외 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문화재단 이외의 민간 또는 예술관련 단체가 조성하거나 운영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함
- 작은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작은미술관이 포함되고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4-11〉 운영주체별 역할

기관	역할	비고
문체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총괄 관리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집, 선정, 관리, 교부금 교부, 모니터링, 평가	전담센터조성 및 전담조직 신설 검토
지자체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및 정산, 작은미술관 지원(지방비 확보/공간 등)	지자체 직영 운영 가능
지역문화재단	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미술관 운영/관리	내부 인력을 전문기획자로 활용 가능
작은미술관	미술 전시, 교육 등 운영	

- 작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총괄 관리 감독아래 작은미술관의 큰 방향인 (가칭)작은미술관 기본계획(안)에 따라 운영함
- 사업 관리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거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관리기관에서는 작은미술관 심사/선정, 모니터링, 평가 등의 운영관련 사항을 담당함
  - 사업선정관련: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사업운영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전담조직(신설)-지자체/문화재단
- 작은미술관 심사와 선정, 신규 조성시 컨설팅 자문, 작은미술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컨설팅단을 활용하고 필요한 분야의 컨설팅 위원을 추가 선정함



[그림 4-10] 작은미술관 추진 체계도

- 작은미술관 사업의 핵심은 지역 내 미술분야, 미술행정/정책 분야의 전문기획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지자체와 문화재단(위탁체결 시), 그리고 전문기획자는 사전에 작은미술관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작은미술관 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계획 수립 및 통보	⇨	시도 계획 수립	⇨	시군구 사업신청
작은미술관 사업 계획 통보 (전년도 11월~12월 중)		지자체와 문화재단(위탁), 전문기획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포함) (1월~3월 계획수립)		지자체 및 문화재단과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수립 후 사업 신청 (3월 중)
(문체부 문서시행 → 시도)		(지자체↔문화재단)		(시군구 → 시도)
				⇩
최종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심사 및 보완	⇦	시도별 취합/신청
심사결과 및 보완 사업계획서 심의 후 최종 선정 (4월 말)		입지 및 시설, 사업계획서 등 심사 및 추가 사업계획 보완 (4월 중)		시도별 취합하여 일괄 신청 (3월 중)
(문체부/문예위 → 시도) * 기존 미술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바로 사업비 교부		(문체부/컨설팅단/문예위→시도)		(시도 → 문체부)
⇩				
사업시행	⇨	정산/결과보고	⇨	정산 및 평가결과 통보
작은미술관 운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컨설팅 지속 지원 (5월 초~내년도 2월)		사업 정산 실시 전시 결과 및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2월~3월 제출)		운영결과 보고서로 인센티브 및 지정해제 통보 (4월 중)
(컨설팅단/문예위 → 미술관)		(미술관 → 문예위/문체부)		(문체부 → 시도)

2 예산 및 지원규모

2.1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작은미술관을 통한 기대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미술작품을 감상해야 하므로 미술관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확대를 우선 목표로 설정함
- 현재 17개 시도 중 2개(울산, 세종)지역, 229개 지자체 중 124개 지역에 미술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매년 20개 조성을 목표로 5년간 100개 조성을 1차 목표로 설정함
- 작은미술관 장기계획 차원에서 5년간은 작은미술관 양적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은 신규 작은미술관 추가지원은 감소하면서 기존 작은미술관 유지/관리를 통한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설정함
- 이러한 장기비전과 방향설정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작은미술관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작은미술관 운영 안정성을 위해 사업기간을 3년 연속사업으로 설정하여 3년간 지원이 보장되는 구조로 운영토록 함
- 다만, 안정적인 운영 체계 마련과 안정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통해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해제가 가능토록 함

2.2 예산편성

- 작은미술관 사업은 시설 조성보다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집중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확보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여부가 가장 중요함
- 현재는 운영비(전시기획비)만 지원되는데 실제로 인력 추가 고용을 위한 예산 추가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 탄력성에 대한 의견이 관계자 인터뷰에서 많이 제시됨

〈표 4-12〉 작은미술관 운영시 필요한 예산내역

구분	내용	필요비용	현재 지원여부
시설조성비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이 원칙으로 건물 및 공간 리모델링 비용 소요	3~5,000만원	지원안됨
인건비	전문기획자	300만원/월	지원
	시설관리/행정업무 담당	150~180만원/월	지원안됨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담당	200만원/월	지원안됨
사업비	전시 기획비	1~3.000만원/회	지원
	작품 설치비(운송비, 보험료, 설치비)		지원

* 각 항목에 대한 필요비용은 관계자 인터뷰에 근거

- 향후 작은미술관 예산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과 지역특별회계 예산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함
- 국고보조금은 국가 세금을 통해 조성된 예산으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지역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예산으로 특정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함
- 국고보조금에는 부처가 직접수행하는 사업과 지자체보조사업이 있고 지역특별회계도 같의 의미로 생활계정(지자체자율편성사업)과 경제계정(부처 편성사업)이 있는데 이중 지특회계의 생활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자율성이 가장 높음

〈표 4-13〉 예산별 비교

구분	국고보조금(일반회계)	지역특별회계
목적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 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관련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유형	부처 직접수행: 부처에서 사업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생활계정: 시도 및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자율편성) 경제계정: 시도 중심의 지역협력권 사업(부처편성)
특징	시설조성, 시설운영비 등 지원가능	시설조성 중심사업으로 시설운영비 지원어려움

- 작은미술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각 예산을 비교해보면 작은미술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 가능한 예산은 일반회계, 다음으로 지특회계의 경제계정이나 두 회계 모두 국가가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타당하고 분명한 근거가 필요함
- 일반회계의 경우는 시설비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함
- 지특회계의 경제계정의 경우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고 시설조성과 운영활성화 사업을 합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함
- 지특회계의 생활계정 예산은 작은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예산확보가 가능함
- 작은미술관 사업은 특성상 공간조성 보다는 콘텐츠 운영이 중심인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특회계는 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대부분 시설조성비에 대한 지원만 가능함
- 이에 지자체에서 자발적 협력(운영비와 인건비 확보)이 수반되어야 하고 작은미술관 활성화 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구성해야 함

- 작은미술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활성화 지원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안함
  - 다만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타당하고 분명한 근거 제시 필요
- 일반회계와 지특회계 이외에도 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방안도 검토 가능함

〈표 4-14〉 예산출처별 비교

구분	국고보조금(일반회계)	지역특별회계	
		생활계정	경제계정
장점	• 부처에서 사업관리 가능 • 작은미술관 시설비+운영비 편성가능	• 가장 확실하게 예산확보 가능	• 부처에서 사업관리 가능 • 시설비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편성가능
단점	• 실제로 시설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양하는 상황 • 작은도서관 사업도 시설조성비 지특회계로 변경, 다만 활성화 사업은 예산지원 중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부처에서 사업관리 불가 •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부담이 발생(인건비, 경상비) • 부처의 사업관리가 어려워 향후 사업방향성 모호해질 우려	• 실제 운영하는 사업 중 문화시설 관련 사업(지역문화관광육성)은 총 76개 중 6개이고 그 중 문화시설 관련사업은 전무 • 관련사업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1개로 실제 예산 확보여부가 불투명
방안	• 중앙에서 작은미술관 지원에 대한 타당성 제시필요	• 작은미술관 인건비와 경사비에 대해 지자체 확보 •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 관련 예산 일반회계로 추가 편성	• 사업의 필요성제시 필요

- 유사사업인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사업을 살펴보면 시설 조성의 경우, 지원 비율은 상이하나 지특회계의 생활계정으로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음
- 시설조성비는 시설조성에 필요한 기자재, 리모델링 비용만을 포함하며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만 예산의 30%이내 범위에서 소요물자(컴퓨터, 프린터, 자료 구입)경비 지원을 함
- 운영비는 공간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간운영비의 경우는 작은영화관은 자체 수익으로, 나머지 사업은 지자체가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은 일반회계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자구 조성 사업, 해외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등 총 4개의 사업 지원
  - 생활문화센터의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로 지원
  - 작은영화관에서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2014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데 영화발전 기금으로 지원



[그림 4-11] 유사사업 예산 구조

〈표 4-15〉 유사사업 예산 편성 항목(2016년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조성비	지특 생활계정 50%지원 - 재정자립도에 따라 70%까지 지원 - 공간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 포함), 소요물자(자료, PC, 프린터 등)경비 지원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배정	문화정책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운영비	지자체 지원 - 공간운영비, 상근직원 1인 이상 인건비	지자체 마련
	활성화사업	일반회계로 4개 사업 지원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327백만원(63명채용, 252개 순회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303백만원(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평가, 평가시스템 유지/운영, 홈페이지 유지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전국대회 개최)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1,500백만원(50%매칭),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720백만원(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12개관 내외 조성, 개관행사 개최 , 물품구입비, 워크숍개최 등 지원)	문화기반정책관 사업
작은영화관 조성	시설조성비	지특 생활계정 50%지원 - 5억 지원	콘텐츠정책관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운영비	작은영화관 운영수익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 지자체에서 공간 운영비에 대해 지원, 후원금을 운영비로 충당 가능 - 대형배급사에서 저렴한 가격에 배급, 판매수익으로 충당하나 3년의 운영 이후에 흑자 전환 가능	자체수익 지자체 지원 후원금
	활성화사업	영화발전기금에서 1개 지원 - 작은영화관 기획전 상영지원: 650백만원(정액지원, 지역 작은영화관 기획전 프로그램밍 및 상영지원, 총 24회)	콘텐츠정책관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조성비	지특 생활계정 30%지원 - 지자체 제공하는 리모델링 대상 공간 건물가액을 지방비	문화정책관 문화시설 확충 및

		로 인정(40%까지만 인정) -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비 일부 지원	운영사업 국고 이외의 조성비 지자체 제공
	운영비	지자체 지원 - 공간운영비, 문화전문인력(상근 인력 1명 이상) 인건비	지자체 마련
	활성화 사업	일반회계로 1개 사업 지원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500백만원(컨설팅, 교육 등 운영활성화 지원)	문화정책관 지역문화 진흥사업

- 유사사업 모두 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지원, 공간 연계 체계 구축(작은도서관), 교육프로그램, 홍보 등이 지원되지만 콘텐츠 개발 및 기획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는 콘텐츠 개발과 기획이 미술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으로 특히 작은미술관은 공간자체의 의미보다 공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 따라서 작은미술관 예산 편성 구조는 유사사업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운영비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됨
- 현재 작은미술관 예산항목은 시설조성은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운영비를 50%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범위는 전시 기획비용으로 전시 기획비용 범위 내에서 전문기획자 인건비만 지원이 가능함
- 또한 운영비 50% 매칭 마련도 어려운 지자체가 다수로 운영비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 인건비와 작은미술관 관리 및 홍보 관련 비용에 대해 추가 지원이 필요함

〈표 4-16〉 현재 작은미술관 예산 항목

구분	현재 예산	지원비용	추가 보완 사항
시설	지자체 마련	-	
운영비	50% 매칭 지원 인건비+사업비 포함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비용 - 전문기획자 인건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관련 비용	35~40백만원 (총 70~80백만원)	추가 인력 인건비 - 보조기획자, 운영/관리 인력, 해설사 등 작은미술관 관리/홍보 관련 비용 - 작은미술관 컨설팅, 평가, 운영자 협의회 운영, 워크숍개최, 홈페이지 유지관리, 홍보/마케팅 등

〈표 4-17〉 작은미술관 예산 편성(안)

구분	예산 확보 방안	예산계정(안)
시설조성	지자체 자체 마련	-
공간운영비	지자체 지원	-
인건비	(가칭) 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사업(전시큐레이터, 체험교육기획자, 보조기획자 지원)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가칭) 작은미술관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전시기획, 교육기획 별도로 예산 지원)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운영활성화	(가칭)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작은미술관 모니터링/운영평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작은미술관 운영자 협의 조성,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가칭) 미술관 운영관리 방안 교육프로그램(큐레이팅 방법, 미술전시 해설교육, 시각예술관련 기본소양 교육 등 지원)	일반회계

- 작은미술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예산 항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의 경우 시설조성비는 지자체에서 자체마련 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50%매칭으로 지원, 다만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30%이하인 지자체의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함
-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 사업은 작은도서관 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예술정책관 내 사업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운영비와 활성화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함

〈표 4-18〉 대안1: 국고보조금 예산확보 방안 제안

구분	국고보조금(일반회계)	비고
시설조성비	지자체 마련	
공간운영비	지자체 마련	
운영비	인건비+사업비 통합하여 50% 지원(기존지원 방식 유지) -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자체는 최대 70%까지 지원	• 대안 1
인건비	• 예술정책관 사업 중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내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에 추가 - 기존 글로벌 기획인력 양성사업에 작은미술관 인력 지원사업 추가 • (가칭) 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사업 신설 - 전시큐레이터, 체험교육기획자, 보조기획자 지원	• 대안 2
사업비	• (가칭) 작은미술관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사업 신설 - 전시기획, 교육기획 별도로 예산 지원	
운영활성화	•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내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세부사업 추가 - (가칭)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작은미술관 모니터링/운영평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작은미술관 운영자 협의 조성,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운영

〈표 4-19〉 대안 2: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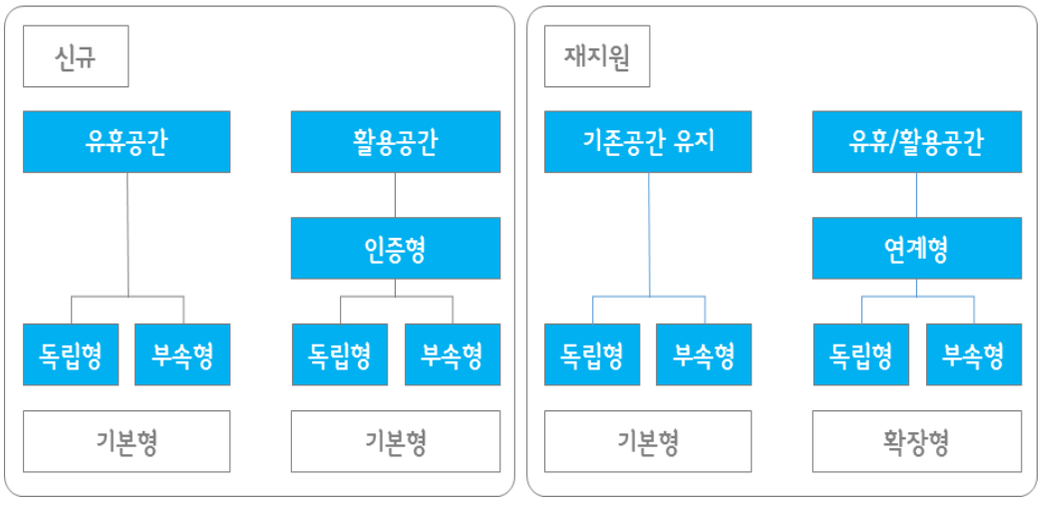
구분	체육진흥기금	비고
시설조성비	50% 매칭지원 -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자체는 최대 70%까지 지원	• 기존 사업예산 편성 구조 유지
공간운영비	지자체 마련	
운영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 추가 - 인건비+사업비 통합하여 50% 지원(기존지원 방식 유지) -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자체는 최대 70%까지 지원	
인건비	• 예술정책관 사업 중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내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에 추가 - 기존 글로벌 기획인력 양성사업에 작은미술관 인력 지원사업 추가 • (가칭) 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사업 신설 - 전시큐레이터, 체험교육기획자, 보조기획자 지원	• 일반회계 사업으로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사업 편성 검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운영
사업비	• (가칭) 작은미술관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사업 신설 - 전시기획, 교육기획 별도로 예산 지원	
운영활성화	• 시각예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내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세부사업 추가 - (가칭)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작은미술관 모니터링/운영평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작은미술관 운영자 협의 조성,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3 지원대상 및 공간

- 현재 129개 지자체에 미술관이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미술관이 전무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대상부지 인근 생활권역으로 미술관 또는 유사기능의 문화시설이 없어야 함
  - 전국 지자체를 포함하나 미술관이 전무한 시군구를 우선 선정
  - 대상부지 인근 생활권역 이내에 미술관과 유사기능의 문화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
  - 미설치 지역이 원칙이나 인구, 지역 여건에 따라 동일 시군구 내 미술관 복수 조성 가능
  - 지역주민과 밀접한 역할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접근이 용이한 주민밀착형 공간 확보
- 작은미술관 지원 대상은 기존의 지역 내 유휴공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타부처 공간과 기타 전시공간도 대상으로 추가함
  - 다만, 타부처 공간 활용할 경우는 공간 활용에 대한 부처별 협의가 필요하고 사립미술관의 경우는 사익추구 포기에 대한 근거 제시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
- 현재는 기존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예회관, 문화의 집, 문화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문예회관의 전시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함
  - 대부분의 문예회관에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이 미비한 문예회관이 다수

〈표 4-20〉 작은미술관 유형별 지원조건

구분	유형		지원조건
유휴시설	독립형	• 독립된 건물을 작은 미술관으로 활용 • 지자체 또는 공공소유	
	부속형	• 기존 시설의 일부 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활용 • 지자체 또는 공공소유, 민간소유 가능	• 공간사용에 관해 기존 입주자와 협약체결, 장기활용(10년) 협약체결
기존시설	연계형	• 재지원 할 때 작은미술관 기능 확장을 위한 공간이며 이미 기 사업(타 부처 사업 포함)으로 조성되었거나 기타 전시공간	• 공간 소유주-사업시행 주체와 협약 • 타부처사업: 부처 간 협의 • 기타전시공간: 공공성 확보에 관한 협약, 공간 장기활용(10년) 협약체결 • 기타 전시공간의 경우 사익추구, 운영일수 미달, 미술관 폐관 등 발생시 운영권 지자체에 이관 또는 지원액 전액 반납 등 패널티 부여 • 다만 인증 관련 추가적 연구 필요(지역 내 공립미술관과 연계지원시 우대 등 검토)
	*인증형	• 신규지원 하는 공간일 때의 유형으로 기존의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활용 • 이미 기 사업(타 부처 사업 포함)으로 조성되었거나 기타 전시공간	
운영방법	기본형	• 미술전시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	•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술지향적 프로그램에 집중)
	확장형	• 미술관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 • (우리미술관: 미술관-교육관-레지던시-오픈공간 등)	• 미술관 전시가 중심이 되도록 운영 • 추후 공간 확장은 지역 내 공간 활용 또는 연계 • 지자체 또는 타 부처간 공간 사용여부 협의 • 중장기 계획 수립시 방향 설정



[그림 4-12] 작은미술관 운영 모형 참고

- 작은미술관 공간 규모와 공간 구성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자율성이 확보된 미술관이라는 특성에 잘 어울리므로 권장규모만 제시함
  - 전시공간 조건을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지키기보다는 참고용 제시
- 다만 미술관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시 및 교육 기능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표 4-21〉 대구 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내 전시공간의 조건

구분	내용
전시장 구성/설계 요구조건	• 전시장비의 모니터링, 관리 및 운영은 종합운영실에서 할 수 있도록 고려 • 다양한 전시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 • 소규모 개별전시 및 노령층, 어린이 등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전시 고려하여 계획 • 관람객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휴식공간 및 화장실 등의 편의공간 제공 • 관리시설은 작품 이동 동선에 인접 배치, 별도 출입구 설치하여 관람동선과 분리 • 자연광을 이용할 시 외부에 적절한 차양장치를 설치하여 자외선 차단 및 빛을 환산시켜 균등한 조도로 채광될 수 있도록 함 • 조온, 온습도의 실내환경 조절이 별도로 가능하도록 하며, 전시품에 따라 적절한 보존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전시 가능토록 함 • 긴급 대규모 피난 및 방재를 고려하여 계획
전시실 자체 계획시 요구사항	• 최대한 장 스팬의 무주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바닥 하중을 고려하여 중장비를 이용한 대형 전시품의 이동 및 전시 용이토록 함 • 전시실 관람시 시각은 45도 이내 최대시간은 27-30도를 원칙으로 계획 • 바닥부를 각종 전시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 적정간격으로 설비구를 설치하고 중량물 통행 및 전시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를 사용 • 전시관 내부의 낮은 벽면 및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처리하고 코너 부위나 북도, 출입문, 셔터, 화물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취약부분은 별도 보호 장치를 검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미술전시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표 4-22〉 대구 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내 미술과 특수 요구사항

구분	내용
기본조건	• 설계도서에 정해진 소요의 성능 및 기능 유지, 내관자의 감상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 것 • 전시실에 있어서는 마감재의 습도조절 기능을 유지
탑라이트	• 자연채관을 위해 롤커텐, 블라인드의 개폐기구 및 조광성을 유지 • 유리면에 대해서는 일사광선을 막지 않는 투명도를 유지 • 누수가 없고 결로가 없을 것
전시실	• 전시물 대체에 따라서 수리 복구 실시 • 얼룩이나 오염이 없을 것
가설벽	• 전시물 대체에 따라서 수리 복구를 실시 • 이동용 선반의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실시
전시실 바닥	• 전시물 대체에 따라서 수리 복구를 실시
전시실 천장	• 빛이 맞지 않는 투명감을 유지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미술전시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표 4-23〉 작은미술관 권장 규모(안)

구분	내용
권장면적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66㎡~82㎡이하(20평~25평 사이)
공간구성	• 전시실과 필요에 따라 교육실 추가 • 지역인구, 여건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내부공간	• 탑라이트, 전시실, 가설벽, 전시실바닥 및 천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조성 • 공공문화시설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
외형	• 지역 특성 또는 트렌드를 반영한 미술관 공간으로 리모델링 권장



서울 소마 미술관　　서울 디갤러리　　일본 도코로 뮤지엄 오미시마

[그림 4-13] 미술관 외형 사례

4 운영계획 및 인력운영 확보

- 지역 중심의 전문미술관으로 집중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미술관 운영은 최소 2회 이상 기획전시 개최, 최대 280일 이상 오픈 미술관 권장하나 운영일수는 최소 90일 이상 유지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개방일수)기준 연간 90일 이상 개방 제시, 2016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조사된 미술관의 평균 운영일수 280일을 기준으로 제시
- 작은미술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함
  - 인천 우리미술관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지원이 더해져 추가 공간 확보를 통해 확장형 모델을 구축하여 미술 작품 전시 뿐만 아니라 지역예술가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도 같이 운영
  - 미술관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 종료 후에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지원
- 이에 따라 지자체의 운영 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함
  - 운영비에 지원이 있지만 지자체의 지속적 운영 가능 및 의지 중요

– 운영인력, 운영비 확보방안 등 지속적 운영 가능성 검토

– 상근 직원 1인 이상 지원

〈표 4-24〉 작은미술관 운영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기본원칙	전문미술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가기능은 작은미술관의 형편에 따라 선택	
운영일수	• 최소 2회 이상 기획전시 개최 • 최대 280일 오픈 미술관을 권장하나 최소 90일 이상 유지할 것	
운영인력	• 작은미술관 운영(상근지원 1인 이상) • 전문기획자 1인 이상 • 도슨트 및 해설사 1인 이상	• 상근직원 지자체 지원 • 전문기획자 중앙 지원 • 도슨트/해설사 지역주민 활용 가능
운영비	• 프로그램 기획비: 2,000만원/회 (설치비, 운송비, 아티스트 피 포함) • 인건비: 5,500만원/년 - 전문기획자 1인 기준: 3,000만원/년 - 상근지원 1인 기준: 2,160만원/년 - 도슨트/해설사: 실비지원(360만원/년) • 작은미술관 운영비: 800~1,000만원/년	• 프로그램 기획비 중앙지원이나 사업 종료 후 사업 지속 운영위한 별도 지자체 지원 필요 • 인건비의 경우 전문기획자만 중앙지원 가능 • 운영비 지자체 지원

- 작은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인 전문기획자가 반드시 포함하며 전문기획자는 3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반드시 마련토록 함
  – 전문기획자는 외부 기획자 고용 하거나 지역문화재단 내 적절한 인력이 있을 경우 전문기획자로 위촉 가능
- 또한 작은미술관은 다양한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므로 다양하고 새로운 큐레이팅에 대한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작은미술관의 큐레이팅을 지원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큐레이터 지원사업을 중앙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작은미술관에는 기존에 전문기획자가 작은미술관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므로 큐레이터는 전문적인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또는 전문기획자와 공동기획을 할 수 있고 전문기획자가 부재한 곳에는 직접 전시 기획을 하는 등 지원역할을 담당함
- 전시큐레이터와 전시디자이너, 큐레이터 보조원 등으로 큐레이터를 구분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작은미술관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 확보 또한 중요한데 전문인력 고용도 중요하나 작은미술관의 일부분은 지역주민이 충분히 참여 가능하므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필요한 영역에 인력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주민 운영 인력 활용 방안(도슨트, 운영/관리 직원, 사무인력 등)

〈표 4-25〉 인력운영 방안(안)

구분	내용	비고
전문기획자	• 작은미술관 총괄 관리 및 계획 수립	기존과 같은 역할
미술 전문인력	• 각 지역에 분포하는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예사 대상 • 전시 큐레이터: 기존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경력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기획자와 공동기획하거나 전문기획자가 부재한 작은미술관의 경우는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 기획, 지역별 차등적 전시 설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 체험/교육프로그램기획: 작은미술관 전시과 연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 작은미술관에 배포하거나 작은미술관 체험/교육프로그램 기획 컨설팅 지원 • 큐레이터보조원: 프로그램과 콘텐츠 기획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보조역할	중앙차원에서 전문인력 지원사업 별도 추진
운영/관리 인력	• 작은미술관 운영과 작품관리, 사무 담당하는 인력	지자체 인력비 지원 지역주민 활용 가능
해설사	• 도슨트/해설사: 미술관 이야기 및 작품해설	지자체 인력비 지원 지역주민 활용 가능

5 사후관리

- 사업실적 및 운영관리를 통해 운영이 미흡한 미술관에는 컨설팅 지원을, 운영이 우수한 미술관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운영이 매우 미흡한 미술관은 지정해제 등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실적보고서 제출
  - 전시결과보고서: 각 기획전시별 결과보고서 작성
  - 운영결과보고서: 개관 후 년 1회(2월)제출, 전체 운영실적 및 사업실적 포함
  - 전시결과 및 운영결과, 모니터링 결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 마련하여 평가실시
  - 우수, 미흡, 해제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우수 미술관은 인센티브와 집중 홍보 지원, 미흡 미술관은 컨설팅 지원으로 방향성 조정, 해제 미술관은 사업 중단

6 작은미술관 가이드라인(안)

1. 목적

- 문화소외지역에 미술관 조성하여 미술문화 확산 및 지역에 적절한 운영방안 마련
  -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 관람률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시각예술분야는 문화예술 전체 관람률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며 도시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 방안 필요
  - 적절한 전시공간이 없어 작품관람 기회가 부족한 문화소외지역에 미술관을 조성하여 미술문화 확산
- 미술진흥 정책 수립에 따른 지역밀착형 미술관 조성 추진 필요성
  - 미술관의 양적 증대 필요성에 따라 미술관이 미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소도시에 적절한 지역밀착형 미술관 조성
  - 지역 내 유휴시설/공간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며 지속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방향 설정
- 미술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미술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미술문화 대중화 도모

2. 추진방향

- 미술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지역밀착형 미술관 조성
- 지역 내 유휴공간, 기존시설을 포함해 타 부처의 문화공간 등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공간 운영
- 미술관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미술관 조성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등록미술관 및 기존의 문화향유시설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미술전시공간 활성화

3.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 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4. 적용범위

□ 지원규모

- 매년 20개 조성을 목표로 5년간 100개 조성
  - 5년간 양적 확대 이후 향후 5년은 기존 작은미술관 유지/관리를 통한 질적 성장 도모

□ 사업기간

- 작은미술관 운영 안정성을 위해 3년 연속사업
  -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지정해제 가능

□ 지원대상 시설

-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 등 활용하지 않는 공간 모두 포함(신규건립 불가)
  - 사업대상시설 확보(지자체 소유 시설을 활용하나 지자체 소유가 아닌 경우 10년의 사용을 법적으로 담보하여 대상시설을 리노베이션 및 미술관으로 운영 가능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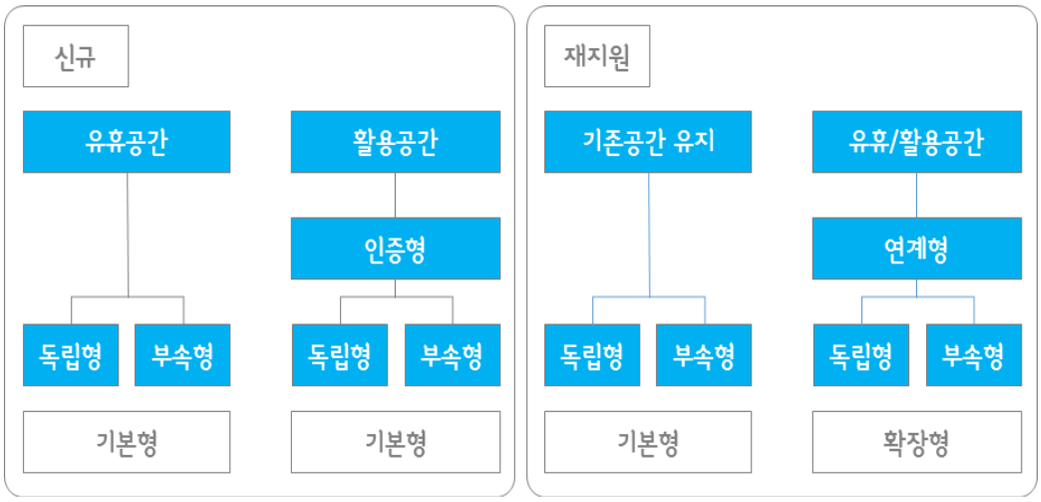
□ 지원조건

- (공통)리모델링이 가능한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 또는 공간 확보
- 지자체 소유를 우선시하고 지자체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장기사용(10년)이 가능할 경우
- 재정자립도 고려하여 보조율 이내에서 차등지원
  - 30%이하 지역은 최대 70% 지원
- 상근직원 1명 이상(상설미술관으로 상시 운영관리 인원 필요)

〈표 4-26〉 작은미술관 유형별 지원조건

구분	유형		지원조건
유휴시설	독립형	• 독립된 건물을 작은 미술관으로 활용 • 지자체 또는 공공소유	
	부속형	• 기존 시설의 일부 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활용 • 지자체 또는 공공소유, 민간소유 가능	• 공간사용에 관해 기존 입주자와 협약체결, 장기활용(10년) 협약체결
기존시설	연계형	• 재지원 할 때 작은미술관 기능 확장을 위한 공간이며 이미 기 사업(타 부처 사업 포함)으로 조성되었거나 기타 전시공간	• 공간 소유주-사업시행 주체와 협약 • 타부처사업: 부처 간 협의 • 기타전시공간: 공공성 확보에 관한 협약, 공간 장기활용(10년) 협약체결 • 기타 전시공간의 경우 사익추구, 운영일수 미달, 미술관 폐관 등 발생시 운영권 지자체에 이관 또는 지원액 전액 반납 등 패널티 부여
운영방법	기본형	• 미술전시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	• 중장기 계획 수립 • (예술지향적 프로그램에 집중)
	확장형	• 미술관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	• 미술관 전시가 중심이 되도록 운영

		- 우리미술관: 미술관-교육관-레지던시-오픈공간 등	• 추후 공간 확장은 지역 내 공간 활용 또는 연계 • 지자체 또는 타 부처간 공간 사용여부 협의 • 중장기 계획 수립시 방향 설정



[그림 4-14] 작은미술관 운영 모형 참고

□ 지원내용

-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한 미술관 조성·운영 지원

□ 기존 계속사업

-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조성 때 수립한 미술관 중장기 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추진

5.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 전국 지자체를 포함하나 미술관이 전무한 시군구를 우선 선정
- 대상부지 인근 생활권역 이내에 미술관과 유사기능의 문화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
- 미설치 지역이 원칙이나 인구, 지역 여건에 따라 동일 시군구 내 미술관 복수 조성 가능

□ 사업주체 및 보조율

- 사업주체: 지자체 또는 문화재단
  -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문화재단 이외의 민간과 관련 단체 운영 방안도 검토
- 보조율: 50%(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이면 최대 70%까지 지원)

□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통보	⇨	시도 계획 수립	⇨	시군구 사업신청
작은미술관 사업 계획 통보 (전년도 11월~12월 중)		지자체와 문화재단(위탁), 전문기획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포함) (1월~3월 계획수립)		지자체 및 문화재단과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수립 후 사업 신청 (3월 중)
(문체부 문서시행 → 시도)		(지자체↔문화재단)		(시군구 → 시도)

⇩

최종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심사 및 보완	⇦	시도별 취합/신청
심사결과 및 보완 사업계획서 심의 후 최종 선정(4월 말)		입지 및 시설, 사업계획서 등 심사 및 추가 사업계획 보완(4월 중)		시도별 취합하여 일괄 신청 (3월 중)
(문체부/문예위 → 시도) * 기존 미술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바로 사업비 교부		(문체부/컨설팅단/문예위→시도)		(시도 → 문체부)

⇩

사업시행	⇨	정산/결과보고	⇨	정산 및 평가결과 통보
작은미술관 운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컨설팅 지속 지원 (5월 초~내년도 2월)		사업 정산 실시 전시 결과 및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2월~3월 제출)		운영결과 보고서로 인센티브 및 지정해제 통보 (4월 중)
(컨설팅단/문예위 → 미술관)		(미술관 → 문예위/문체부)		(문체부 → 시도)

6.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시설조성(자본보조)

■ 대안1: 국고보조

- 지자체 자체 조성

■ 대안 2: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 지역 내 유휴시설, 유휴공간, 타 부처 문화공간(활용하지 않는 공간)
  - 지역 인구, 여건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필요
  - 작은미술관 권장 규모: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66㎡~82㎡이하(20평~25평 사이)
  - 공공문화시설로 지역주민 누구나 개방된 출입과 이용 가능
  - 지역 특성 또는 트렌드를 반영한 미술관 공간 리모델링 지향
- (지원범위) 지원 총액의 70~80% 수준 내외 지원
- (지원내용) 유휴공간의 미술관 리노베이션을 위한 사업비 지원(지자체 50% 매칭)
- (재지원 사업) 지역 내 유휴시설, 유휴공간 등 추가 활용 가능한 공간 확보 후 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을 위한 사업비 지원(30% 매칭)

□ 인건비(경상보조)

■ 대안1: 국고지원

- 지자체 지원
- (지원대상) 작은미술관 전시 기획 담당 인력 3인
  - 전문기획자 1인, 해설사/도슨트(실비지원)와 기획 및 행정보조 등 2인 지원
- (지원내용) 작은미술관 전문기획자 및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인원수 등 탄력적 운영 가능
  - 사업기간 내에 한해서만 지원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 마련
-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50% 지자체 매칭(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는 70%까지 지원)
- 추가적으로 별도사업으로 관련예산 편성하여 지원(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 인력지원 사업 등)

■ 대안2: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지역 내 유휴시설, 유휴공간, 타부처 문화공간을 활용한 작은미술관
  - 신규사업은 사업기간에 한하여 50%지원(최대 70%)
  - 2차년도 사업기간에 한하여 30%지원(최대 50%)
  - 이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조달
- (지원범위) 지원 총액의 10~15%수준 내외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작은미술관 전문기획자 및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 작은미술관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획자 1인, 기획 및 행정보조 등 2인 지원
  -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인원수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
  - 사업기간 내에 한해서만 지원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 마련
- 추가적으로 별도사업으로 관련예산 편성하여 지원(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 인력지원 사업 등)

□ 사업비(경상보조)

■ 대안1: 국고지원

- (지원대상) 지역 내 유휴시설, 유휴공간, 타부처 문화공간을 활용한 작은미술관
- (지원내용) 기획전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50% 지자체 매칭(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는 70%까지 지원)
- 추가적으로 별도사업으로 관련예산 편성하여 지원(작은미술관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 순회전시 프로그램 지원 등)

■ 대안2: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 지역 내 유휴시설, 유휴공간, 타부처 문화공간을 활용한 작은미술관
- (지원범위) 국고 지원 총액의 10~20%수준 내외에서 지원 가능(지자체 50% 매칭)
- (지원내용) 기획전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가적으로 별도사업으로 관련예산 편성하여 지원(작은미술관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 순회전시 프로그램 지원 등)

□ 별도 예산 편성(일반회계)

- 기획전시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기획전시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500백만원 내외
  - 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 500백만원 내외
  - 작은미술관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100백만원 이내(협의회 설립, 워크숍, 컨설팅 자문, 홍보/마케팅 등)

7. 사업대상 선정기준

- 사업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춘 시설

〈표 4-27〉 사업대상 선정기준

구분	내용	비고
대상지 여건	• 리모델링이 가능한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 부지 또는 공간 확보 • 지자체 소유를 우선시하고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의 경우 장기사용(10년 이상)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타 부처 사업공간일 경우, 공간 활용에 대한 부처와 협약 체결 선결, 사립미술관의 경우 반드시 공공성 확보 근거 제시 • 전국 지자체를 포함하나 미술관이 전무한 시군구를 우선 선정 • 대상부지 인근 생활권역 이내에 미술관과 유사기능의 문화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 • 미설치 지역이 원칙이나 인구, 지역 여건에 따라 동일 시군구 내 미술관 복수 조성 가능	사익추구, 운영일수 미달, 미술관 폐관 등 발생시 운영권 지자체 이관 또는 지원액 전액 반납 등 적정한 패널티 부여
공간	• 지역주민과 밀접한 역할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접근이 용이한 주민밀착형 공간 확보 • 지역 인구, 여건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필요 • 작은미술관 권장 규모: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66㎡~82㎡이하(20평~25평 사이) • 공공문화시설로 지역주민 누구나 개방된 출입과 이용 가능 • 지역 특성 또는 트렌드를 반영한 미술관 공간 리모델링 지향	
사업규모	• 지원규모는 매년 20개 조성을 목표로 5년간 100개 조성	
참여의지	• 사업운영을 위한 지자체, 전문기획자, 문화예술인 등 지역관계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의지가 높은 곳 • 지속적인 운영재원 가능성	
운영계획	• 운영 기본원칙은 전문미술관으로 운영 • 지역 중심의 전문미술관으로 집중 운영하거나 미술관과 미술 교육, 예술가 지원 등 종합적 미술환경을 체계화하여 운영 중 선택 • 최소 2회 이상 기획전시 개최, 365일 오픈 미술관 권장하나 가동률 80% 이상 유지 • 지자체의 운영 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 최우선 고려 • 운영비에 지원이 있지만 지자체의 지속적 운영 가능 및 의지 중요 • 운영인력, 운영비 확보방안 등 지속적 운영 가능성 검토 • 전문기획자 반드시 포함하며 3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 전문기획자는 외부 기획자 고용 하거나 지역문화재단 내 적절한 인력이 있을 경우 전문기획자로 위촉 가능 • 운영인력 확보 • 상근 직원 1인 이상 • 지역주민 운영 인력 활용 방안(도슨트, 운영/관리 직원, 사무인력 등)	

03 작은미술관 중장기 사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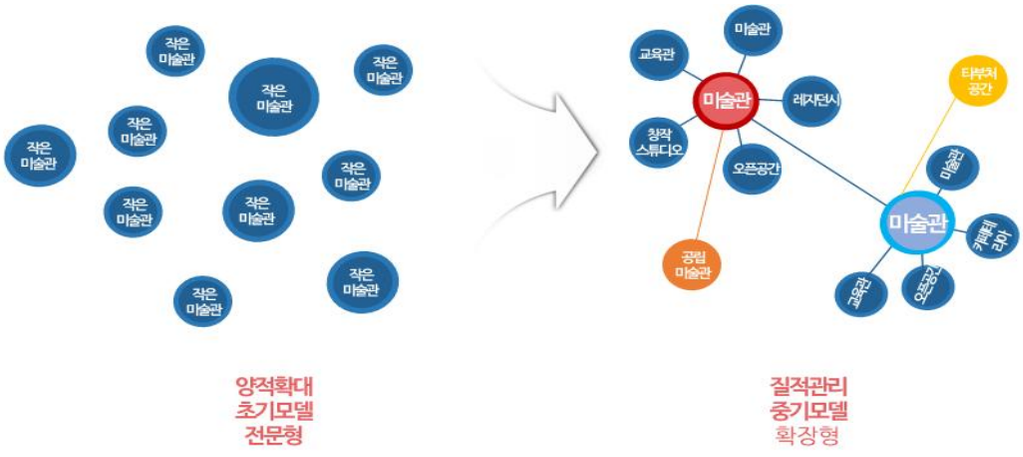
초기에는 양적확대를 목표로, 장기적으로는 운영안정화 기반 마련하여 작은미술관 모델 정립

- 작은미술관의 중장기 사업방향은 초기단계에서는 작은미술관의 확산을 목표로 미술관 부재지역을 중심으로 양적확대를 도모함
- 중기적으로는 미술관 확대와 함께 질적관리를 통한 작은미술관 활성화가 필요한 단계이므로 질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작은미술관 위상을 정립토록 함
- 장기적으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도 미술관이 조성되어 작은미술관 투어 등 관광적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표 4-28〉 작은미술관 중장기 사업방향

초기(18~20)	중기(21~23)	장기(23~27)
• 작은미술관 양적확대를 통해 미술향유기회 다양하게 제공 • 기본형 작은미술관(전문미술관) 위주 조성 추진 - 미술관 부재지역 중심으로 매년 20개 이상 조성 목표 - 전문미술관으로서 기본형 모델 중심으로 추진 - 작은미술관 전담팀 신설 - 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중앙차원)	• 미술관 질적관리를 통한 지역주민 미술감수성 고양 • 확장형 모델 육성(우리미술관 시스템) • 운영주체 다양화 검토(기존 문화재단과 지자체에서 민간/사립미술관 등 확대 방안) - 미술관 부재지역 또는 추가수요 요구되는 지역 중심으로 추가 조성 - 운영이 잘 되는 미술관 중심으로 확장형 모델 육성 - 작은미술관 활성화 방안 마련 - 타문화시설, 국공립미술관 등 지역 전시시설과 연계방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 미술관 조성 • 229개 이상 조성 목표 - 일본의 경우는 지방 소도시를 포함하여 5,000여개 작은미술관 보유[11] • 작은미술관 투어 등 관광적 요소로 활용

11) 일본은 지방 소도시까지 합쳐 크고 작은 미술관이 5,000여개 조성, 미술관의 양적증대는 정부의 미술관 정책과 일본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가능하게 됨. 일본에서는 예부터 미술이 대중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봉건시대부터 특정 계층의 문화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즐기며 발전함. 미술 표현이 평이한 내용부터 고차원 내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미술분야로 보고 사진, 판화, 파노라마, 엽서, 만화, 삽화 등 넓고 다양하게 미술영역으로 인식함. 이에 개인 소장품 등 상당한 컬렉션을 전시하며 미술관 조성 확대됨. 정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미술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미술관 건설 붐이 일었고 경제 침체로 미술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지적 되었을 때에도 지원을 축소하기 보다는 정책적, 재정적으로 투입을 확대함. 미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미술의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적비용 확장, 제도정비, 미술관 시설 개선, 학예사 지원, 전시회 미술품 손해배상 관련 법률, 해외 미술품 국내 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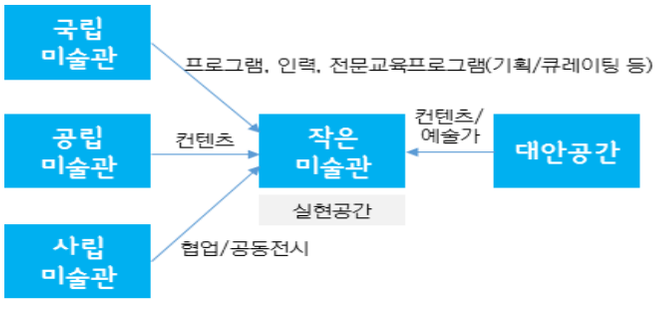
[그림 4-15] 미술관 조성 방향

〈표 4-29〉 작은미술관 사업방향에 따른 사업제안

구분	내용
초기(18~20)	• 작은미술관 본사업예산 확보 – 국고예산 또는 지특회계 • 작은미술관 전담팀 구성 • 작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사업 추진 • 홈페이지 구축 및 CI 개발 추진 • 평가지표개발 등 평가체계 구축
중기(21~23)	• 작은미술관 확장형 모델 육성사업 • 지역 내 유휴공간 또는 문화시설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또는 공간활용 지원 • 작은미술관 기획전(축제) 개최, 찾아가는 작은미술관 지원, 작은미술관 전시 순회프로그램 지원 등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기(23~27)	• 작은미술관 포함 전국에 미술관 229개 만들기 사업 추진 • 작은미술관 투어코스 개발 등 관광적 요소로 활용 계획 추진

작은미술관과 기존 문화공간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작은미술관은 소장 및 수집 기능이 없고 전시와 교육 중심인 실속형 미술관으로 수집/소장 기능을 대신 해 줄 수 등록미술관과 협업으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를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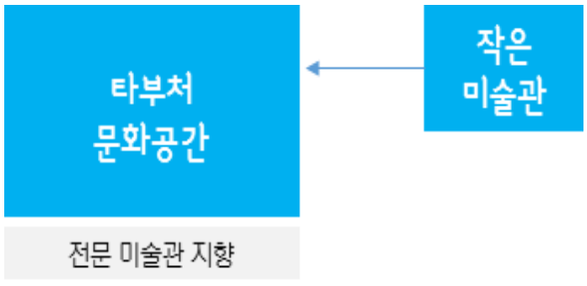


[그림 4-16] 작은미술관과 등록미술관, 대안공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안)

〈표 4-30〉 작은미술관과 등록미술관의 네트워크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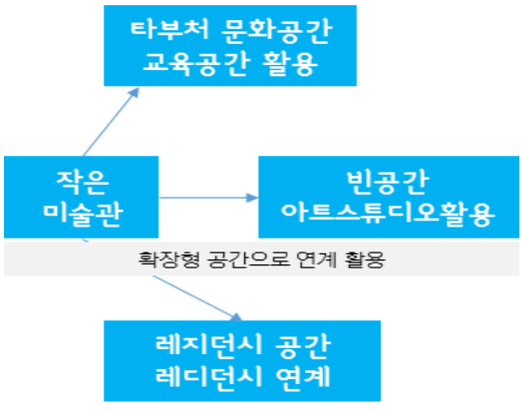
구분	내용
국립미술관	• 국가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국내 미술정책의 흐름을 형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관련 프로그램 제공, 인력 제공, 기획 및 큐레이팅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공립미술관	• 지역의 거점 미술관으로 작은미술관과 상호 밀접하게 연계 가능하며 기획전시 순회전시 개최, 작은미술관 전시 작가 작품 공립미술관 전시 등 상호 보완관계 형성
사립미술관	• 사립미술관은 작은미술관과 협업전시, 공동전시 등 개최 가능 • 중기단계에서 작은미술관 운영주체에 대한 확대 방안 검토를 통해 사립미술관에서 작은미술관으로 직접 운영(검토필요)
대안공간	• 공간 수혜자가 지역주민이냐, 예술가냐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공간이 가지는 특성이 유사한 곳으로 작은미술관과 어울리는 컨텐츠와 예술가 제공

- 타부처 문화공간과는 타 문화공간이 전문 미술관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 작은미술관의 콘텐츠와 운영방식을 그 공간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간-콘텐츠를 상호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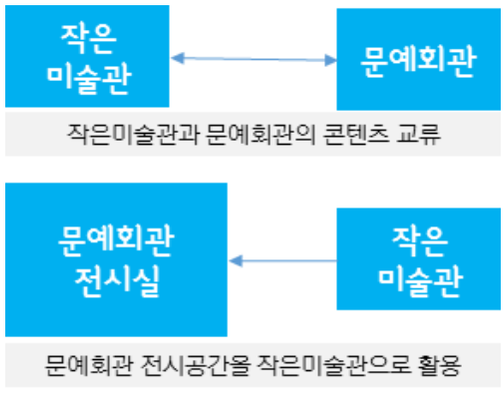


[그림 4-17] 작은미술관과 타부처 문화공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안)

- 그 외 지역 내 빈 공간 또는 레지던시 공간 등을 점차 추가하여 확장형 공간으로 연계하고 지역 문예회관의 전시공간과도 연계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함
  - 현재 문예회관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그림 4-18] 작은미술관과 지역 내 유휴공간 네트워크 구축(안)



[그림 4-19] 작은미술관과 지역 문예회관 네트워크 구축(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마련

- 작은미술관를 통한 미술 대중화를 위해 공공성 확보가 중요함
- 미술의 대중화는 전시장에 오는 사람의 만족에 대한 고민보다는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을 방문하게 하는 것으로 작은미술관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대다수 지역주민 주도적 문화공간이 시설 조성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후 지원이 뒤따르지 못해 공간 활성화와 지속적 운영이 어려움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사업은 지자체개 해야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미술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초기 사업에서는 중앙의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작은미술관은 컨텐츠가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지특회계는 지자체 재정 자율성이 강하여 사업 추진이 모호해질 수 있고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고 보조를 검토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 사업 초기에는(2007년)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업 추진, 2016년도에 지특회계로 이관
- 작은미술관은 소규모의 공공미술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격차 해소라는 공공적 역할 미션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기초단위에 작은미술관을 조성할 경우 특히 지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이 절실, 중앙에서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성 담보가 필요함

법적 근거 마련

- 작은미술관 진흥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표 4-31〉 작은도서관 및 작은영화관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작은도서관	• 관련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 목적: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도서관 진흥의 필요성이 제기 • 추진과정: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2012년 2월 17일에 제정/공포, 작은도서관 시행령은 2012년 8월 18일에 시행 • 주요내용: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근거로 운영방향, 공공도서관과 협력,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육성, 운영실태조사 실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설립
작은영화관	• 2017년 3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와 운영,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04 작은미술관 운영방안

1 공간운영

1.1 공간활용 방안

- 현재 작은미술관 조성/운영사업을 통해 다음의 대상지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으로 하여 공간(대상지)을 규정하고 있음
  -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이들 문화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및 작은 미술 공간이 절실한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운영
  -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거나 기존 유휴공간 활용사업 등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문화원, 소속 전시관, 문화의 집, 및 민간(개인) 소유 공간은 제외
- 그러나 작은미술관의 정체성 및 조성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 활용도를 높여 활용(운영)되지 않는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유휴공간, 기존 문화시설, 신규 시설, 타 부처 사업공간, 개인 사립 미술관 등 모든 공간이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작은미술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도를 높임
  - 각 공간별 특징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방안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작은미술관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표 4-32〉 공간별 지원 방안(안)

구분	내용	비고
유휴공간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공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기존 문화시설, 업무시설 또는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 등 시설의 종류 상관없이 운영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입주자간 합의 필요
타부처 사업공간	타 부처 유휴공간사업에서 하드웨어 사업으로 사업 종류 후 사용되지 않는 공간 활용하여 시설조성비는 지원 제외 하고 콘텐츠 기획 및 운영비만 지원	부처간 협의 필요
개인 사립 미술관	개인 사립미술관의 경우, 운영비와 프로그램 기획 비용 지원	영리 목적을 포기하는 전제조건 필요



[그림 4-20] 작은미술관 공간 활용 방안

- 특히 타 부처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연계 활용 가능성 다양하게 검토 가능함
  - 현재 완료된 사업 중 일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존 사업을 활용하거나 진행 및 계획 중에 있는 사업과 연계 하여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거나 공간을 재활성화 가능
  - 신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센터 내 공간 활용 등을 통해 작은미술관을 조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작은미술관 사업	• 공항, 은행, 도서관, 공공기관 등 다중 공공시설에 작은 갤러리 조성한 국립현대미술관이 추진한 사업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사업	• 문예회관 전시시설 가동률 높이고 지역주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2014년 도입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 기능을 잃은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 간이역, 비스터미널, 창고, 여성회관, 관사 등에 조성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수요층 특성과 장소성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 제1차 국가건축기본계획(2010-2014)에서 근대산업유산 활용한 지역특화 문화공간 사업 시행, 제2차 국가건축기본계획(안)(2015)에서도 유휴공간 활용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확충 사업 제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사업	• 2014년 도시재생 13개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공가, 빈점포, 양조장, 창고 등 유휴공간 재활용 사업 추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 주민센터 업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문화공간 등 시설 이용 가능 • 주민 복지 및 주민 교류 촉진 시설로 문화공간 조성 예정

[그림 4-21] 문화공간 조성사업(예)

- 이 외에도 지역 내 레지던시 혹은 문화공간과 작은미술관을 연계하여 미술관의 공간을 확장하고 빈 공간을 문화공간화 하는 등 상호 연계 활성화 해 나아갈 수 있음



[그림 4-22] 작은미술관과 지역 내 공간 상호 연계 활성화 방안

2 프로그램 운영

2.1 지역특색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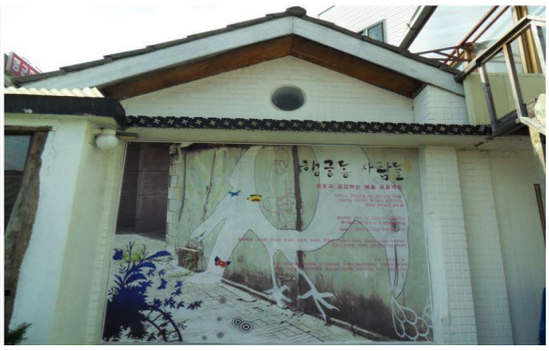
- 작은미술관이 문화소외지역 등 전국 곳곳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미술관마다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음
- 전국에 조성되는 모든 작은 미술관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획일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서 조성되는 미술관이 그 지역 특색과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의 고유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고유 자원과 역사 등을 반영한 주제로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

*** 대안공간 눈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 대안공간 눈은 2010~2012년까지 화성 성곽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역사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어 시각예술분야의 창작을 활성화 하고 주민 스스로가 창작 과정의 주인이 되는 환경 조성으로 공공의 삶에 생기를 부여하고자 진행된 프로젝트임
-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행궁동 지역을 주제로 하는 신인작가 발굴 프로젝트와 기획전시, 주민들과의 공동작업에 의한 예술 공간 만들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행궁동의 역사와 기억을 주제로 하는 '골목에 예술 씨앗을 심다'展이라는 이름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행궁동 사람들



행궁동 사람들



골목에 예술 씨앗을 심다 展



대안공간 눈

2.2 작은미술관 기획전 개최

-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은 지역의 영상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작은 영화관'에서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통해 주민들과 다양한 영화를 나누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영화를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상업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 상영 기획전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폭넓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전 기간이 지역 영화축제기간처럼 운영되고 있음
- 기획전 동안 영화상영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며 주민들이 영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쉽고 재밌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작은미술관도 미술주간 기간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작은미술관 기획전을 개최해 미술 전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들이 미술을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이 더욱 쉽게 미술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미술주간을 정해 시범 운영
  - 2016년 본격 실시에 들어간 '미술주간' 전국 국/공/사립 미술관, 화랑(갤러리), 3대(광주, 부산, 서울) 비엔날레 등 100여개의 미술공간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제공

*** 작은 영화관 기획전**

- 작은영화관 기획전 사업은 전국 작은영화관을 대상으로 지역의 영상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상업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한 상영 기획전을 지원하는 사업임
- 또한, 영화를 나누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표 4-33〉 작은 영화관 기획전 주요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영화 쓱싹 가면만들기	전문 강사가 영화 속 캐릭터 가면을 만들어 예쁜 말 해주기 프로그램
영화 크레딧 속 숨은 이야기	보이지 않는 영화 속 제작 이야기 나누기
힐링시네마	관람 후 미술치료사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미술활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꿈, 진로, 적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시행
영화 뚝딱 내가 만들었어요!	영화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가 만들기 활동 후 친구에게 따뜻한 말, 예쁜말 해주기 프로그램
둥실둥실 영화 풍선 꾸미기	영화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고 영화 속 캐릭터 풍선을 꾸며 친구에게 따뜻한 말, 예쁜 말 해주기 프로그램



자료: 작은영화관 기획전 홈페이지(http://smallcinema.co.kr/gallery.htm)I

*** 미술주간**

- 미술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미술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일정한 시기를 정해 전시관람, 프로그램 체험 등 미술 행사 참여를 도모하는 제도임
- 미술주간 시기 전국 미술관에는 주요 미술관에서 입장료 할인혜택, 도록 증정 이벤트 등을 개최하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전시행사, 부대행사 등이 개최됨

〈표 4-23〉 2016년 주요 지역 전시행사

지역	행사 명칭	주요내용
서울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 쇼핑	서초동 일대의 생활 속 예술 공간 20여 곳에서 무료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이벤트, 공방 아트 체험 등 다양한 예술체험 제공
대구	예술가의 작업실 기행	다양한 전시, 행사 진행
대전	예술가의 방	중동에 자리한 작은 미술관에서 동네의 낮과 밤의 다른 모습
재주	7080 사진전	제주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옛 사진 속 주인공처럼 의상을 입고 사신을 찍는 이벤트 개최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layworks/220836035582), BB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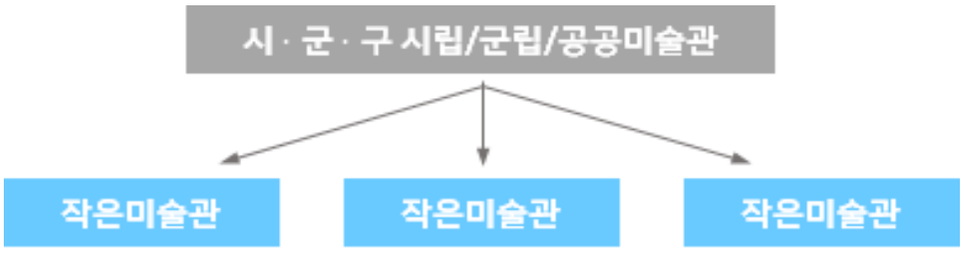
〈표 4-24〉 주요 미술관 미술주관 기간 할인 정보

미술관	주요 할인 정보	미술관	주요할인 정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주간 내 무료전시 고양레지던시 무료 셔틀버스 운행	경기도미술관	미술주간 내 입장료 50% 할인
경주솔거미술관	미술주간 내 무료 입장	광주시립미술관	입장료 없음 전시도록 증정(매일 선착순 3명) 큐레이터 전시투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술주간 내 ACC 문화창조원 통합권 50% 할인	국윤미술관	입장료 없음 미술주간 내 전시도록 증정
대구미술관	미술주간 내 무료입장 전시도록 증정(10.11~16 양푸동 전 매일 선착순 3명)	디뮤지엄	미술주간 홍보스티케 제시하면 입장료 40% 할인
마가미술관	미술주간 내 교육프로그램 50%할인	삼성미술관 리움	미술주간 내 입장료 50%할인
소마미술관	미술주간 내 무료 입장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미술주간 내 무료입장
신풍미술관	미술주간 내 입장료 50% 할인 기념품 증정(매일 선착순 5명)	아라리오 뮤지엄	미술주간 내 입장료 20% 할인
아르코미술관	입장료 없음 매일 선착순 3명 도록 증정	아트선재센터	미술주간 내 입장료 20% 할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미술주간 내 입장료 50% 할인	예술의 전당 서울 서예박물관	미술주간 내 입장료 50% 할인
이상원 미술관	아트 스튜디오 20인 이상 체험 시 20% 할인 및 셔틀버스 제공	일민미술관	미술주간 내 금/토/일요일 입장료 50%할인 김용의 작가스페셜 도슨트 전시연계프로그램
포항시립미술관	입장료 없음 전시도록 및 기념품 증정	(재)한원미술관	입장료 없음 큐레이터 전시투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useum.go.kr)

2.3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 최근 미술 향유 기회 확대, 삶의 가까이에서 즐기는 미술로 부담없이 미술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 많은 국/공립 미술관에서 관공서, 학교, 지역미술관 등과 공동기획/업무협약 등 다양한 방식/형태로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음
  -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 로비에 전시프로그램 운영, 지역 학교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 등
- 작은미술관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내용도 더욱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시립, 구립, 군립, 공립 미술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작은미술관에서 주기적으로 정기기획프로그램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24] 지역 시/구/군/공립 미술관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표 4-34〉 경남도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구분	내용
운영 현황	•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과 연계하여 5회째 전시 개최를 진행함
세부프로그램	• 어린이 작가전 '쑥쑥'을 개최하여 남해 지역축제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작 전시(2016.4) • '고독자의 비판정신'이라는 테마로 채준 화백의 만화와 회화작품이 함께 전시(2016.7) • 동현스님&전복희 초대전에서 한국적 정서·색 투영된 민화작품 30여점 전시(20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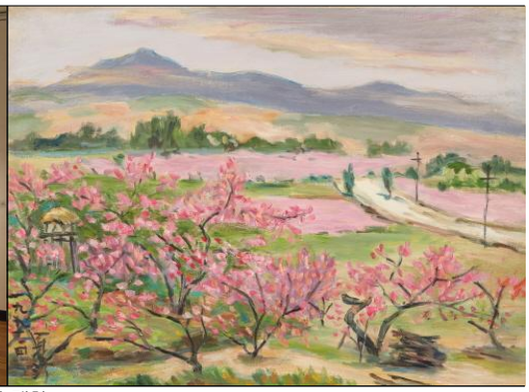


뉴스웨이(2016.04.15), 남해 바래길 작은 미술관에 어린이 작가전 열려요
뉴시스(2016.07.07), 남해 바래길작은미술관,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전시회
경남도민신문(2016.10.23), 남해 바래길 작은미술관 동현스님&전복희 초대전

〈표 4-35〉 전북도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구분	내용
운영 현황	• 전북도립미술관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전시는 전북 시·군의 문화공간을 활용해 전북도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품을 순회하여 전시하는 사업임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순창 군립도서관, 익산 보석박물관 등 도 내 기관에 한해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운영
세부프로그램	• '진포에서 만난 작은 미술전'이란 주제로, 회화 및 사진 등 구상과 추상으로 이뤄진 다채로운 작품 30점 전시(군산 근대역사박물관) • '섬진강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섬진강이 흐르는 순창에서 자연주의적인 풍경화와 삶의 애환, 희망을 표현한 인물화를 중심으로 구성 전시(순창 군립도서관) •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품은 익산 – 자유의 빛'을 주제로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유명 미술작품 15점 전시(익산 보석박물관)





전북도민일보 (2016.02.19),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군산서 전시 개최
(2016.04.04), 전북도립미술관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순창'전 기사 재정리
(2016.07.19), 익산보석박물관 '빛을 품은 추상미술전' 개최

〈표 4-36〉 하동군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구분	내용
운영 현황	• 국내 최초 비영리 어린이 전문미술관인 헬로우뮤지움과 연계하여 관 내 청소년수련관에서 '2016 찾아가는 미술관 헬로아트'를 운영 •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나흘간 450여명을 대상으로 15회차에 걸쳐 진행
세부프로그램	• 한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을 알리고,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예술체험 교육 진행





경남도민신문(2016.11.13), '하동군 미술관 헬로아트에 푹 빠진 아이들' 기사 정리

〈표 4-37〉 양평군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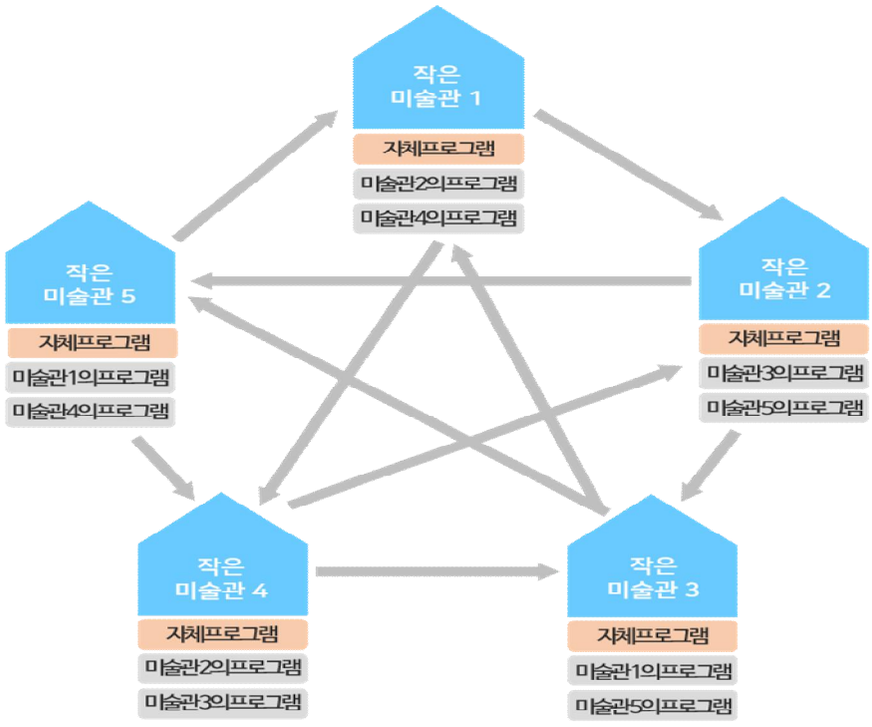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운영 현황	• 양평군립미술관은 2016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내 6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창의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예술인 육성 노력 • '전시연계 주말 어린이예술학교', '찾아가는 창의 체험교육' 등 지속적으로 미술관이 운영하는 창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미술 전문강사를 초빙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함
세부프로그램	• 교육의 제1안에서는 '내가 꿈꾸는 양평'을 주제로 친환경 양평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발상과 전환에 대한 학습과 스토리텔링과 기법들을 통해 식물도감 만들기와 오브제, 콜라주로 나의 꾸미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 제2안은 현대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전래동화를 스토리텔링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전래동화 체험놀이교육으로 진행됨 • 교육은 매 수업마다 2시간이 소요되며, 교육에 필요한 재료는 미술관에서 제공함



뉴시스(2016.06.13), '양평군립미술관 '찾아가는 창의체험교육' 운영' 기사 정리

2.4 작은미술관 순환전시

- 작은 미술관의 프로그램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장점을 살려 작은 미술관 간에 서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순환전시 개최가 가능함
  - 실제로 많은 작은 미술관 운영진들은 타 지역 전시 중 우수 전시 프로그램 등을 지역 작은 미술관에서 개최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순환전시를 통해 작은미술관들은 단순한 전시프로그램의 교류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 미술 등을 타 지역에 선보이고 이로써 지역간의 교류 및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마련되는 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타 지역 전시 중 희망하는 전시의 순환 전시 개최를 통해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으로 인한 인력 및 재정 자원 절감 및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음
- 마을 주민들에게는 멀리 까지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타 지역의 우수 전시 기획 프로그램을 순환 전시를 통해 지역 내에서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그림 4-25] 작은미술관 순환 전시 구조

2.5 미술전문 교육 제공

- 작은 미술관이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시각예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해 미술관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공간으로 시작된다면, 그 역할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주민들이 미술을 즐기고 미술을 더 깊이 있게 알아 갈 수 있도록 미술 전문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작은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큐레이팅 기법, 시민 도슨트 교육, 미술관 운영 소양 교육 등 미술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교육 제공이 필요함
- 작은미술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작은미술관 운영자 및 운영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작은미술관 운영관련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필요함
  - 이는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민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간 작은도서관 담당자 및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등 운영 관계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의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이해, 운영의 실례, 인력 관리, 장서와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무, 지역 네트워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교육하고 있음

〈표 4-38〉 서울시 구로구 2015년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초급	중급	고급	설치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환경설정, 업그레이드 방법
			대출,반납	대출반납(대출유형 설명, 대출이 안될 시 확인할 사항 정리, 각종 반납 팝업창 정리) 상호대차(상호대차 흐름, 주의점) 예약관리 이용자관리(신분,대출한도,각종제재,유효기간등의 의미 및 확인방법)
			장서관리	도서상태별 의미 소장위치변경 자료상태별 조회
			홈페이지	검색방법안내 -전방,키워드 검색
			회원증	회원증 출력
			MARC	MARC 반입방법(Z서버,파일), MARC구조, MARC반출, MARC수정/삭제, 소장정보 생성/수정/삭제
			장서점검	장서점검 단계, 장서점검리스트 작성시 주의사항, 제적처리 방법
			통계	통계사용방법 - 대출반납, 대출업무보고서, 상호대차통계, 이용자통계, 이용자등록현황
			쿼리	DLiⅡ 테이블 구조 쿼리문 구조 쿼리문 실습
			통계	자료별 서고,이용자신분 관리

자료: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그림 4-26] 작은도서관 직무 전문성 강화교육

자료: 행복한 아침독서(http://www.morningreading.org/)

2)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 - 생활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의 일원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내 생활문화 플랫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음
- -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은 매년 2회 내외로 실시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역량 및 기획운영역량 강화를 위함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4-27] 생활문화센터 역량강화 교육

자료: 생활문화진흥원 홈페이지

3)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전문직 연수프로그램〉

- -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공/사립 미술관 및 박물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4-28] 미술관 전문직 연수프로그램

자료: 네오룩 홈페이지(https://neolook.com/)

3 인력 운영

3.1 지역주민 활용

- 작은미술관의 운영 인력은 전국적으로 미술관련 전문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학예사, 도슨트, 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우리미술관은 시민 도슨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및 남해바래길 미술관은 자원봉사자를 도슨트 및 해설사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4-29] 지역 주민을 활용한 인력 운영 사례

- 이에 지역 주민을 작은 미술관 전문관리인으로 육성하여 운영인력으로 활용 가능함
- 일정기간동안 정규 교육과정 이수 후 인증서를 수여 하여 작은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운영인력으로 육성함

  – (가칭)우리마을 작품해설사, 시민 도슨트 등의 명칭으로 양성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은미술관 전문 도슨트 및 해설사로 활용 가능함

*** 시립미술관 시민도슨트 양성교육 사례**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시민 미술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도슨트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슨트 방법론 및 미술사 전반에 관하여 교육함
-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도슨트 시험 자격을 부여 하여 필기 및 실기 심사를 진행함
- 도슨트 교육과정 수료자 중 필기 및 실기 심사를 통과한 15명을 선발하여 시립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하며, 자원봉사활동 경력증명서 발급, 활동비 지급, 미술관 등 유관기관 견학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표 4-39〉 2016년 주요 지역 전시행사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도슨트 혜택
주요 내용	도슨트 실무-역할, 방법론 등	자원봉사활동 경력증명서 발급
	미술사 일반-미술가 생애, 모던아트의 성립 등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
	적품해석-정신분석학, 사회학, 페미니즘적 방법론 등	미술관 등 유관기관 견학
교육 사진		

자료: 서울시립미술관(2016), 2016 도슨트 운영 결과보고

3.2 전담조직 조성

- 각 작은미술관들의 운영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 조성이 필수적임
- 작은미술관을 전담하는 조직(가칭:미술진흥센터)을 설립하거나 혹은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담부서 조성이 필요함
  - 일례로, 생활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 지원 이외에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지역의 생활문화센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운영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연구 및 아카이빙 등)을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작은미술관도 (가칭) 미술진흥센터 및 관리 전담 조직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조성될 작은 미술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컨설팅 하는 역할을 수행 해 나아가야 함
  - 각 미술관들의 기획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순환전시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하며, 지역 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운영이 어려운 곳의 운영 컨설팅 및 국/공립 미술관들과의 협업 전시를 기획하는 등 수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해 나아가야 함
  - 또한, 전문 학예사 및 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작은 미술관을 관리/교육/지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미술 전문 인력 활용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그림 4-30] 작은미술관 전담 조직 조성

*** 생활문화진흥원 사례**

- 생활문화진흥원은 국민의 능동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우리나라 '생활문화'진흥에 기여하는 전담기관으로 2016년 설립됨
- 지역 곳곳에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
- 생활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지원함
  - 생활문화센터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운영자 역량강화교육, 성과 공유회,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지원 등)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정책 연구, 사업평가 및 아카이빙 사업

자료: 생활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ccf.or.kr)

3.3 작은미술관 운영자 협의회 조성

- 작은미술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전국의 작은미술관 운영자들이 모이는 협의회 조성이 필요함
- 협의회 조성을 통해 운영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운영자 협의회를 통해 운영 규정을 함께 만들어나가며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작은미술관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
  - 운영자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영평가를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작은 문제점들부터 내부적으로 개선 해 나아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함
- 또한 정기적인 워크숍 진행을 통해 운영자 역량강화,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음
- 연간 약 2회 정도의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운영자들이 지역별 작은미술관들의 운영 현황을 서로 나누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작은도서관 운영자 협의회 사례**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작은도서관의 지역문화커뮤니티 기능강화와 운영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함
- 또한, 각 지자체의 주관 하에 지역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함



2014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광주/전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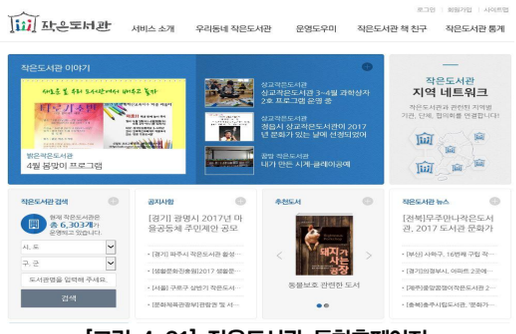
2014 수원 작은도서관 협의회 창립총회

자료: 여수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cafe.naver.com/slibinyeosu/1201),
경기경제신문(2014.07.11.) "수원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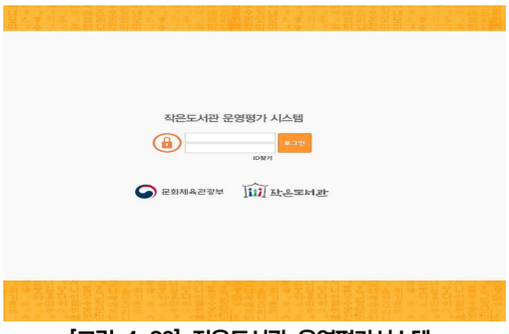
4 홍보 및 마케팅

4.1 작은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 국민들에게 작은미술관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작은미술관 운영자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행사, 운영 사례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의 경우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관련 정보가 제공/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통합적 관리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및 운영실무자들에 의해 작성되는 운영평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운영평가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현황를 바탕으로 매년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총량제도로 인해 통합홈페이지 구축은 추후에 도모해야 함
-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르코 홈페이지에 작은미술관 카테고리 등을 따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 작은미술관 개별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함



[그림 4-3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그림 4-32]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그림 4-33] 작은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그림 4-3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작은영화관 링크 연결 사례

4.2 작은미술관 공동 명패 부착

- 작은미술관 개념의 정착과 작은미술관의 운영이 일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통합 명패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제안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은 CI를 개발하여 운영자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진흥원도 BI를 개발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자에게 배포하고 있음
- 특히, 생활문화진흥원은 '2016 생활문화센터 디자인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BI 활용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4-35] 생활문화센터 BI



[그림 4-36] 작은도서관 CI

4.3 작은미술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슬로건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4년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생활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생활문화센터는 ○○이다'라는 주제로 키워드 토크를 실시함
- 이에 작은미술관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작은미술관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슬로건 제작 공모전을 개최함
- 또한, 공모전 수상자들과 작은미술관 운영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은미술관의 관한 키워드 토론을 실시함



[그림 4-37]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네이밍 공모전



[그림 4-38] 생활문화진흥원 키워드토크

부 록

1. 관계자 인터뷰 결과
2. 미술관 미설치 지역

01 관계자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개요

- 작은미술관 운영자 및 담당자 대상 인터뷰 진행

〈표 4-29〉 공간별 지원 방안(안)

지역	미술관명	방문일자	담당자	소속
경기 동두천	두드림 작은미술관	17.01.09	이생강	경기문화재단 기획자
강원 정선	아트미술관	17.01.10	이명환/이희란	외부기획자/정선아리랑문화재단
대전 중동	작은미술관	17.01.12	박혜성/황찬연	대전문화재단/외부기획자
충남 계룡	두계 장옥미술관	17.01.12	나의석/주연신	계룡시청 문화예술과/도시재생과
전북 익산	솜리골 작은미술관	17.01.12	고경환/김은미	익산문화재단/외부기획자
인천 동구	우리미술관	17.01.13	구영은	인천문화재단
경기 안산	작은미술관 밖 더 큰미술관	17.01.13	김미자/신숙자 외 2인	사2동 사무장/주민자치위원회
경남 남해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17.01.18	황무현	대안공간 마루 대표
전남 고흥	소록 Art Laundry	17.01.19	강의원	국립소록도병원 주무관

〈표 4-30〉 작은미술관 운영현황

미술관명	운영여부	규모	세부시설	인력	프로그램 운영내역	주요대상	관람객 수
두드림 작은미술관	운영 중 (2017.2)		전시장 1개	전문기획자 1명 도슨트 1명	전시 5회 공연 2회 교육 10회	지역주민	평균 2~3명/일
아트미술관	운영 중 (2017.2)	80㎡	전시장 1개	전문기획자 1명 행정사무인력 1명	전시 2회	지역주민 방문객	16년; 8,571명
작은미술관	운영 중 (2017.2)	84㎡	전시장 1개	전문기획자 1명 도슨트 1명 행정사무인력 1명	전시 2회 공연 1회 프로젝트 2회 책출판 1권	지역주민 예술가(단체)	16년: 600명
두계 장옥미술관	운영중단		전시장 1개	-	-	지역주민 예술가(단체)	-
솜리골 작은미술관	운영 중 (2017.2)	59.5㎡	전시장 1개	큐레이터 1명	전시 3회 공연 2회 교육 10회 아카이브 1회	지역주민	16년: 2,100명

우리미술관	운영 중 (2017.2)		전시장 1개 교육장 1개 작업실 1개(오픈스튜디오) 레지던시 1개	전문기획자 1명 큐레이터 1명 도슨트 1명 행정사무인력 1명	전시 7회 공연 2회 교육 32회 주민잔치 2회	지역주민 예술가(단체)	16년: 1,999명
작은미술관 밖 더 큰미술관	운영중단 (자체운영 중)	100㎡	전시장 1개 교육장 1개 회의공간 1개	전문기획자 1명 행정사무인력 2명 도슨트 (자원봉사자) 2명	전시 10회 아카이브 4회	지역주민	15년: 300명 16년: 500명
남해 바래길미술관							
소록 art laundry	운영중단		전시장 1개	기획자 2명 큐레이터 2명 행정/사무인력 1명 미술관 지킴이 1명	전시 1회 (2015년)		15년: 5,500명

〈표 4-31〉 작은미술관 인터뷰 결과

미술관명	공간소유 형태	리모델링 비용	전시횟수/기간	갈등유형	적정 예산	적정지원 기간
두드림 작은미술관	지자체 소유	약 3,000만원	5회/ 각 15~20일	예산매칭	1억 5천	3년
아트미술관	지자체 소유	약 3,000만원	2회/ 각 15~20일	예산매칭 지속사업 여부	1억 이상	10년
작은미술관	지자체 소유	-	2회/ 각 2주	예산 집행시 내부규정과 상충	1억	2~3년
두계 장옥미술관	지자체 소유	-	-	지역 예술단체와 갈등으로 지원포기	-	-
솜리골 작은미술관	지자체 소유	약3~5,000만원	3회/ 약 20일	없음	-	3년
우리미술관	지자체 소유	-	7회/	없음	-	2~3년
작은미술관 밖 더 큰미술관	지자체소유	-	10회/ 약 15일	운영단체 운영중단(예산매칭)	4천	최소 2년
남해 바래길미술관						
소록 art laundry	국가소유	약 3,000만원	1회	예산 매칭/편성		3년

2 키워드별 인터뷰 결과

- 인터뷰결과 키워드별 정리

〈표 4-32〉 작은미술관 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예시
운영방향 (정체성)	예술형 전시	• 지역예술가와 신진작가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각미술 전시에 집중하는 형태로 주민 참여는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데 전시기간 내에 작가와 학교를 연계하여 체험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 • 작은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미술관이 주는 위화감 및 제재가 없어 편하게 작품 감상과 질의응답이 가능 • 전시가 없는 기간에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유명작가의 선의에 의한 작품 전시는 기획자의 개인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어 기획자가 변경된다면 작품의 질과 방향성이 변경될 수 있음	- 정선 아트터미널 미술관 - 동두천 두드림미술관 - 소록도 작은미술관
	주민참여형 전시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주민이 공감할 만한 주제의 전시를 기획, 전시와 연계한 참여프로그램운영, 작가와 공동작업한 주민 참여 작품 등을 전시하는 형태 • 전시가 없는 경우는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공간이 친숙한 관계를 이어가며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임 • 다만 이러한 형태의 공간은 이미 타 부처 및 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작은미술관 정체성의 모호함과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익산 솜리골 작은미술관
	예술+주민 참여	• 지역예술가와 신진작가 등의 예술작품을 전시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 협업작품 등을 전시하는 예술형과 주민참여형이 복합적인 형태 • 지역주민의 예술 소양 증진이 목적임에 따라 예술성과 지역주민 참여라는 두 가지를 배제하지 않은 형태로 지역예술가/신진작가와 지역주민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시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체험한 결과물을 전시, 이러한 형태의 전시를 중점에 두고 전시기획 • 그 외 지역예술가 작품 전시와 주민이 참여한 작품 전시 등 지속적인 전시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간 접점에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높일 수 있지만 주민의 예술소양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는 의문 • 다만 인천 우리미술관의 경우 작은 미술관과 함께 작가 레지던시, 교육관, 작업실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어 성격이 다른 두 방향을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함(예술작품 전시는 작은미술관에서만, 지역주민과 예술가 참여는 작업실에서, 지역주민 참여 작품은 교육	- 대전 중동 작은미술관 - 인천 우리미술관 - 안산 작은 미술관

		관에서 교육 및 전시),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재단의 두 방향 운영시스템 정립으로 가능	
지자체 협력	운영비 지원	• 작은미술관 공간운영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이 '운영예산'인데 이 운영예산을 프로그램 기획 예산과 공간운영관리 예산으로 나누어 보면 특히 공간운영관리 예산이 공간의 지속적 운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인건비, 전기세, 시설관리비 등)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운영비 또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미술관의 경우는 작은미술관 사업 종료 후에도 공간 운영이 가능 - 대전 작은미술관: 건물을 옛주민센터로 시에서 전체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 입주예정인 사회적기업이 작은미술관 관리 및 운영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 작은미술관 사업 종료 또는 전시 휴식기에도 공간활용은 가능, 다만 기업의 성격에 따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어 작은미술관 방향과는 다소 차이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솜리골 미술관: 솜리골 미술관은 문화재단 소속 건물로 재단 바로 옆에 위치하여 사업 종류 후 또는 전시 휴식기에도 건물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직접 가능하고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또는 미술관련 프로그램 진행 가능, 프로그램 성격은 작은미술관 방향과 상이할 수 있음 - 안산 작은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 주민자치센터 분소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센터에서 분소 전체를 관리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 현재는 작은미술관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여 전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우리미술관: 우리미술관의 경우는 2016년에 동구에서 오픈스튜디오와 레지던시 운영비 지원받았고 2016년 말 2차년도 작은미술관 사업 재지원으로 받은 예산은 2017년 2월까지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 후 사업은 동구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예정	- 대전작은미술관 - 솜리골 작은미술관 - 안산 작은미술관 - 우리미술관
	저조한 관심	• 작은미술관은 지역의 시각예술 기회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무관심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두드림 미술관: 인근과 경기 북부권에 문화공간이 많이 없어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체감이 떨어지는 지역,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 입주민과도 갈등 발생, 이와 관련 동두천과 협의하였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 시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 정선아트터미널: 군에서 사업을 위해 공간은 기간제한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그 이상의 예산지원은 어려운 상태, 작은미술관 사업에 대한 관심도 미비한 수준으로 운영비 뿐 아니라 차후년도 예산매칭도 불투명한 상태(설립때 기부한 예술단체가 2차년도 사업까지 매칭비 지원)	- 두드림 작은미술관 - 정선아트터미널

운영상문제	지역주민 무관심	• 지역주민이 작은미술관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없어 작은미술관으로의 참여가 저조 - 계룡 장옥미술관: 계룡은 대전과 15분거리에 위치해 지역주민이 대전으로 문화활동을 빈번히 하고 있어 실제로 문화소외지역이 아닌 상태, 또한 10분거리에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자주 있어 예술가 또한 작품전시 기회가 다수 있는 상황, 실제로 매칭예산도 확보한 상황이지만 지역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해 사업진행을 포기하였고 주민들도 작은미술관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 - 대전 작은미술관: 아직 미술관이 정식으로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시립미술관이 있지만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직은 관심이 미비한 상태, 작가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작품과정을 공유하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 소록도 작은미술관의 경우 위치가 마을 주민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실제 지역주민이 불편제기가 많은 상황, 일부 지역주민들은 미술관 조성에 반기기는 하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아직은 불편해 하는 상황으로 외부와의 소통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에 한샘인으로 구성된 지역미술단체(8명)가 조성되었고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시작했음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계룡 장옥미술관 - 대전 작은미술관 - 소록도 작은미술관
	운영의 불연속성 (짧은 사업기간)	• 현재 2차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사업이 약 6개월 기간동안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간동안 매우 바쁘게 전시가 진행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간은 비어 있게 되는 사업구조임(공모기간은 길고 추진기간은 짧고 예산정산은 까다로움) • 이러한 구조이다 보니 실제로 미술관 운영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전문기획자 공모도 어려운 상황, 또한 단기간 사업임에 따라 기획자 또한 매번 바뀔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미술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거나 운영방향의 일관성이 떨어짐 • 대부분의 작은미술관 운영이 이러한 사업구조 때문에 작은미술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외적으로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작은미술관 자체를 '문화공간팀'으로 소속하여 재단 내에서 기획과 운영을 맡아 계획적으로 운영 • 소록도 작은미술관은 2차년도 사업때부터 소록도 10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소록도 박물관 조성사업과도 맞물려 모든 관심이 소록도 박물관 사업으로 집중된 상황으로 작은미술관의 사업시기가 불문명해짐에 따라 예산 매칭이 불발되어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 공통의견
	비현실적 예산책정	• 작은미술관 사업의 예산지원 구조를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국비 7,000만원(100%지원), 3,000만원 이상 매칭, 재지원일 때는 3~4,000만원 1:1매칭이고 본 사업비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만 사용할 것으로 제한 • 실제 미술관 운영에 대한 현실적 체감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다수	- 공통의견

		로 신규사업의 경우 공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공간 조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1년간 미술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는 부족하고, 재지원 사업의 경우도 인건비만을 책정해도 3,000만원이상이 필요하고 기획과 운영까지 생각한다면 미술관 운영자체가 어려운 예산금액임 • 실제 1년간 작은미술관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직접운영비로만 인건비(교육파트, 전시, 프로젝트) 3명, 전시 진행비/운영비, 작가 fee/설치비/운송료/보험료, 체험진행 강사비/재료비 항목에 대한 비용이 필요, 여기에 기획비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1억~1억 5천은 소요 • 현재 예산 지원 금액을 보면 이러한 현실적 부분까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예산항목구조는 작은도서관과 작은영화관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	
	불필요한 행정절차	•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계획을 만들 때 마다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 제시가 수반되어야 하고 계획에 대한 변경이 매우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많음 • 일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행정절차를 따르지만 미술 분야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이해를 요구	- 공통의견
	인력부족	• 현재 작은미술관 운영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기획자 혼자서 프로그램 기획, 미술관 운영, 관람객 응대 및 해설, 미술관 홍보, 행정처리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있음 • 일부 자원봉사자 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도슨트와 미술관 운영/관리, 행정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작은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	- 공통의견
예산문제	예산 매칭의 어려움	• 작은미술관 사업의 재지원일 경우는 운영기관/단체와 국비를 1:1로 매칭해야 하는데 매칭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재지원이 어려운 지역도 일부 있음 • 특히 작은미술관은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소단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지역은 지자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어려워 1:1 매칭 구조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임	- 두드림 미술관 - 정선아트터미널 - 안산 작은미술관
	비탄력적인 예산집행 및 명확하지 않는 예산규정	• 작은미술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까다로움, 작은미술관 운영으로 구성된 예산비목 이외의 항목으로 사용할 경우 예산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유동적으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또한 예산 집행할 때 재단 내부 규정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작은미술관 사업에 적합한 예산지침과 규정이 필요	- 공통의견

02 미술관 미설치 지역

〈표 4-33〉 미술관 미설치 지역

번호	시/도	시/군/구	인구수	번호	시/도	시/군/구	인구수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55,069	33	인천광역시	부평구	549,716
2	서울특별시	도봉구	348,220	34	인천광역시	계양구	330,284
3	서울특별시	은평구	491,476	35	인천광역시	옹진군	21,351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14,194	**인천 미술관 부재 구/군**		**6개**	**2,271,693**
5	서울특별시	마포구	379,892	36	광주광역시	서구	309,579
6	서울특별시	구로구	417,551	37	광주광역시	광산구	403,04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400,997	38	광주광역시	남구	219,729
8	서울특별시	강동구	444,168	**광주 미술관 부재 구**		**3개**	**932,357**
9	서울특별시	중랑구	411,005	39	대전광역시	중구	252,49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477,739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192,688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357,215	**대전 미술관 부재 구**		**2개**	**445,178**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327,195	41	울산광역시	중구	242,536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235,386	42	울산광역시	남구	340,714
서울의 미술관 부재 구		**13개**	**4,960,107**	43	울산광역시	동구	174,514
14	부산광역시	동구	89,826	44	울산광역시	북구	195,285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126,362	45	울산광역시	울주군	219,255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76,526	**울산 미술관 부재 구/군**		**5개**	**1,172,304**
17	부산광역시	동래구	272,745	4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243,048
18	부산광역시	북구	310,202	**세종 미술관 부재**		**1개**	**243,048**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334,603	47	경기도	부천시	851,380
20	부산광역시	강서구	108,909	48	경기도	안양시	597,414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207,268	49	경기도	평택시	470,832
22	부산광역시	수영구	179,324	50	경기도	광명시	339,484
23	부산광역시	사상구	232,800	51	경기도	군포시	284,890
24	부산광역시	기장군	158,527	52	경기도	하남시	211,101
부산의 미술관 부재 구/군		**11개**	**2,397,092**	53	경기도	의정부시	438,457
25	대구광역시	중구	79,712	54	경기도	구리시	193,763
26	대구광역시	동구	351,352	55	경기도	포천시	154,763
27	대구광역시	서구	199,507	56	경기도	연천군	45,907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218,268	**경기도 미술관 부재 시/군**		**10개**	**3,587,991**
대구의 미술관 부재 구/군		**4개**	**848,839**	57	강원도	춘천시	280,707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530,982	58	강원도	동해시	93,297
31	인천광역시	서구	510,733	59	강원도	태백시	47,070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328,627	60	강원도	삼척시	69,599

번호	시/도	시/군/구	인구수	번호	시/도	시/군/구	인구수
61	강원도	홍천군	70,076	94	전라남도	나주시	104,376
62	강원도	횡성군	45,991	95	전라남도	광양시	155,580
63	강원도	평창군	43,318	96	전라남도	구례군	27,412
64	강원도	철원군	48,013	97	전라남도	장흥군	40,669
65	강원도	화천군	26,264	98	전라남도	영광군	55,618
66	강원도	고성군	30,114	99	전라남도	장성군	46,104
강원도 시/군		**10개**	**754,449**	100	전라남도	완도군	52,668
68	충청북도	충주시	208,350	**전남 미술관 시/군**		**10**	**1,096,915**
69	충청북도	제천시	136,517	101	경상북도	안동시	168,798
70	충청북도	보은군	34,221	102	경상북도	구미시	419,891
71	충청북도	옥천군	52,267	103	경상북도	영주시	109,247
72	충청북도	영동군	50,552	104	경상북도	상주시	101,799
73	충청북도	증평군	37,308	105	경상북도	문경시	74,702
74	충청북도	괴산군	38,973	106	경상북도	군위군	24,171
75	충청북도	음성군	97,787	107	경상북도	의성군	54,014
76	충청북도	단양군	30,503	108	경상북도	영양군	17,713
충북 미술관 시/군		**9개**	**686,478**	109	경상북도	영덕군	39,052
77	충청남도	서산시	170,788	110	경상북도	고령군	34,257
78	충청남도	계룡시	42,634	111	경상북도	성주군	45,205
79	충청남도	금산군	54,612	112	경상북도	칠곡군	123,199
80	충청남도	부여군	70,187	113	경상북도	봉화군	33,539
81	충청남도	서천군	56,012	114	경상북도	울릉군	10,001
82	충청남도	청양군	32,753	**경북 미술관 부재 시/군**		**14개**	**1,255,588**
83	충청남도	태안군	63,900	115	경상남도	밀양시	108,354
충남 미술관 시/군		**7개**	**490,886**	116	경상남도	거제시	257,183
84	전라북도	정읍시	115,173	117	경상남도	양산시	317,037
85	전라북도	김제시	87,782	118	경상남도	의령군	28,111
86	전라북도	진안군	26,069	119	경상남도	함안군	68,937
87	전라북도	장수군	23,628	120	경상남도	창녕군	63,982
88	전라북도	임실군	30,197	121	경상남도	고성군	54,703
89	전라북도	순창군	29,949	122	경상남도	하동군	49,622
90	전라북도	고창군	60,597	123	경상남도	산청군	36,098
전북 미술관 시/군		**7개**	**373,395**	124	경상남도	함양군	40,241
91	전라남도	신안군	46,652	125	경상남도	거창군	63,308
92	전라남도	여수시	288,988	126	경상남도	합천군	48,026
93	전라남도	순천시	278,548	**경남 미술관 부재 시/군**		**12개**	**1,135,602**
17개 시도 230개 시/군/구 중 부재 지역 합계				**124개 시/군/구**			**22,647,622**

▌참고문헌▐

연구 보고서

김혜인(2015), 미술정책, 미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고민하자
문화체육관광부(2009),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3), 민간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3),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2014), 미술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4),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4~2018)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전략컨설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지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향유실태조사 보도자료
생활문화진흥원(2017), 2017 생활문화센터 성과공유회 자료집
서울시립미술관(2016), 2016 도슨트 운영 결과보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3),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작은미술관 세부성과내역 내부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작은미술관 운영예산 관련 내부자료

홈페이지

Benesse Art Site Naoshima 홈페이지(http://benesse-artsite.jp/en/about/)
네오룩 홈페이지(https://neolook.com/)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layworks/220836035582), BBS NEWS
동아 백과사전(http://www.doopediat.com)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이트(http://artnetworking.org)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useum.go.kr)
생활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ccf.or.kr)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여수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cafe.naver.com/slibinyeosu/1201),
작은영화관 기획전 홈페이지(http://smallcinema.co.kr/gallery.htm)l
장수 한누리 시네마 홈페이지(https://hannuri.scinema.org/)
전라북도 모여락 홈페이지(http://www.myjb.kr/)
청개구리 어린이도서관 카페(http://cafe.daum.net/treefrog5212040/FvvW/2)
프랑스 위키피디아 백과(https://fr.wikipedia.org/)
행복한 아침독서(http://www.morningreading.o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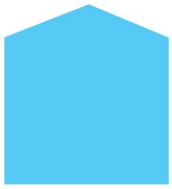
경기경제신문(2014.07.11.) “수원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모아”
경남도민신문(2016.10.23), 남해 바래길 작은미술관 동현스님&전복희 초대전
경남도민신문(2016.11.13), ‘하동군 미술관 헬로아트에 푹 빠진 아이들’
뉴스웨이(2016.04.15), 남해 바래길 작은 미술관에 어린이 작가전 열려요
뉴시스(2016.06.13), ‘양평군립미술관 '찾아가는 창의체험교육' 운영’
뉴시스(2016.07.07), 남해 바래길작은미술관,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전시회
전북도민일보(2016.02.19),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군산서 전시 개최
전북도민일보(2016.04.04), 전북도립미술관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순창’전
전북도민일보(2016.07.19), 익산보석박물관 ‘빛을 품은 추상미술전’ 개최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김효정	대표
연 구 진		유하나	팀장
		주미경	팀장
		윤선주	연구원
		최경원	연구원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TEL. 061.900.2343 http://www.arko.or.kr
작 성 기 관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3 빌딩 619-1 TEL. 02-773-8035 FAX. 02-773-8036 www.recult.kr
인 쇄 일	2017년 3월
발 행 일	2017년 3월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용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